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03

오늘의 마켓 지수
(오전 10시 30분 현재)

KOSPI	1,833.53	▼ 6.57
코스닥	471.12	▲ 3.28
환율		
· 달러	1,117.60원	▲ 5.10
· 엔	1,453.84원	▲ 9.54
· 유로	1,532.88원	▲ 0.74

KDB산은금융그룹
대우증권

2011년 9월 19일 월요일 제241호

STX, 하이닉스 포기하나

예비실사 결과 "리스크 크다" 진퇴 고민

값만 더 받겠다는 채권단에 강한 불신

STX가 하이닉스반도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 실사 결과 하이닉스 인수 리스크가 크다는 내부 분석이 나왔고, 하이닉스 노조와 채권단의 분위기도 STX에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STX의 하이닉스에 대한 예비 실사 결과, 인수시 감당해야 할 재무적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TX가 그룹 경영진에 올린 예비실사 보고서에는 반도체 시황 변동성이 예상보다 커 향후 2, 3년간 사업계획상 예측치 보다 실제 손익 폭이 최대 1조~2조원 가량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D램 가격은 9월 전반기 0.52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원가 이하로 팔리고 있다. 낸드플래시는 지난달 후반기 3개월 만에 5.6% 반등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9월 전반기에 다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 볼 때 STX가 하이닉스 본입찰 이전에 인수전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조심스레 나온다.

반도체 시장 상황과 보고서 결과와는 별개로 하이닉스 노조와 채권단 등 인수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주체도 STX에 호의적이지 않다.

하이닉스반도체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몇 푼의 매각대금에 눈이 멀어 기간산업을 외국자본에 팔아먹거나 경영능력도 없는 기업에 매각하는 짓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채권단에 전달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특정 업체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STX를 겨냥하고 작성했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다.

STX는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투자회사인 아바르를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STX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경우 핵심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채권단이 최근 발표한 신·구주를 합쳐 20%로 맞춘 지분 매각 방침도 SK텔레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려면 현행 지주회사법상 2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STX가 본입찰을 포기 하고 SK텔레콤 단독 입찰만 이뤄질 경우 2주 정도 입찰기한을 연장한 뒤, 그래도 경쟁 입찰자가 없으면 채권단은 단독 입찰자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영록 기자 syr@

또 철근대란 조짐

'85만원 對 80만원' 철강·건설업계 공급가 이견

현대 이어 동국도 공급중단 검토

철강업계가 철근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건설업계에 대한 철근 공급을 중단하면서 철근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철근 1톤당 85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업계는 1톤당 80만원 이상 줄수 없다며 정면 대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철근 시장 점유율 38%로 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 지난 17일부터 건설업체에 철근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수해 복구 사업 등에 필요한 관수(官需) 물량은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근 원재료인 철스크랩 가격이 8월 이후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며 "현재 가격으로 철근을 공급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며 공급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철근 시장 2위 업체인 동국제강도 이번 주부터 철근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업계 간 이견이 큰 만큼 곧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지난 7월 1톤당 철근 가격을 8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러나 건설업계가 여름철 비수기를 이유로 들어 철강업계에 인상액 반영 유보를 요청했다. 때문에 8월까지 1톤당 80만원대에서 철근 거래가 이뤄져왔다.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 가격은 일본산의 경우 지난 7일 기준으로 1톤당 3만6000엔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8월의 3만5500엔에 비해 1톤당 500엔 오른 값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철근 가격 인상에 대해 "7·8월 건설 비수기에 철근 가격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백현 기자 jjeom2@

오늘의 이투데이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 아프리카도 가맹점 깃발
7면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최태원 회장 1조 껑충
9면



산업은행 한대우 부행장 개발금융 개도국 전수
16면

▌7곳 영업정지…저축銀 사태 일단락 될까

부실PF 못털면 언제든 재발 가능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만 연장…부동산 경기 회복이 관건

대체 수익원 찾지 못하면 정상화 먼 길



금융당국이 지난 18일 제일, 토마토, 프라임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표한 가운데 19일 오전 토마토2저축은행 명동지점을 찾은 고객들이 관계자들에게 영업 정상화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저축은행 업계 2, 3위인 토마토·제일저축은행을 비롯해 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 등 총 7개 저축은행이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저축은행으로 지정돼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관련기사 3·15면

이날 내려진 영업정지 조치로 올들어 퇴출된 저축은행은 모두 16개로 연초 105개 달했던 저축은행 중 15% 정도가 문을 닫게 된 셈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업정지 조치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조치로 올해 초부터 추진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비켜난 저축은행들은 두 달간 진행된 강도높은 경영진단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5%를 넘긴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새로운 먹거리 확보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마무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장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를 피한다고 하더라도 부실 PF 처리가 문제다. 임시방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긴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경우 올해 말부터 만기가 도래하던 것을 2년 유예해줬지만 여전히 저축은행에 부담이다.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PF 채권액은 5조4952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업계 고위관계자는 "만기를 늘려주면서 충당금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부실채권을 사와야 한다"며 "시장에 뚜렷한 신호가 없는 한 (부실 PF의) 불확실성이 유효한 만큼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먹을거리 부재가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에 집중했던 것도 마땅한 먹을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소형 저축은행은 문제가 없지만 수도권의 자산규모가 3조~5조원까지 달하는 대형저축은행은 PF를 대체할 상품이 없으면 고사할 수 밖에 없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할부금융업 등을 허용해줬지만 PF를 대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늘리고 있는 소액신용대출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국가 전력정책 원점에서 다시 짜라

잘못된 수요예측·관리감독 부실
컨트롤타워 부재 위기관리 구멍
전문성 없는 경영진이 사태키워

사상초유의 전국 정전사태를 통해 정부의 전력운영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국가 전력정책을 원점서 다시 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이 단순한 장비나 설비 오류 또는 실무직원의 실수가 아닌 전력공급자인 한국전력의 잘못된 수요예측, 지식경제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 전력공급과 관리감독 시스템상의 구조적 부실과 무능에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련기사 2면

우선 이번 정전대란의 원인으로 현실에 맞는 '매뉴얼의 부재'문제가 드러났다. 현재 매뉴얼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쓰지 않고 남겨둔 예비전력을 항상 400만㎾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규정된 예비전력 수치 안에 허수가 있다. 10시간 뒤에나 발전이 가능한 발전소가 예비전력 안에 포함되는 등 비현실적 규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도 규정대로 라면 20분 안에 전력을 생산해야 할 발전소 3곳이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했지만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예비전력이 400만㎾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200만㎾에 정도인 것이다. 정확한 수요예측의 필요성도 대두됐다. 정전당시 전력 예비력은 148만9000㎾에 불과할 정도로 자칫하면 전국적인'블랙아웃(동시정전)'까지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설경진 기자 skj78@

▶2면에 계속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즈음한 우리의 다짐!

□ 저축은행은 정부의 금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거듭나겠습니다.

○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엄정한 경영진단을 거쳐 건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각고의 노력과 반성을 통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건전 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경영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고객 여러분의 재산 증식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사상초유 정전 그날 예비전력 24만kW에 불과 허위 보고까지

전력당국에 속은 대한민국 누굴 믿나

전력 바닥나 전국이 '블랙아웃' 직전까지
예열안된 발전기 고려안해 공급력 부풀려
최중경 "거래소 허위 보고" 네탓이오 전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전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초유의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거래소가 전력공급능력을 과다계상, 실제 예비력이 24만kW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칫하면 예비전력이 바닥나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total black out) 직전의 아찔한 순간까지 갔던 것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전사태 발생 당시 전력 예비율이 정확히 계상되지 못해 실제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전력거래소가 허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거래소가 당시 공급능력을 7071만kW로 판단했으나 실제 공급능력은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 순환정전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오후 3시 당시 실제 예비력이 24만kW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차가 발생한 것은 발전기가 처음 예열 상태를 거쳐 발전 상태로 가려면 5시간 동안 예열해야 하는데 예열하지 않은 상태의 발전용량 202만kW를 공급 능력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 복합발전소의 출력이 하절기 줄어드는 것도 감안되지 않았다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전력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예비전력이 100만-200만kW인 '경계' 단계에서는 직접부하 제어를 실시하고 전압을 5.0%까지로 낮출 수 있으며, 0-100만kW의 심각 단계에서는 순환정전 같은 긴급 부하조정이 시행될 수 있다.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100만kW를 넘은 상황에서 순환정전 조치를 시행, 매뉴얼을 무시한 과잉 대응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실제 예비전력이 24만kW였다면 오히려 대응이 늦은 셈이다.

만약 조금만 더 조치가 늦어졌다면 예비전력이 결국 바닥나 전국이 통제 불능의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대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일반 가정이나 공장, 병원 등을 막론하고 자체 비상발전 시스템이 없는 곳에는 모두 전력이 끊겨 전국이 마비된다"며 "이 같은 상태가 5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정유, 철강 등 기간산업의 공정에 차질을 빚고 병원, 금융업체, 국가기관 등의 시스템이 마비돼 순환정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피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닥쳤는데도 일반국민은 물론 주무 부처의 관계자들 조차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지경부는 "전력거래소가 정전 당일 사용하기 곤란한 전력 공급량을 사용 가능한 예비전력량에 포함시켜 허위보고해 관계기관 간 긴급 공조 차질을 초래했다"며 전력거래소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공급용량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고의로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하절기 비상대책 기간이 23일까지로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계획정비 일정이 전혀 바뀌지 않는 등 시스템 오류와 관계기관간 공조 부족에 따른 전력 수급 조절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날 "지경부는 8월31일자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본부 운영을 9월 2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공문을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에 보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발전소 정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문 수신처에 전력거래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본부는 한전내에서 운영중인 비상수급대책반의 구성조직으로 전력거래소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공문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국가 전력정책 다시 짜라

▶1면서 계속

당일 전력수요를 6400만kW 정도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700만kW를 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한국전력 등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력당국이 이날 예상치 못했던 9월 늦더위는 이미 전주의 기상예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다.

매년 여름·겨울마다 되풀이되는 전력난의 원인으로 에너지 과소비도 큰 문제다. 정부는 지난달 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지만 이는 여전히 원가에 못 미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 48%(주택용)~55%(산업용)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이제는 냉방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뿐만 아니라 난방기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도 전력사용량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부터는 겨울철인 매년 1월 연중 전력사용량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한국전력,전력거래소 등 전력기관 경영진을 전문성 갖춘 인물로 구성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전의 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거나 한나라당 출신이다. 최근 취임한 김중겸 한전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정부, 정전 피해보상 내일부터 접수

정부가 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와 관련해 피해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18일 지식경제부는 직접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상가 및 일반 소비자 등에 대해 개별 피해사실 조사를 통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재원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번 피해보상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으로 구성돼 정전피해 유형·업종·구체적 피해보상 기준 및 조사절차 등을 마련한다. 피해보상은 전국의 '피해신고센터'에서 20일 오전 9시부터 보상신청을 접수 받는다.

피해신고센터는 전국 189개 한전 지점,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각 지역본부,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구성됐다.

각 신고센터위치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종합안내는 국번없이 123번(한전고객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정부는 피해보상위원회가 정립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후 보상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양식장과 공장 등은 피해를 보상받지만,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韓 실질임금 0.3% 오를때 美 2.4% 英 2.2% 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월 평균 임금(명목기준)은 202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같은기간 미국은 2.4%, 영국과 독일은 각각 2.2%, 프랑스는 2.1% 늘어난 데 그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0.3%로 미국(2.4%), 영국(2.2%), 독일(2.2%)에 한참 못 미쳤다. 심지어 경제성장률과 물가가 정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0.5%)보다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실질임금 상승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3.4%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4.2%), 영국(5.5%)보다 낮았지만 독일(1.7%), 프랑스(1.1%), 일본(-1.7%)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홍성일 기자 hsi@

기자수첩

한은, 가계대출 '나몰라라'



최 재 혁
금융부
freshphase@

한국은행은 시중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통화량 팽창으로 가계대출이 급등한데 있어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책임이 있으면 이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하는 법. 하지만 한은의 최근 행보를 보면 가계부채 문제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준금리 운용 기준을 물가나 가계부채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을 첫 번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등 신흥국이 치솟는 물가와 싸우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한은에서는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지난해부터 다섯번이나 올리지 않았냐"고 반박한다. 그러나 인상 시기를 놓쳐 효과가 없으면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우선 가계부채 급등세가 멈추질 않는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줄었지만 이는 추석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란 지적이다.

시중통화량을 의미하는 광의통화(M2)도 지난 7월부터 1년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은행 대출 등 민간신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리 정상화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급등한 물가도 가계부채와 연관이 깊다.

실질임금·금리 등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다. 앉아서 돈만 잃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은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가계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물가안정은 한은의 존재 이유다.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서 들여다 봐도 가계부채 문제에서 한은의 제대로 된 역할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관련 이렇다할 보고서를 내지도 않았다. 지난 4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가 고작이다.

김 총재의 '조사역량 강화' 기조를 무색케한다.

금융안정 기능을 손에 쥔 한은은 매달 금통위 직후 발표하는 통화정책방향에 금융안정 문구를 어떻게 넣을지 고심하고 있다. 이보다는 가계부채 동향을 새롭게 포함해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김중수 총재가 "가계부채가 금리운용의 핵심변수다"라고 말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차원이다.

데뷔를 앞둔 신인 연예인
대박 매출을 꿈꾸는 쇼핑몰
신제품 출시를 앞둔 중소기업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정치인
이들에게는 '이슈'가 필요합니다
'이슈'를 잘 만드는 광고회사
발 없 는 말
이슈메이커
서울본사 T.070-4333-2153 | 경기지사 T.031-908-2934 / 이슈전략연구소 http://blog.naver.com/idead4

부실 미공개 6곳 '뇌관'… 추가 영업정지 땐 '뱅크런 쓰나미'

금융당국의 7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이후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영상태가 괜찮은 저축은행까지 확장될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다. 서울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일파만파 확산된 뱅크런으로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조치이후 지난 2월 한달사이 1조8339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환부 급하게 도려냈지만 부실 뿌리는 못 뽑아
뱅크런 방지 총력전… 일부 우량銀선 인출 행렬
"BIS등 건전성 지표 못믿겠다" 고객 불신 여전


〈예금인출 사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여의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토마토와 제일, 프라임 등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명단을 발표한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영업정지 이후 1주일이 고비=금융당국은 상반기 경험에 비춰봐 이번 1주일만 잘 넘길 경우 뱅크런으로 인한 추가 부실 저축은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후 예금인출 분위기는 1주일만 지나면 잠잠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따라서 최대한 이번 1주일만 잘 대처를 할 경우 안정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결과 발표 일정 등을 최대한 공개하지 않았으며 저축은행이 쉬는 주말을 이용해 불시에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또한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대대적인 인력 투입을 단행해 부실저축은행 장악과 19일부터 각 영업점에서 고객 설득작업에 나섰다.

현재 예보에서 경영관리를 위해 120명이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나가 있으며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 20명이 현장에 있는 상황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현황

구분	총수신	BIS비율	고객수
토마토	3조9776억원	-11.47%	21만8078명
제일	3조553억원	-8.81%	16만9007명
제일2	9853억원	-0.63%	5만944명
에이스	1조2796억원	-51.10%	7만1316명
프라임	1조1328억원	-4.14%	8만1724명
대영	5909억원	-9.13%	3만1244명
파랑새	4142억원	-5.50%	2만2085명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미공개 적기시정조치 6곳은 시한폭탄=한편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뱅크런 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상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정지 대상만을 공개해 부실 부위만 도려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부실의 뿌리까지는 뽑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가운데 7곳의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한 곳 이외에 6곳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자구계획안을 승인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6개 저축은행의 자체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해까지 뱅크런(예금인출 사태) 및 대외적인 영향이 없는 이상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6개 부실 저축은행의 미공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가 일어날 경우 뱅크런 쓰나미는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건전성 지표=또한 뱅크런이 우려되는 것은 금융당국이 조사해 발표하는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이다. 1년 사이 우량저축은행에서 갑자기 영업정지 대상 부실저축은행으로 떨어지는 기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2위 토마토저축은행은 6월말 자산 3조8835억원, 성남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일산 분단 수원 평택 송도 평촌 등 6개 지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이다. 건전성은 지난 2010년 6월 BIS비율 9.45%에서 올 6월말 -11.47%로 급격히 떨어졌다.

업계 3위인 제일저축은행은 6월말 자산 3조3137억원으로 서울 송파구에 본점을 두고 서울 장충동 여의도 논현동과 경기도 평촌 분단 등 5개 지점을 두고 있다. 제일 저축은행 역시 작년 6월말 BIS비율이 8.22%에서 올 6월말 -8.81%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경기도 에이스 저축은행의 경우 작년 6월말 BIS비율이 8.51%에서 올 6월말 -51.10% 급격히 떨어졌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기존 경영진에게 45일동안 자체 경영정상화 기회를 주고 만약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비해 경영정상화 기간 중 매각절차 또는 예보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등을 병행 추진해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고재인 기자 kji@

▌영업정지 첫날 표정

닫힌 은행문 두드리며 "내돈 어떡해"
예금자 설명회선 "서민 죽이냐" 분통

오전 9시. 가락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제일저축은행 본점 정문은 개점시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전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은행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정문 앞에는 30명 가량의 예금자들이 몰려 있다. 예금자들은 갑작스런 영업정지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예금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향후 계획을 주고 받는 모습도 눈에 띈다.

예금자 김 모씨(43세, 여)는 "예금이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지급금이 2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다"라며 "예금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효원빌딩 5층에 마련된 예금자 설명회장에서는 은행 직원이 나와 예금자 100여명을 상대로 가지급금 수령 방법과 지급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일저축은행의 가지급금은 오는 21일부터 번호표를 배부해 22일부터 지급된다.

설명회장은 성난 예금자들의 항의로 다소 소란스런 분위기다. 예금자 최 모씨(63세, 남)씨는 "평소 때는 은행 통장만 가져오면 돈을 내주다가 지금은 본인 명의가 아니면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한다"라며 "예금자들의 편의는 전혀 고려치 않고 오히려 우롱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같은 시간 프라임저축은행의 상황도 비슷하다.

프라임저축은행 소공동지점 문도 안내문만 붙여진 채 굳게 닫혀 있었다. 지점을 방문한 예금자들은 신문, 수첩 등 저마다 필기도구를 꺼내 안내문의 내용을 적기에 바쁜 모습이다. 건물 5층에서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예금자 이 모씨(40세, 여)는 "지난주 토요일에 아파트를 계약해 중도금 때문에 오늘 은행에서 돈을 뺄 계획이었다"며 "설명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게 아닌걸 알지만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힐 것 같지 않아 일단 나와봤다"고 말했다.

그는 "0.1퍼센트라도 더 받으려고 저축은행에 가입한 서민들인데 한꺼번에 영업정지 시키는 것은 서민들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득관·서지희 기자 dk@

▌예금자 보호 어떻게

22일부터 2000만원까지 가지급

예금담보대출 포함하면 최대 4500만원

7개(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졸지에 예금이 묶여버린 64만명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당국은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가지급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해당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000만원이 초과했다면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만으로도 급전이 부족한 예금자들은 예금담보대출로 최대 2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우리·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통상 6개월로 필요시마다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들은 해결 방식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진다. 부채이전(P&A) 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원리금 5000만원 이하 예금에 가입한 예금자들은 인수 은행을 통해 가입 당시 이자율대로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 저축은행이 인수가 아닌 파산할 경우에는 모든 예금이 청산되고 예금보험기금이 지급된다. 원리금 합계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과 함께 저축은행의 약정이율이 아닌 시중은행 평균 이자율로 한 이자가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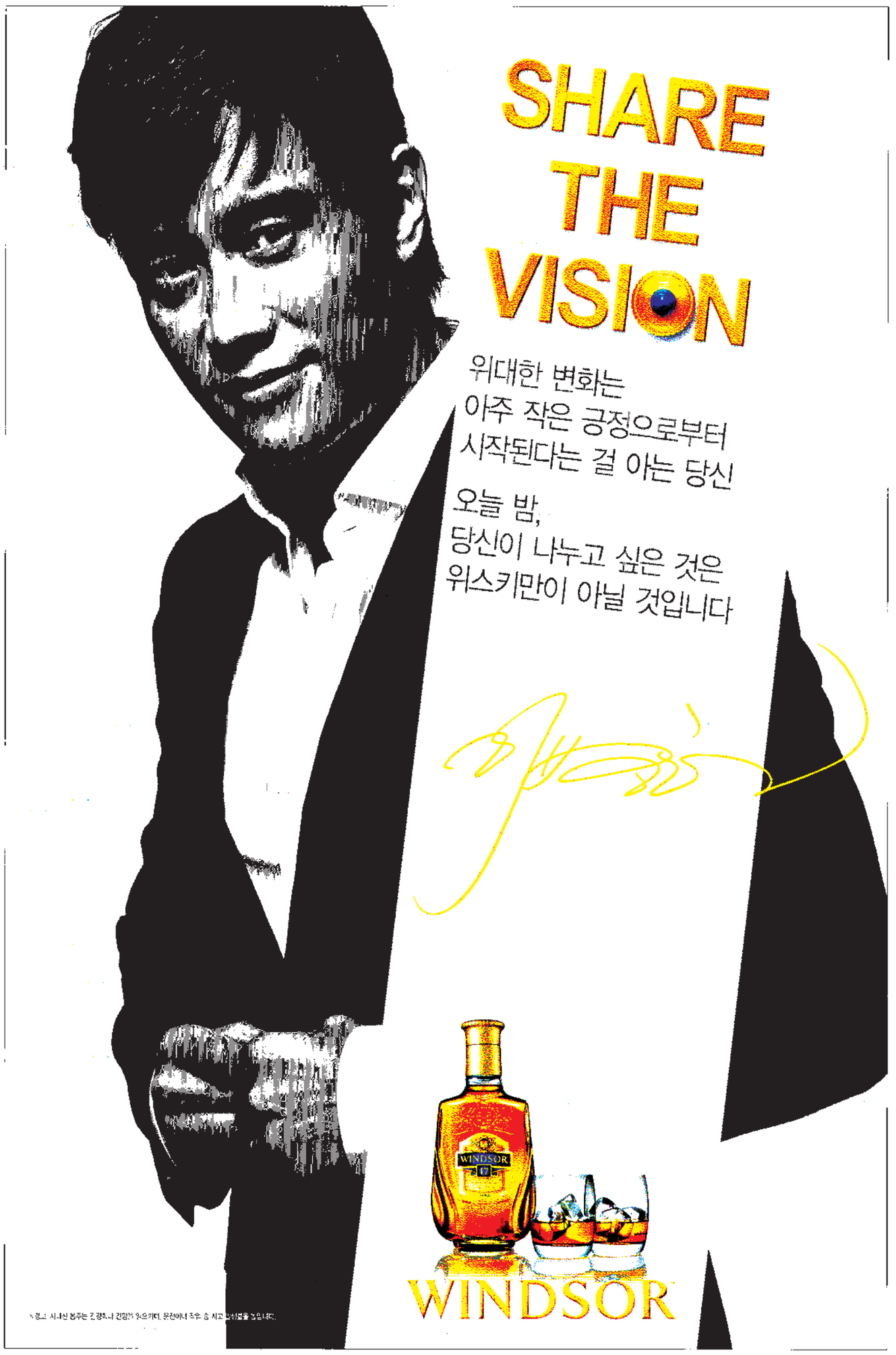
서지희 기자 jhsseo@

가지급금 지급받으려면 ※ 9월 22일 이후, 2000만원 이내

가지급금 신청 홈페이지 (http://dinf.kdic.or.kr)	방문	해당 저축은행
공인인증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	구비 서류	신분증·예금통장 본인명의 1금융권 계좌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계좌 즉시 입금		

예금담보대출 받으려면 ※ 9월 22일 이후, 4500만원 이내

절차	내용	구비 서류
저축은행방문	취급기관 조건 안내,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신분증, 예금통장
대출기관방문	대출약정서, 예금청구서 제출	신분증, 예금통장, 예금잔액증명서
대출금 입금	대출금리는 예금금리 기준 적용	



국감… 상임위 여야간사에 듣는다 〈3〉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무상복지 나라 망치는 지름길"

민주당 이용섭 "부자감세 철회 서민복지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과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철회 범위, 고물가 및 고유가 대책 등이 이슈다. 특히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물려 복지 확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주장이 팽팽하다. 기재위 특성상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도 지식경제위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한나라당 간사인 강길부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을 각각 만나 쟁점을 들어봤다.


강길부 의원


이용섭 의원

◇강길부=(강), 이용섭=(이)

姜 "감세중단 범위 매듭… 高물가 등 점검"

李 "전세대란·대학생등록금 등 집중 검증"

- 이번 국감의 초점은.

▲(강) 소득세·법인세 감세 중단 범위를 매듭짓겠다. 다만 감세 중단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계속 감세할건지 여부가 관건이다. 물가문제와 재정건전성 문제도 초점이다.

▲(이) 물가대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높다. 전·월세 등 집값, 대학생 등록금,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높은 기름값 등 4가지를 집중 검증하겠다.

- 유류세 인하 논쟁이 뜨겁다.

▲(강) 내리면 좋은데 세수가 줄어드니 문제다. 유류세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는데 손대기 시작하면 결손이 너무 많아 쉽게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유류세 인하는 당연히 해야 한다.

-복지확대로 국가재정건정성 악화우려가 크다.

▲(강) 복지만 강화하면 SOC(사회기반시설)를 아무것도 못한다. 현장에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무상복지를 계속하다보면 사람들은 정부한테 기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려한다. 그러다 망한다.

▲(이)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그 재원을 서민생활에 필요하데 써야한다고 본다. 부자감세를 하니까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 물가대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뭔가.

▲(강) 물가는 유통구조가 잘못돼서 이 모양이 됐다. 농협같은 기관에서 수급조절을 잘했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겠나. 국가도 입에 발린소리만 했지 제대로 역할을 한 게 없다. 이 부분 호되게 따질 거다.

▲(이) 전·월세 상한제, 반값등록금, 유류세 인하 등이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방향은.

▲(강) 인천공항을 확장해야 하는데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거냐. 자꾸 외국에 매도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주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는거 아니냐.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 지분매각은 말이 안 된다. 매각의 이유가 선진기법 도입이데 인천공항이 6년 연속 서비스 세계 1위를 했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 세제혜택의 방향은.

▲(강) 참여정부 때 과표를 공시지가로 하던걸 현실지가로 올리지 않았나. 그러면 세금이 3배 이상 오른 것인데, 거기다 중과세까지 하면 누가 집을 사겠나.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죽었다. 집권할 생각만 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은 차이를 둬야 하며 불요불급한 지출 역시 줄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엉터리 경영평가가 해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강) 국정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시키겠다.

▲(이) 평가기준이 정부 말만 잘 따르면 잘 나오게 돼 있다. LH공사의 경우 통합 하지 말았어야 했다.

-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 중단 범위를 두고 말이 많다.

▲(강) 감세하는 게 맞는데 재정건전성 문제 있다고 하니까 알아도 모른척 중단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편에 맞게 배당자와 근로자에게 나눠 혜택을 준다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

▲(이) 중견법인의 법인세율 20%로 인하 유지도 철회하고 실효성 없는 비과세도 폐지해야 한다. 종부세 감면도 문제가 있다.

김의중 이성규 기자 zerg@


보건복지위 국감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9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경제정책 틀 국감서 말할 것"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가경제 구상과 세부정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등용문은 19일 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 전 대표는 지난 16일 "제가 생각한 경제 틀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국감에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짚을 예정이며, 고용·복지·조세·외환·재정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의 자문교수단이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유승민·이한구·이혜훈 의원 등이 박 전 대표와 긴밀히 논의하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표가 재정 건전성과 고용 등에 관심이 크다"면서 "국감인 만큼 추상적 차원이 아닌 세부적 정책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토론한 경제현안을 민생현장과 접목시킨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내 유력 주자인 박 전 대표는 앞서 '맞춤형 복지'를 선보이며,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복지'를 보수진영의 상징인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에 올렸다. 정책행보로 차별화를 택한 박 전 대표의 정책 구상이 국감이라는 또 다른 검증대를 맞았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

서울시장 보선 박원순·나경원 '박빙'

각 언론사 주말 민심 조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주말 민심은 야권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여권 후보인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근소하게 앞선'박빙'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7일 서울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변호사는 나 최고위원과의 양자대결에서 48.2% 대 46.8%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질렀다.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p)

같은 날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박 변호사(45.8%)가 나 최고위원(37.0%)과의 차이를 다소 벌렸다. (1001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가 16~17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박 변호사가 33.7%를 얻어 나 최고위원(31.8%)을 약간 앞섰다. (7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7%p)

한편 범여권 후보로 나 최고위원 대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내세울 경우엔 박 변호사와의 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KSOI 조사에서 박 변호사는 이 전 처장을 55.5% 대 24.6%로 두 배 넘게 앞섰으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 변호사 53.2%, 이 전 처장 18.7%로 마찬가지였다. 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박 변호사 39.4%, 이 전 처장 20.8%였다.

김미영 기자 bomnal@

"공기관 법인카드 부정사용 버젓"

박병석 의원 정무위 국감서 밝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총리실이 관리 감독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일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방위적인 부정 사용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확인한 부정사용 형태는 △룸싸롱,골프장 등 제한업종에서 사용 되거나 △ 학원, 종합병원 사용 확인 결과 거짓으로 위장가맹점 및 현금깡 의혹 △ 한 개 카드로 동일장소-시간대 명목 바꿔 여러 번 분할 결제한 사례 △특정한 업소에 과다지출 (평균 1주일 1회)하고 등록된 업종과 다른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용 등이다.

박 의원은 "클린카드(법인카드)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과 신뢰회복을 위해 2005년도 도입했지만 각종 편법과 각양각색의 부정사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기재부,감사원,국세청 등)과 면밀히 협조하여 감사시스템 개편과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기자 sklee@



오바마 승부수 '버핏稅' 통할까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최저한세율' 적용
공화당 "투자 위축…침체 악화될것" 반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부수가 먹힐까.

미국의 대통령과 중앙은행장이 더블딥(이중침체)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제시할 해결책에 전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부자들에게 '최저한세율(Minimum tax rate)'을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한다고 미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최저한세율은 부유층에 적용하는 세율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세율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부자증세를 촉구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버핏세'로 불릴 예정이다.

앞서 버핏은 자본소득 세율이 근로소득 세율보다 낮다면서 부유층에 적용되는 세율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CBS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전 8년간 일부 계층은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금감면 혜택도 많이 받았다"며 "이들은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반대로 버핏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시행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 감세가 철폐되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은 경제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계급투쟁은 정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제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NBC방송에서 "부유층 세금을 늘려 경제 침체가 악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버핏세를 비난했다.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놓을 대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오는 20~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바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국채를 매입하는 3차 양적완화(QE3)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부양책에 반대표를 던진 리처드 피셔(댈러스), 나야나라 코처라코타(미니애폴리스), 찰스 플로서(필라델피아) 등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과의 마찰도 예고되고 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페이스북, 디지털광고 시장 노린다

주류회사 디아지오 마케팅 계약 체결
P&G·월마트 등 이어 광고주 대열 합류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광고산업 침공이 본격화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기네스 맥주와 조니워커 위스키 등의 브랜드를 소유한 세계적인 주류회사 디아지오와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7억5000만명이 넘는 방대한 회원을 확보해 디지털 광고 부문에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

캐롤린 에버슨 페이스북 글로벌 마케팅 솔루션 부문 부사장은 "디아지오는 우리의 마케팅과 리서치 등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P&G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 월마트 등의 광고주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NS업계는 이들 국제적인 광고주들에게 어떻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면서 "디아지오와의 제휴가 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다음달 3일 뉴욕에서 코카콜라와 인터퍼블릭그룹 등 주요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의 관계자를 초청해 광고전략에 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디아지오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SNS 부문에서의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페이스북이 앞으로 추가할 기능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페이스북으로부터 회사 사이트를 SNS에 맞게 디자인하는 등의 컨설팅을 받게 된다.

초기 페이스북 광고 투자는 1000만달러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다.

디아지오는 지난해 전체 광고 예산에서 디지털 마케팅 비중을 종전 20% 미만에서 50%로 대폭 올렸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디아지오는 페이스북 광고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미국 판매가 20% 이상 늘었다.

특히 디아지오는 브라질 등 시장에서의 공략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케이시 파커 디아지오 글로벌 마케팅·혁신 부문 선임 부사장은 "페이스북과의 파트너십으로 우리는 단순한 팬의 확대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유럽 중앙銀, 20년만에 金 순매수

유럽 중앙은행들이 20여년 만에 금 순매수자로 돌아섰다.

환율 시장과 국채 시장이 요동치면서 금 시장에 변혁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고 가운데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매입하며 보유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유럽의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000온스(0.8t) 늘렸다.

세계금위원회(WGC)는 이로써 1985년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 순매수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금 값은 지난 6일 장중 온스당 1921.15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한명이라도 더…" 인도 시킴주에서 18일(현지시간) 발생한 지진 여파로 네팔 카트만두의 영국 대사관이 붕괴했다.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하는 등 4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카트만두/AFP연합뉴스

인도 규모 6.8 강진…최소 11명 숨져

북동부 시킴주 4명 사망…인근 네팔서도 5명 목숨잃어

인도 북동부 산악지방에서 18일(현지시간)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 최소 11명이 사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날 오후 6시10분께 인도 북동부 시킴주의 주도 강토크로부터 60㎞ 떨어진 곳의 지하 10㎞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20분 후 규모 6.1과 5.3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델리를 비롯한 여타 북부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현지 방송은 시킴주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번 강진으로 4명이 사망하고 최소 3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킴주의 작은 마을에서 보고가 이어지고 있어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는 이어 "강진 발생으로 많은 건물이 파괴됐고 도로가 차단돼 사람들의 발이 묶여 있다"고 말했다.

시킴주와 인접한 네팔에서 5명 사망했고 영국 대사관 건물의 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킴주와 가까운 비하르주에서는 진동을 느낀 사람들이 한꺼번에 건물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한 명이 깔려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 발생 후 시킴주와 다르질링 주변 지역은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킴주와 인접한 비하르주의 카티하르에서는 건물 두 채가 무너지고 발전소 한 곳의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킴주 관계자는 공군기 등이 피해지역에 동원돼 구조작업이 개시됐다고 말했다.

파완 차믈링 시킴주 총리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만모한 싱 총리는 차믈링 주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약속하고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조정은 기자 Hailey.jeoungeun@

日 "에너지절약 안하면 건물 못 지어"

2012년부터 건물 진단 시행

일본에서 정부의 에너지절약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1년부터 주택·빌딩 등 건물을 지을 때 정부의 에너지 절약 기준을 만족시켜야 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단열재 등을 활용해 냉·난방과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절약 기준을 지키면 건설비용이 10% 가까이 증가해 당국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신축 주택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연내 건물 용도 및 크기, 지역별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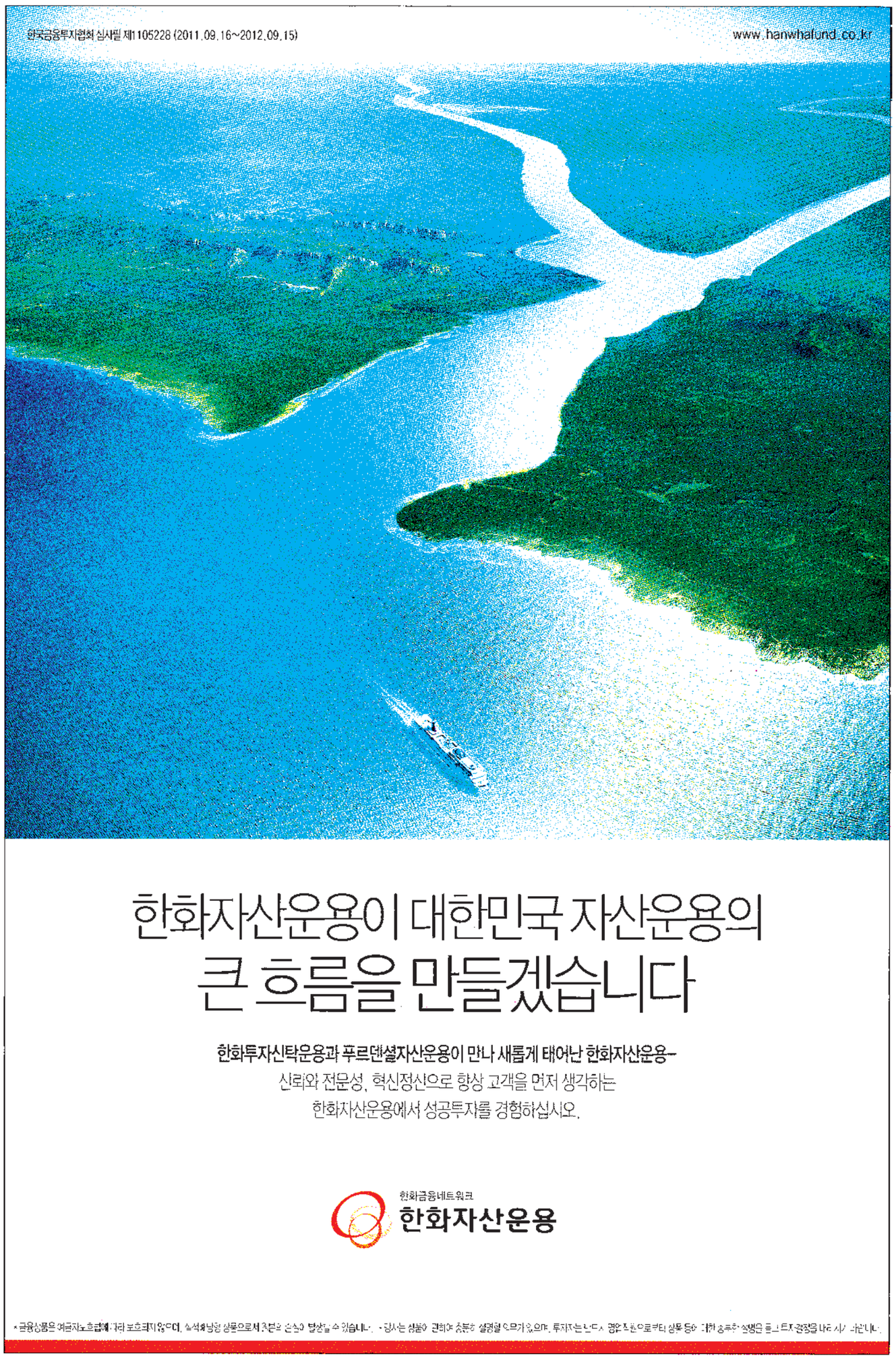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벽이나 천장에 단열재를 넣어야 하며,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발전량 만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건축물이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인정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한다.

에너지 절약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을 건축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자재 구입 등에 드는 비용 일부를 비과세 처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감세폭을 확대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피오리나 이을 차세대 여성 CEO는…

〈前 휴렛 팩커드 CEO〉



로지코어의 미란다 바울딘.

포춘 선정 '톱10'…'로지코어' 바울딘·'노바메디컬' 첸 등 꼽아

내달 열리는 여성경영인회의 참석 '선배' 누이·쿨먼 등과 만나

글로벌 재계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의 여성 리더 131명 가운데 올해를 빛낼 차세대 여성 기업인 '톱10'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이 이끌고 있는 기업 10곳의 매출은 지난해 100만~2500만달러(약 276억4000만원)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포춘은 이들 10명의 여성 기업인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리스트에 조만간 이름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포춘의 차세대 여성 최고경영자(CEO) 10명에는 기술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업체인 로지코어의 미란다 바울딘, 장애인 용품 제조업체인 노바메디컬 프로덕트의 수 첸, 디지털 출판사 겸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체인 오픈로드인테그레이티드미디어의 제인 프리드먼이 선정됐다.

그 밖에도 드레스 대여 전문업체인 렌트더런어웨이의 제니퍼 하이먼과 제니퍼 플라이스, 정보기술(IT) 등 종합서비스 업체인 할파커 & 어소시에이트의 던 할파커, 수많은 지점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히어세이의 클라라 시, 천연의 맛을 강조하는 드링크워터 업체인 힌트의 카라 골딘이 올랐다. 친환경 기저귀 제조업체인 지다이퍼의 킴벌리 그라함-니와 초콜릿 전문업체인 보주 초콜릿의 카트리나 마크오프, 패션 웹사이트인 트렌드욜의 데멧 무툴루 등도 리스트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은 내달 3~5일 미 캘리포니아주 라구나 니겔에서 포춘 주최로 열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회의에 초대될 예정이다.

이들은 회의에서 미 청량음료 제조업체 펩시코의 인드라 누이, 석유화학업체 듀폰의 엘렌 쿨먼 등 포춘 500대 기업 CEO들과 만남을 갖게 된다.

이밖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비롯해 미국 인터넷 진보매체로 급성장한 허핑턴포스트의 창립자인 아리아나 허핑턴, 슈퍼모델 타이라 뱅크스, 디자이너 토리 버치, 코미디언 젤시 핸들러 등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고 포춘은 전했다.

특히 버핏 회장은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 남성 기업인으로서 훌륭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주인처럼 생각하라(Think like an owner)"고 강조한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차세대 여성기업인 '톱10'

순위	기업	CEO
1	로지코어	미란다 바울딘
2	노바메디컬프로덕트	수 첸
3	오픈로드 인테그레이티드미디어	제인 프리드먼
4	렌트더런어웨이	제니퍼 하이먼 제니퍼 플라이스
5	할파커 & 어소시에이트	던 할파커
6	히어세이	클라라 시
7	힌트	카라 골딘
8	지다이퍼	킴벌리 그라함-니
9	보주초콜릿	카트리나 마크오프
10	트렌드욜	데멧 무툴루



노바메디컬프로덕트의 수 첸.

AOL 팀 암스트롱 CEO

리더십 회의론



완벽한 카리스마를 자랑해온 팀 암스트롱(사진) 아메리칸 온라인(AOL)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암스트롱 CEO는 구글에서 수석 부사장을 지내다 2009년 AOL의 모회사인 타임워너의 제프 뷰케스 회장에 눈에 띄어 CEO로 전격 발탁됐다. 뷰케스 회장은 당시 "암스트롱은 구글을 인터넷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AOL의 최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AOL은 구글·야후·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밀려 매출과 방문자 수가 줄면서 고전, 타임워너는 AOL을 분사하려던 참이었다. 이런 가운데 구글의 성공 신화의 주역이 AOL로 건너오면서 기대를 거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AOL은 또다시 기로에 섰다. 암스트롱 CEO의 앞 길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는 AOL을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OL의 주가는 연초 대비 37% 빠졌고, 타임워너에서 분사된 이후 시가 총액은 10억달러나 줄었다.

올들어 주가 37% 하락

야후·MS 제휴 고육책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

"명예롭게 떠나라" 조언도

여기다 산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베보(Bebo)'와 인스턴트 메신저 'ICQ'까지 헐값에 넘겨야 했다.

암스트롱 CEO는 IT 전문 블로그 테크크런치와 뉴스 블로그인 허핑턴포스트 인수로 승부수를 띄웠다. '고전하는 IT 붐 1세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인터넷 광고 시장에서 구글에 맞서기 위해 야후·MS와 손잡는 등 적과의 동침도 불사했다. 하지만 연합군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주가는 5% 이상 빠지는 등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업계에서는 AOL과 암스트롱이 추락한 위상을 수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암스트롱은 회사의 실적 악화로 등을 돌린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의 마이클 우심 교수는 "중요한 것은 암스트롱과 이사들 간의 관계"라며 "이사회가 그를 지지하는 한, 암스트롱은 침체된 실적과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을 만회할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그가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CEO 전문 스카우트 업체인 와이어트앤제프의 마크 제프 CEO는 "최선은 암스트롱이 회사를 매각하고 명예롭게 떠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AIM이나 맵퀘스트 같은 산하 매체들을 쪼개 팔라는 것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너무 늙어버린 美 기업 이사회

세대교체 바람 불까

평균 연령 10년새 두 살 늘어

버크셔·뉴스코프 50대 영입

미국에서 기업 이사회의 고령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드헌팅업체 스펜서스튜어트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 이사의 평균 연령은 62세로 지난 2000년에 비해 2살 더 늘었다.

S&P500 기업 이사들 중 69세 이상의 비중은 지난 2002년의 9.8%에서 현재 15%선으로 뛰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특히 이사들의 나이가 많다. 버핏(81세)과 찰스 멍거(87세) 부회장 등 80세를 넘는 이사들이 전체 이사회 멤버 12명 중 절반을 차지해 평균 연령이 70세에 달했다.

버크셔 이사회에 팔순 노인들이 많은 것은 버핏이 기본적으로 정년퇴직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사회 이사뿐 아니라 경영진들에게도 일반적인 정년 퇴임시기인 65세를 넘어서도 일할 것을 독려했다. 버핏은 지난 2003년 70세의 존 홀랜드가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버크셔 자회사인 여성 의류업체 프룻오브더룸에 복귀하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프 이사진도 비교적 나이가 많다는 평가다. 머독과 토머스 퍼킨스가 80세며 케네스 카울리가 76세, 아서 시스킨드가 72세다.



워런 버핏



찰스 멍거



루퍼트 머독

뉴스코프는 이사진 교체로 분위기 쇄신을 꾀하고 있다. 퍼킨스 이사는 다음달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면서 "이사회에 80대가 2명 이상 있는 것은 적정한 지배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울리도 퍼킨스와 동반 사퇴할 예정이다.

머독은 실리콘밸리의 저명 벤처캐피털리스트인 제임스 브레이어를 새 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브레이어는 월마트와 페이스북 이사도 맡고 있으며 나이는 50세에 불과하다.

버핏도 슬슬 은퇴를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워런 버핏은 지난 12일 헤지펀드 매니저인 50세의 테드 웨슐러를 영입하면서 "나는 은퇴할 때까지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버핏 평전을 썼던 앤드류 킬패트릭은 "버핏이 '은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처음 봤다"면서 "그의 사전에 '은퇴'란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리더가 읽어야 할 성공학 고전 3선

가장 많은 독자들이 인정하는 고전번역가

김원중 교수가 원전에 충실하게 옮기고 해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기는 기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을 담은 촌철살인의 명언들"

세상의 모든 전쟁을 위한 고전

손자병법

손자 지음 | 김원중 옮김



"가장 많은 제왕들이 뒤에 숨겨놓고 몰래 읽었다… 현명하고 견고하게 조직을 장악하라"

제왕학의 영원한 성전

한비자

한비 지음 | 김원중 옮김



"당나라의 개국과 흥기를 이끈 당 태종이 신하들과 나눈 리더의 철학과 모든 노하우"

리더십의 영원한 고전

정관정요

오긍 지음 | 김원중 옮김

· 글항아리의 동양고전 시리즈는 읽히는 번역을 추구합니다 글항아리

끊임없는 도전… 넘치는 승부욕
"아프리카 대륙에도 깃발 꽂는다"

CEO+ 제너시스 BBQ 윤홍근 회장



사람들이 투우사에 열광하는 이유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없이 내미는 칼 끝에 있다. 승부를 미루지 않기에 위대하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외식업계에서 존경받는 이유도 그러하다. 위기 때 위기를 피하지 않는 그의 도전이 국내 치킨업계의 절대 강자를 넘어 세계를 넘나드는 기업의 초석이 됐다.

위기 때마다 두려움 없이 정면돌파
창사 15년 만에 무려 1000배 성장
올해 아프리카 첫 가맹점 오픈 목표
2020년 196개국 진출 '세계 1위' 꿈

윤 회장은 1995년 업계 최초로 '투자비 리콜제'를 실시했다.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타개해'프랜차이즈=BBQ'라는 공식까지 만들어졌다.

IMF 외환위기때는 본사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가맹점과 고통을 분담했다. 적극적인 윤 회장의 노력에 힘입어 BBQ는 4년 만에 1000호점을 돌파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의 신화가 됐다.

지난 2005년 트랜스지방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윤 회장은 'BBQ 올리브 치킨'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튀김유를 올리브유 중 최고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바꾸면서'맛'을 넘어서'건강'까지 강조한 것.

2007년에는 'BBQ 카페'라는 고급 카페형 콘셉트의 매장으로 치킨의 가치를 끌어올렸다. 지난해는 3850여개에 달하는 가맹점에 9580억원 매출을 달성해 창사 첫 해인 1995년 대비 무려 1000배가 넘는 성장기록을 세웠다.

윤 회장은 "그룹 창사 이후 성장속도는 20년이 걸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된 맥도날드에 비해 10년 만에 그만큼의 성과를 일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초에는 윤 회장이 프리 토핑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전 품목 평균 1000원 인하까지 선언해 가격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 롯데마트의 5000원짜리 '통큰치킨'으로 인해 기존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원가 공개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BBQ는 정면승부를 택한 것.

윤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이 가격을 내리는 데 반대했다. 이에 불구하고 밀어붙인 윤 회장의 뚝심은 30% 이상 매출 상승으로 돌아왔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판매물량을 50% 이상 늘리는 박리다매형 매출 구조를 정착시켜 치킨업계의 경쟁력을 높였다.

'고품질 고가격 정책'이 아닌 '고품질 저가격'이라는 윤 회장의 철학이 반영됐다. 윤 회장은 "고령화와 저성장 사회에서는'고품질 고가격'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시장을 평정한 윤 회장은 국외로 눈을 돌렸다. 국내 프랜차이즈업체로는 최초로 2003년 3월 중국에 진출했고 3월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터키 등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 6대주 56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

제너시스BBQ그룹은 2003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등 56개국에서 35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브랜드 로열티를 비롯 소스,조리도구 등을 수출해 지난해 해외에서 87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윤 회장은 "중국, 동남아, 미국은 물론 중남미까지 진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전 세계 196개국, 5만여개 가맹점을 개설해 세계 1위 프랜차이즈 기업이 되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윤 회장은 아프리카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아이러브아프리카'의 초대 총재를 맡는 등 아프리카 진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3년간 윤 회장의 아프리카 현지 출장만 다섯 번에 달한다.

윤 회장이 아프리카에 눈을 돌린 것은 2008년부터다. 아시아 유럽 미주 중동 등 세계 각국에 BBQ 깃발을 꽂은 뒤 남은 대륙인 아프리카 진출을 결심했다.

그해 6월 모로코, 8월엔 나이지리아,가나,튀니지의 현지 파트너와 잇따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란 현지 기업에 상표 사용 독점권을 부여해 가맹점 모집을 맡기고,본사는 사업 노하우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 형태다.

올해는 아프리카 가맹 1호점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물류 인프라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회장은 "아프리카의 경제 수준은 낮지만 인구가 10억명을 넘어 미래 사업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kkk@



윤홍근 회장의 '공생 프로젝트'

가맹점 매출 30% 끌어올리기 총력전

본사 임직원이 직접 점포 현황 점검
품질·서비스·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고객 사랑 100일 캠페인을 통해 성공 가맹점주 만들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BBQ 치킨대학에서 열린 16주년 창립기념 행사에서 100일안에 혁신 대상 점포의 매출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인'G-volution'은 전국 가맹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운동이다. 임직원 스스로가 직접 담당매장의 매출과 손익을 관리해주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는 등의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新'공생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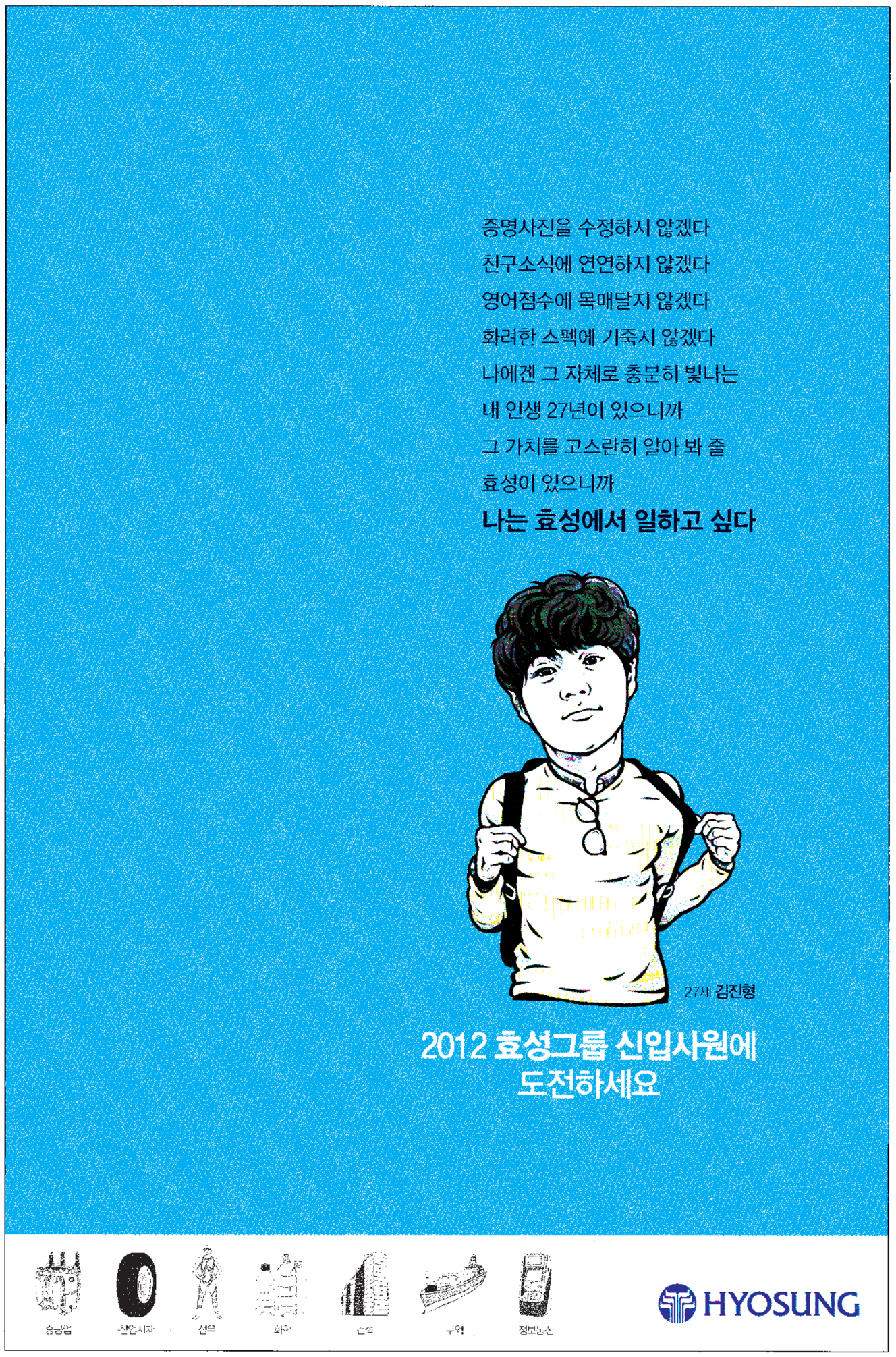
본사 직원들은 앞으로 100일간 전국의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집중 방문, 점포 현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메뉴얼을 재정립하고 가맹점에 슈퍼바이저 방문 횟수를 기존 1주일에 한번에서 주 3회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서비스 마인드를 혁신하고 품질, 청결, 서비스로 대표되는 QCS를 강화한다는 것이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이날 창립기념행사에서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경영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자"며 "이번 'G-volution'으로 우리의 현장관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보자"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시범점포 100여군데가 참여한다. 100일간 시범활동을 통해 차후 BBQ 뿐만 아니라 제너시스BBQ 전 브랜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윤 회장은 'We Are Family'활동을 전개했다. 임직원들이 직접 매장에 나가 전단고지 활동을 하고, 매장 청소를 도와주는 등의 일이다. 하지만 타깃을 정하지 않고 임직원 자신의 거주지에 위치한 가맹점을 선정해 프로젝트의 가시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치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찬호 제너시스BBQ 이사는"이번 프로젝트는 윤 회장님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신 것"이라며 "앞으로 BBQ의 발전에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kkk@



"이제는 글로벌이다. 슈퍼아이돌에 도전하라!!"

ENTERTAIN YOU ETN

1등 상금 10억 오디션

GSI GLOBAL SUPER IDOL

2011 GLOBAL SUPER IDOL

오디션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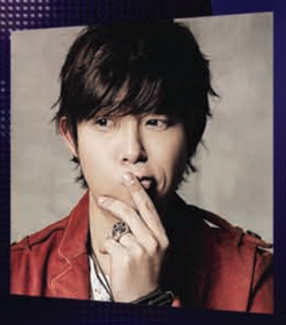

심사위원 김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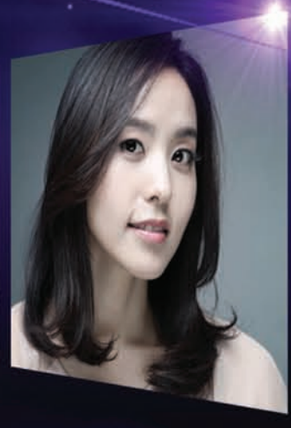

심사위원 김완선


홍보대사 비스트



루키프로젝트 티아라


MC 토니안


MC 박지윤

프로듀서 하광훈, 최준영, 유타, PJ

보컬트레이너 차지연

www.superidol.co.kr

ARS 1666-1101 지금 바로 도전하라!

주최 GSI GSI HOLDINGS 주관 yedang entertainment company TROPHY ENTERTAINMENT CORE 주관방송사 ETN Daum QBS 협찬 (주)쌍방울트라이그룹 KYOBO 교보문고 HOTTRACKS MAILIN PREMIUM ANTI-AGING CENTER GROUPON KOREA Mucha KIM JEONG JU 제작사 BOF

현대차, 전기차 포기 이유는

결국 경제성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수소연료 개발 집중
연말 'TAM' 출시 기아차와 역할 분담나서


기아차가 올 연말 선보일 경형 CUV(프로젝트명 TAM)의 예상 렌더링.


양웅철 부회장

현대·기아차가 각각의 브랜드 특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현대차는 전기차 양산 대신 하이브리드카와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기아차는 올 연말 선보일 경형 CUV(프로젝트명 TAM)에 전기차 버전을 추가해 일반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같은 특성화 방안을 앞세워 향후 양산차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양웅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총괄 부회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가해 "기아차의 첫 전기차인 TAM(프로젝트명)을 연말 출시해 고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부회장은 "TAM은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첫 전기차"라고 말하고 "연 2000대 판매가 목표이며, 수출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양 부회장은 "전기차의 경우 닛산(리프)이 가장 앞서 있지만 배터리 기술이 한계에 이르렀고, 인프라 구축 등 산재한 과제가 많다"며 전기차가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해 유럽전략형 소형차 i20을 바탕으로 순수 전기차 '블루온'을 개발해 선보였다. 블루온은 일부 정부 부처에 전달돼 시범적으로 운영됐지만 기아차가 선보일 TAM은 일반 가솔린 모델과 함께 전기차 버전을 추가해 일반판매될 계획이다.

기아차가 TAM의 전기차 버전을 양산하는 반면 현대차는 현행 하이브리드가 더욱 진보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정용으로 충전가능)와 수소를 연료로 한 연료전지차 개발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양 부회장은 "수소연료전지차는 독일 벤츠가 앞서 있지만 현대차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현대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기아차는 전기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투싼과 투싼ix를 바탕으로 연료전지차(F-CEL) 개발에 적극 나서오기도 했다. 이같은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전략은 향후 두 브랜드 간의 차별화를 더욱 공고히하고 각각의 브랜드 특성을 차별화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향후 현대차는 '니어 럭셔리'를 바탕으로 한 고급차와 하이브리드 전략을 앞세우고 기아차는 젊은층을 겨냥한 '스포티'와 실험정신 등을 앞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은 최근 앞다퉈 계열사 간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도요타의 경우 일본 내수시장에 도요타와 겹치는 렉서스를 출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친환경차의 경우 이같은 차별화가 더욱 뚜렷하다. 독일 BMW는 전기차 전용 i브랜드를 출범시켰고 닛산의 전기차는 고급차 브랜드 인피니티 대신 닛산 브랜드에만 출시했다.

국내 완성차업계 연구개발 관계자는 "순수전기차의 경우 기술력의 한계 탓에 경차 및 소형차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고 이 크기를 넘어서면 항속거리와 최고속도 등이 불리해 양산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현대차 라인업에는 현재 전기차를 양산할 만한 소형 '테스트 베드(양산을 앞둔 시험차)'가 없는 상황이어서 전기차는 오히려 기아차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뉴스브리핑

삼성 '바다 개발자데이' 글로벌 투어

삼성전자가 바다 2.0 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자 데이 글로벌 투어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인도 뱅갈로에서 현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바다 개발자데이(bada Developer 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발표한 삼성의 독자 플랫폼 바다 2.0을 개발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앱 개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자리다.

약 25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바다 2.0의 전략과 기능, 오프라인과 바다 개발자 사이트(developer.bada.com)에서 제공되는 기술과 콘텐츠 지원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삼성전자는 인도를 시작으로 중국(베이징 22일, 성도 24일), 러시아(10월), 영국(11월) 등 전 세계 18개국에서 바다 개발자 데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車 신형 프라이드 사전계약

기아차는 19일부터 신형 프라이드 사전계약을 접수한다.

오는 28일 출시 예정인 신형 프라이드는 6에어백, VSM(차세대 VDC), HAC(경사로 밀림방지장치), 온열 스티어링휠,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편의사양을 갖췄다.

4도어와 5도어 두 가지 타입으로 출시되는데 각각 1.4 가솔린 엔진과 1.6 GDi 엔진을 장착했다.

기아차는 사전계약 고객 중 50명을 추첨해 독도 여행비로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SK C&C, 본사 체험 채용 설명회

IT서비스 기업 SK C&C는 지난 16일 각 대학에서 추천받은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180여명을 경기도 분당 본사로 초청, 근무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채용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회사 사업과 비전은 물론 SK C&C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과 경험을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됐다.

현대重, LNG 운반선 2척 수주

현대중공업은 지난 16일 울산 본사에서 김외현 대표이사와 싱가포르 BW마리타임사 클래런스 루이 그룹재무총괄이 참석한 가운데 15만5000㎥급 LNG선 2척 건조 계약을 4억달러에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는 동형 선박 2척을 추가로 발주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돼 있어 향후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

이번에 수주한 LNG선은 길이 288m, 폭 44.2m, 높이 26m 규모의 멤브레인(Membrane) 타입이며, 연료로 디젤과 가스를 번갈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추진방식(DFDE)이 적용된다.


삼성전자 "합스부르크 유물 3D로 먼저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이 오는 2012년 12월부터 여는 '합스부르크 왕가 유물 특별전'에 '3D 기술 파트너'로 참여해 출품작을 입체(3D) TV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박물관 앞 광장에 마련한 홍보관인 '3D Sneak Preview'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회가 개막되기 전까지 주요 유물들을 3D 입체 영상으로 체험하고 있다.

한화 L&C, 첨단소재기업 도약 가속화

美 디트로이트에 車소재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설립

건축자재기업 한화L&C가 '첨단소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자동차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소재사업 부분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각오다.

19일 한화L&C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 미국의 디트로이트 지역에 해외 자동차소재 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립했다.

GBC는 앞으로 한화L&C의 자동차사업 글로벌 업무를 총괄하고, 신소재 개발을 위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R&D 강화 등에 집중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나노소재와 같은 첨단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화L&C 관계자는 "이번 GBC 설립은 건자재기업에서 첨단소재 기술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화L&C 자동차소재 사업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엔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적용되는 유리섬유강화복합소재(GMT) 기술이 지식경제부가 지정하는 '신기술'로 선정됐다. GMT는 현재 한화L&C 자동차소재 사업의 핵심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1위(70%)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완성차업계엔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에 납품하고 있다.

한화L&C는 이외에도 자동차 경량화에 쓰이는 경량강화복합소재(LWRT), 자동차 충격흡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발포 폴리프로필렌(EPP) 등 점차 자동차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순차적으로 중국, 미국, 캐나다, 체코에 5곳의 해외 자동차소재 생산법인을 세웠다. 북미,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에 생산법인을 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에서다.

한화L&C는 지난해 건자재사업 60%, 소재사업 40%의 매출 비중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건자재사업의 매출 확대보다는 소재사업 규모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매출목표도 3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한화L&C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3487억원, 영업이익은 429억원이었다.

한화L&C 관계자는 "향후 소재사업을 60%로 키우고, 반대로 건자재사업은 40%로 비중을 줄일 계획"이라며 "특히 자동차 소재는 전체 소재사업 가운데 약 65%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한화L&C에 있어선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건자재업계 역시 한화L&C의 이 같은 소재사업 강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악화로 건자재 시장이 침묵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사업 다각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삼성전기 中 톈진 빈하이 부품공장 준공

삼성전기가 중국에 칩부품 공장을 준공하고 2020년까지 약 7억달러를 투자한다.

삼성전기는 19일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신구(濱海新區)에서 빈하이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자사 주력 제품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등 칩부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빈하이 공장은 지난 1년간 약 1500억원이 투입, 연면적 5만9500㎡(1만8000평) 규모로 완공됐다. 1993년 설립된 삼성전기 톈진법인 인근에 위치한 신공장이다.

삼성전기는 오는 2020년까지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빈하이 공장을 세계 최고의 칩부품 전문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톈진시 중심에 위치한 기존 톈진 공장은 뛰어난 주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R&D 및 기술 거점으로 운영한다.

박종우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빈하이 공장 건설로 고부가 칩부품의 안정적인 현지 공급원을 확보하게 됐다"며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중국내 전자부품 시장 대응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박종우 삼성전기 사장, 박기석 삼성엔지니어링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을 비롯해 하립봉 톈진시 부서기, 하수산 TEDA(톈진경제기술개발구) 주임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송영록 기자 syr@

최태원 주식부자 3위 등극

1조이상 주식거부 이건희·정몽구 회장등 13명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주식부호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최 회장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주식가치가 1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재계전문사이트인 재벌닷컴에 따르면 1813개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평가(16일 종가 기준)한 결과, 1조원 이상의 주식거부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1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태원 회장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최 회장의 주식가치는 연초(1월 3일) 1조9587억원에서 지난 16일 종가기준 3조3069억원을 기록해 68.8%가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최 회장은 주식부호 순위도 8위에서 3위까지 올랐다.

이와 함께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도 같은 기간 1조1191억원에서 1조8516억원으로 65.5% 증가했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부자는 각각 연초 대비 5584억원, 5813억원이 증가한 7조2685억원, 2조7500억원의 주식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과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현대중공업 최대주주)는 주식가치가 무려 1조원 넘게 감소했다.

이 회장은 연초 9조2769억원에서 1조094억원이나 감소한 7조9675억원을 기록했으며, 정 전 대표도 1조591억원이 감소한 2조5123억원을 기록했다.

재벌닷컴은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이 많은 삼성전자 주가가 95만8000원에서 79만8000원으로 16.7%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함께 부인인 홍라희 씨가 1733억원 감소한 8643억원으로 '1조 클럽'에서 제외됐다.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본무·구본준 형제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불거진 IT산업 위기론의 직격탄을 맞았다.

구 회장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주력기업의 경영부진으로 보유지분이 많은 LG의 주가가 연초 대비 33.6% 급락하면서 지분가치가 1조6450원에서 1조924억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구본준 LG전자 부회장도 연초 1조1995억원에서 8148억원으로 '1조클럽'에서 제외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반해 이재현 CJ그룹회장은 연초대비 2134억원의 주식가치가 늘어나면서 1조1648억원을 기록, '1조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박철근 기자 ckpark@

1000억원 이상 주식부호 주식평가 (단위: 억원, %)

순위	성명	나이	직업	평가액	증감액	증감률
1	이건희	69	삼성전자 회장	79675	-13094	-14.1
2	정몽구	73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72685	5584	8.3
3	최태원	51	SK그룹 회장	33069	13482	68.8
4	정의선	41	현대자동차 부회장	27500	5813	26.8
5	정몽준	60	전 한나라당 대표	25123	-10591	-29.7
6	이명희	68	신세계그룹 회장	21025	909	4.5
7	신동빈	56	롯데그룹 회장	19353	-2444	-11.2
8	신동주	57	일본롯데 부사장	18632	-2591	-12.2
9	김택진	44	엔씨소프트 사장	18516	7325	65.5
10	서경배	48	아모레퍼시픽 사장	18423	1605	9.5
11	정용진	43	신세계그룹 부회장	12753	-9.3	-0.7
12	이재현	51	CJ그룹 회장	11684	2134	22.3
13	구본무	66	LG그룹 회장	10924	-5526	-33.6
14	허창수	63	GS그룹 회장	9363	-761	-7.5
15	조양래	74	한국타이어 회장	9311	1227	15.2

현대차 딜러, 美서 판매 실적 1위

평균 실적 56대… 도요타 제쳐

미국 승용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딜러들이 가장 뛰어난 판매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 딜러들의 지난 8월 승용차 평균 판매실적은 56대로 도요타(54대)와 닛산(46대) 딜러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자동차 전문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 등을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의 현대차 딜러 평균 판매량은 73대로 도요타(90대), 렉서스(79대), 닛산(78대)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기아차는 58대를 판매해 7위에 올랐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이후 미국 딜러 수가 800여개를 유지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0만1742대에서 53만8228대로 34% 급증했다.

이 기간 딜러당 연평균 판매 실적 역시 508대에서 673대로 32.5% 증가했다.

딜러 수가 거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판매 실적이 향상된 것은 현대차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함께 딜러 역량 제고 노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경쟁사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판매망을 축소한 반면 현대차는 우수 딜러를 상당수 영입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딜러 역량을 더 끌어올려 연간 미국 판매 목표 62만4000대를 달성하고 딜러당 연간 판매실적도 733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선 기자 stop1020@

삼성 노트북, 美컨슈머리포트 1위 선정

'QX411' 모델 성능·휴대성 최고

삼성전자의 14인치 노트북이 미국 소비자 잡지인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s)에서 1위에 선정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노트북 'QX411'은 14인치 모델 부문에서 컨슈머리포트 1위 제품으로 선정됐다. 삼성 노트북이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센스 시리즈9'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컨슈머리포트의 평가는 △성능(Performance) △휴대성(Portability) △인체공학성(Ergonomics) △제품확장성(Versatility) △디스플레이 △배터리 성능(Battery Life) △무게(Weight) 등 7개 항목으로 이뤄지며 'QX411'은 이 중 성능, 휴대성, 배터리 성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제품과 함께 공동 1위에 오른 제품은 HP '엔비 14'이었으며 뒤를 이어 레노버 '씽크패드 에지 E420', HP '파빌리온 dv4t', 델 '인스피런 14R'가 차례로 순위권에 올랐다.

한편 'QX411'은 인텔 2세대 듀얼 코어 프로세서, 하이브리드 그래픽, 6기가바이트(GB) 메모리, 750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탑재했으며 알루미늄 소재의 비행기 날개 단면 형태의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박세림 기자 serimpark@

“내 밥그릇에 손 대지마라” 글로벌기업 물고물린 소송전



글로벌 기업들 간에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점입가경이다.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실력을 키워가기 보다는 경쟁자를 아예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선두업체의 전략이다. 특히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우 거액의 배상금 지급, 제품 판매 금지 등 피해가 크다. 최근 코오롱이 특수섬유인 아라미드 원천기술 여부를 놓고 미국 듀폰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패해 약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게 단적인 예다. 스마트폰과 태블리PC를 둘러싼 IT·전자업계에서도 경쟁자를 궤멸시키려는 선두업체의 공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애플,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 건들지마=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스마트폰·태블릿PC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은 지난 4월 부터 삼성전자, HTC 등 후발주자에 대한 강도높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무려 8개국에서 20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는 태블릿PC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들의 추격 의지를 없애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애플

8개국서 20여건 소송진행중
삼성 태블릿 獨서 판매중지

이미 삼성전자는 한 차례 타격을 입었다.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마케팅 금지가 확정된 것.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15일 이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미 독일에서 판매·마케팅이 중단된 상태. 애플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이 이번에 애플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이번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 갤럭시탭 10.1의 독일 판매는 원천봉쇄 된다.

더 나아가 독일 법원이 갤럭시탭 7.7에 대한 마케팅 활동도 금지하면서 삼성전자는 IFA 2011 전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오랜 휴대폰 사업 경험을 토대로 한 통신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또 갤럭시 시리즈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스람

삼성·LG상대 특허소송 제기
보급형출시에 위기감 커진듯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는 1968년작 SF영화인 '201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태블릿PC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가 등장하는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뿐 아니라 애플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계속 시달려온 HTC도 구글로부터 9건의 특허를 매입, 애플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하며 반격을 가했다.

◇ 오스람, LED 조명 시장 건들지마= 그동안 특허와 관련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독일 조명업체 오스람이 올해 삼성과 LG를 상대로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오스람과 오스람의 자회사인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는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법원에 삼성과 LG를 상대로 LED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오스람은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백색 미 표면실장형 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삼성과 LG를 상대로 미국 지방법원과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도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는 수입 금지를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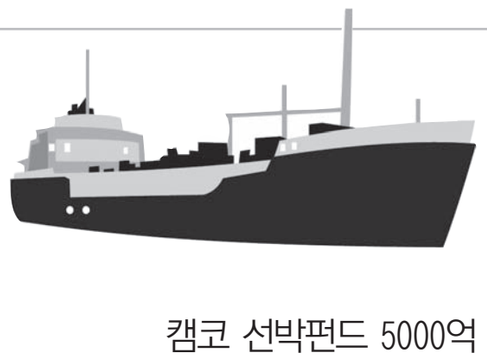
지난달에는 LG이노텍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무역위원회에 관련 제품의 수출 금지를 요청했다. 오스람은 삼성, LG 등 두 기업이 한국 특허심판원에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주장에 대해서도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오스람이 이처럼 특허소송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빠르게 성장 중인 삼성과 LG의 LED사업이 더 크기 전에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LED 업체들은 삼성LED와 LG이노텍을 중심으로 글로벌 LED TV 시장에서의 선전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의 LED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2위. 지난해 매출액도 2007년 대비 3배 늘었다. 여기에 최근 삼성LED와 LG전자가 출시한 단돈 1만대의 보급형 LED 조명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오스람의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중요성이 커지면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양상으로 진행된다”며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방어·협상 등 스마트한 전략이 기업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해운업계 “선박 20척 사달라” SOS
정부 몇척이나 매입할까
캠코 선박펀드 5000억 규모… 중소형선사 선박 구입할듯

해운업계의 SOS를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10곳이 36척의 선박을 매입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대형해운선사를 중심으로 일부 해운업체가 매입요청을 자체 철회하면서 최종 심사대상이 되는 선박은 20척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당초 36척의 선박매입요청이 들어왔지만 일부 해운사들이 자체적으로 매입요청을 철회하면서 정부가 매입결정을 심사할 대상이 20척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박매입 요청을 철회한 것은 해운업계가 다른 루트를 통해 유동성 확보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꼽았던 정부에 대한 매입요청 카드를 버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해운사들의 경우 정부지원으로만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고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선박매입 요청도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해운사의 경우는 선박매입심의위원회와 매입 선가 협상테이블에서 선박가치에 대한 입장차이로 철회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는 지난 2009년에 이어 시황이 악화되면서 유동성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형선사보다 중소형 선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매입요청이 이뤄진 선박들을 심사해 매입대상선박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캠코가 설정한 선박펀드규모는 약 5000억원. 하지만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자금이기 때문에 해운사 지원에도 신중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캠코 관계자는 “5000억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자금이 해운업계 회생을 위해 적절하게 쓰이려면 매입결정도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입요청이 들어온 20척 내외의 선박도 정부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캠코와 해운업계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OECD는 각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업계나 시장에 대해 특혜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운업계의 경우 현 시점의 선가가 아닌 이전의 비싼 시가를 적용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장을 지원하는 보조금이 돼 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선박매입을 통해 구조조정기금을 받은 해운사들이 오는 2014년까지 지원금 상환에 대한 7%의 배당금을 지불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해운시황이 좋았을 때 비싼 값으로 발주한 배들을 헐값에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캠코는 선박을 현재 시가 그대로 반영해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캠코는 앞으로 선박매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경제성 △선령(선박의 나이) △장기용선계약 체결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입선박을 선정한다. 선령은 15년 미만을 조건으로 한다. 오는 11월 말 매입선박 대상이 확정되고 12월 지원이 본격화된다.

한편 캠코는 이미 지난 2년간 두 차례 해운업계에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해운업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62척, 14척 등 총 76척의 선박매입을 신청했고 캠코는 이 중 27척을 매입, 총 4000억원에 이르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했다.

캠코 선박펀드는 지난 4월 5000억원의 기업구조조정 기금이 저축은행 PF채권 지원금으로 전환하면서 가동을 멈췄지만, 해운시황이 급격히 악화돼 위기감이 증폭되면서 재개됐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수입車 10만대 국내 도로 달리는데…

팔기만 하고 AS는 '나몰라라'



수입차 10만대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8월 수입차 신규등록은 총 9116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58대) 보다 4.1%, 전달에 비해서는 2.9%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의 누적 등록대수는 6만9639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3%나 증가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0만대 판매 달성이 무난한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차의 공식 서비스망은 최근 2년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다.

단순 정비에도 길게는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할 판
딜러사 서비스망 확대는 커녕 존립 자체까지 위태
고객들 "자동차 수리 맡기면 함흥차사" 불만 폭주



수입차 정비의 경우 같은 품목일지라도 각 딜러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딜러의 경우 몇 가지 부품을 추가해 최대 60% 이상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

◇서비스 확대는 커녕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딜러사= 수입차 시장은 그 어느 산업분야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1987년 한성자동차가 수입한 10대의 메르세데스-벤츠로 시작한 수입차는 2009년 7만1000여대를 넘어 지난해에는 40.6% 성장세를 기록하며 10만대에 육박했다. 개방 후 15년 동안 시장점유율 1%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상승세는 경이적이다.

특히 BMW코리아는 전체 자동차 시장이 우리보다 3배 가까이 큰 일본의 BMW재팬의 판매실적을 추월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국내 수입차 시장의 상승세가 얼마 나 가파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월 1만대 안팎의 판매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는 수입차 업계에선 최근 정비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산차보다 비싼 값을 주고 수입차를 구매한 고객들은 이에 걸맞는 질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차 오너들이 국산차 서비스에 대한 불만 탓에 수입차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수입차의 급격한 증가의 여파로 작은 부품 교환에 보름 넘게 기다리는 경우가 빈번하고 단순한 정비에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 딜러는 극에 달하는 고객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가 한산한 지방으로 차를 보내 차를 수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딜러를 중심으로 서비스센터가 소화할 수 있는 정비차량의 댓수를 늘리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인력 탓에 그조차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서비스의 질은 논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단순한 엔진 오일 교환에도 반드시 예약을 하고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고객들은 최근 부쩍 늘어난 예약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본지가 수입차협회회원사로 등록돼 있는 14개 브랜드의 서울지역 서비스센터 68곳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순한 엔진 오일 교환에 24일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예약제로 이뤄지는 수입차 정비는 정비 내용 및 이상 문제를 알려주면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직접 예약 일자를 정해 고객에게 통보한다.

특히 월 1000대 가까이 쏟아지는 수입차 서비스망이 최근 2년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늘어난 서비스 예약대기 기간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거나 팔려나가는 수입차 딜러사가 늘어나면서 정비 서비스망의 확장은 커녕 딜러사의 존립 자체까지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우디, 인피니티, BMW 순으로 대기기간 길어= 본지가 서울지역 딜러 서비스망을 기준으로 엔진오일을 교환하는데 걸리는 서비스 예약대기 시간을 조사한 결과 아우디 서초서비스센터의 대기기간이 24일로 가장 길었다.

비교적 단순한 정비에 해당되는 엔진오일 교환에 3주 이상의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셈이다.

대부분 일주일 안팎의 대기기간이 필요한 브랜드가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수입차도 있다.

가장 많은 차를 팔고 있는 BMW코리아의 경우 서비스망도 서울 곳곳에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BMW 공식딜러인 도이치모터스의 송파 서비스센터는 인기있던 528i를 기준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12일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공식딜러 SS모터스 강남 서비스센터는 M35 엔진오일 교환에 15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대기시간이 짧은 브랜드는 일본차 스바루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바루의 경우 월 평균 판매량이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판매 차량이 작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비스 대기기간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듯 단순한 엔진 오일 교환에도 2~3주의 대기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특정 부품이 필요한 사고수리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도 이어진다.

크라이슬러코리아가 판매한 지프 브랜드 고객의 경우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긴 이후 5주가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며 "결국 전화로 확인해보니 '부품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최근 사상 최대규모의 리콜에 휩싸이며 제2의 도요타 사태에 빠진 혼다코리아에 대한 우려도 이어진다. 혼다는 최근 운전석 화재 위험성이 불거지면서 자발적 리콜에 돌입했으나 서울지역 서비스 센터는 공식딜러 3곳이 운영하는 곳이 전부다. 운전자는 결국 화재위험을 감수하고 운전해야 하는 셈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최근 빠르게 늘어간 수입차 판매에 서비스 센터의 정비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2008년 이후 딜러사가 통합되거나 팔려나가는 등 경영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정비망을 늘릴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준형 기자 junior@

수입차 정비예약 대기현황표 (9월 16일 기준)

브랜드	서비스센터 (딜러)	모델명	엔진오일 교환가격	예약대기 기간
아우디	대치 아우디센터	A6 2.0	25만원	10일
	영등포		23만원	11일
BMW	송파 도이치		17만원	12일
	용산 한독		27만원	11일
벤츠	강남대로	E350	35만원	5일
	성산		40만원	7일
	성수		36만원	7일
	방배		35만원	6일
폭스바겐	압구정 클라쎄오토		19만원	10일
	양재 클라쎄오토		15만원	11일
	염창 마이스터모터스		24만원	12일
포드	용답 선인모터스	토러스	15만원	11일
	신사 퀵서비스		14.5만원	5일
캐딜락	성동 씨앤씨모터스	CTS	20만원	7일
	송파 M&M모터카		17만원	7일
크라이슬러	강남 아크로스타모터스		26만원	6일
	성동 렉스모터스		26만원	10일
렉서스	강남(대치) D&T모터스	ES350	18만원	11일
	서초 렉서스 프라임		13만원	12일
	용산 천우모터스		21만원	11일
	충무로 천우모터스		15만원	5일
혼다	두산 강남점 (성수센터)	어코드 3.5	9만7380원	7일
	일진 서초점 (안양센터)		오일만 5만원	7일
	KCC 용산점 (일산센터)		오일만 4만1000원	6일
인피니티	성수 SS모터스	M35	10만1640원	10일
	강남 SS모터스		10만1640원	11일
스바루	용산 지산모터스	레거시 3.6	지난해 오픈 비용 안듬.	12일
재규어 랜드로버	서초 천일오토모빌	S-TYPE	24만5000원	11일
	잠원 천일오토모빌		23만원	5일
볼보	성수 JK모터스	S60 D5	18~20만원	7일
	서초 H모터스		20만원	7일
푸조	성수 한불모터스	607 디젤	16만6000원	6일
	강남 한불모터스		17만원	5일
	삼선모터스		20만원	7일
	SH서울모터스		18만원	7일



에스원 헬스케어 사업 본 궤도에

지난 4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생지인 충북 음성군 음성종합운동장에서 '5회 반기문 전국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1만405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 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심폐소생술(CPR) 지원 강사와 의사가 자동심장제세동기(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를 이용해 충격 받은 심장을 정상화시켜 위급상황을 무사히 넘겼다.



에스원 본사에서 임직원으로 구성된 cpr 교육 봉사단인 안심누리 봉사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및 AED 사용법 관련 교육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파견된 CPR 전문가의 현장 응급지원 사례가 아닌 헬스케어사업에 뛰어든 보안경비업체 에스원의 현장 심폐소생술 성공 사례다.

에스원은 지난해 3월 AED 출시와 함께 새로운 먹거리로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한 이후 제2의 돌연사를 막는 선진사회 도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AED는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일 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수축이완을 정상화시키는 기기다. 지난 2008년 개정·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는 물론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청사, 공항,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경마장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됨과 함께 에스원을 통한 판매 수요 및 구입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에스원 AED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31.5%의 증가율을 보였다.

게다가 최근 AED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이뤄지던 AED 설치 및 판매가 개인을 비롯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 규모가 작은 공간으로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작년 출시 심장수축이완기기 AED
터미널 등 공공다중시설 판매 급증
고가부담 덜어주려 렌탈서비스까지

에스원이 자사 AED 구입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판매량 중 약 78%가 다중이용시설 또는 단위면적이 넓은 곳인 반면 올해 8월까지 누적판매량의 경우 단위면적이 좁은 곳에 판매된 AED 전체 판매량이 22%에서 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에스원은 고가의 AED(300만~400만원대)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업계 최초로 AED 렌탈서비스를 시작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개인 및 소규모사업장의 AED 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세콤 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AED 렌탈 판매를 시행하게 됐다"며 "판매 가격이 상당히 고가인 만큼 렌탈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에스원은 AED 판매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후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ED 보급이 확산되면서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침착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AED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

지난해 3월 대한심폐소생술협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심폐소생술 일반인과정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에스원은 같은해 5월 심폐소생술 교육봉사단인 '안심누리 봉사단'을 창단하고 9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적극 전개해오고 있다. 현재 사장 및 임원을 포함한 4800명 전 임직원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이수증을 받은 상태다.

안심누리 봉사단은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별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기자재를 갖춘 단체로 AED를 구매한 고객은 물론 회사와 학교, 장애인 기관 등의 단체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AED사용법, 급성기도폐쇄 처치법 등 체험 위주의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에스원 관계자는 "AED가 설치 돼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침착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AED사용법을 숙지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시켜 차원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에스원은 AED 사업을 시작으로 U-Health Care 서비스, 가축에 대한 Bio-Security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인터넷 도메인 활용 피싱 주의보

도메인 연장비 인상 거짓안내…결제 유도

인터넷 도메인 등록정보를 이용한 피싱 피해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메인 공식등록기관 후이즈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한 도메인 등록정보를 이용해 도메인 등록자에게 연락, 피해를 입히는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 취득과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전화나 e메일을 통해 도메인 등록자에게 도메인 연장비용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는 허위사실을 안내하고, 기존 비용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비용을 결제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정지훈 후이즈 도메인사업부장은 "등록정보가 고스란히 인터넷에 노출되는 도메인 정책 상 이러한 피싱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도메인 등록정보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메인과 관련한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자신이 이용 중인 도메인 업체에 문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업체명	분류	대상질환	제품명	현황
에프씨비투웰브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자가)	급성심근경색	하티셀그램-AMI	임상완료, 품목허가승인(2011.6)
메디포스트	제대혈유래간엽줄기세포(동종)	무릎연골손상	카티스템	임상완료, 품목허가 신청(2011.9)
		조혈모세포이식보조	프로모스템	임상완료(2008.3)
안트로젠	지방유래줄기세포(자가)	크론성 치루	큐피스템	임상완료, 품목허가 신청(2011.9)
		변실금	ANT-SM	임상완료(2009.4)
알앤엘생명과학	지방유래줄기세포(자가)	척추손상	알앤엘아스트로스템	임상완료(2009.4)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 눈앞
난치·희귀병 치료 숨통 트인다

난치·희귀병 치료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용화가 국내에서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의 꾸준한 줄기세포연구개발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제조·판매를 위한 품목 허가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 이는 지난 7월 에프씨비투웰브가 세계 최초로 성체 줄기세포 유래 급성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AMI'에 대해 상업허가를 받은 데에 뒤이은 성과다.

국내 줄기세포치료제는 지난해 관련 특허만 전년 대비 6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선두권을 점하고 있는 데다, 아직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도 없다.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이끌 기대주로 급부상하며 산업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까닭이다.

메디포스트·안트로젠 등 허가 신청
정부선 허가·심사 규정 완화 추진도
향후 바이오의약품 산업 탄력 기대

19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최근 제대혈에서 유래한 관절연골 재생용 치료제 '카티스템'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다. 이번 품목허가가 승인되면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동종(타가) 줄기세포 치료제도 탄생하게 된다.

장민후 메디포스트 팀장은 "다른 줄기세포 치료제와 달리 규격 제품화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치료 유효성도 일관적인 것이 차별화된 장점"이라며 "국내 인공관절 시장은 그 수요(연간 6만명)가 높아 인공관절 시술을 받기 직전 연령대인 50대 환자까지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연간 2000억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포스트는 지난해 말 동아제약과 카티스템에 대한 국내 판권 계약을 맺었다. 제품의 빠른 시판을 위해 이미 동아제약에서는 영업기반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광약품 관계사 안트로젠도 자가 지방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크론성 치루 치료제 '큐피스템'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크론성치루를 치료할 수 있는 표준치료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

이번에 품목 허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르면 내년 초 세계 최초로 크론성치루치료제가 국내에서 출시되는 셈이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큐피스템 투여 후 80%의 높은 치료효과가 나타났으며 6개월, 1년 후에도 재발이 없었다"며 "국내 2만명 정도의 환자가 앓고 있는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월에는 일본의 제약사인 니혼파마에 큐피스템 기술을 수출한 바 있으며 현재 미국의 제약사와도 기술이전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허가 조건 간소화 방안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상품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자가줄기세포 유래 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실시되면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식약청은 기대하고 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오래플

피톤치드 산림욕기-트리플러스
treeplus

산림욕? 이제 집안에서 즐기세요!

집안의 숲, 피톤치드 산림욕기 - 트리플러스

treeplus

LIG 손해보험

특허청

〈특허 제10-098191호〉

공기 정화 및 탈취!

피부 트러블 개선!

새집 증후군 해소!

롯데마트입점!
전국 롯데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 산림욕기 트리플러스는?

국립수목원의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잣의 본 고장인 **가평 잣나무에서 추출한 잣나무 정유**가 함유된 트리플러스는 피톤치드의 향이 집안 곳곳에 퍼져 냄새제거는 물론 공기정화 기능으로 365일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를 만들어 드립니다.



| 저탄소 배출, 친환경 웰빙 산림욕기 |

자연기화방식으로 유입된 공기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내부 공기의 흐름이 최적화되도록 설계하여 특허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기본 제품에 비해 매우 적은 전력사용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서 동일한 공간을 커버하는 친환경 산림욕기입니다.



| 청소가 필요 없는 카트리지 교환방식 |

카트리지 교환방식으로 별도의 청소가 필요없으며, 피톤치드 용액패키지에는 4개의 리필용 파우치팩과 1개의 카트리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달분 리필용 파우치가 소진되면, 사용중인 카트리지는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에 모던한 디자인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쓰세요~





♣ **피톤치드란?** 식물이 해충이나 미생물 및 각종 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산하는 천연의 항균물질인 테르펜계의 복합 유기화학물질을 말합니다.

》》 **트리플러스 특징** • 친환경 제품 • 청소가 필요없는 리필 카트리지 교체 방식 • 어댑터 및 USB 케이블 전원공급 지원 • 스파우트 파우치팩

》》 **피톤치드의 기능** • 공기정화 및 탈취 • 항균 및 살균 •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보완 • 피부트러블 개선 및 진정작용 • 집먼지, 진드기 억제

이런 분께 좋습니다 피부트러블로 고생하시는 분 | 치료 • 요양중이신 분 | 집중력이 필요한 수험생 | 새집증후군이 걱정 되시는 분







*트리플러스는 모든오피스 또는 Alpha 알파 대리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알파전시매장 : 본점(남대문점) 02-752-0096 | 강남본점 02-3472-6220 | 강남터미널점 02-3472-0096 | 포스코직영점 02-3453-0096 | 건대본점 02-3437-0096 | 오가약국 02-763-8855

• 출시기념 특별가 : 42,600원×3(카드3개월무이자) | 취급점 문의 : 02-3444-9238 | 무료주문전화 080-403-5500 |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주)오래플 | 대표 : 최병철 |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호

프랜차이즈 성공 비결 '명동'에 있었네

SPC, 던킨·파스쿠찌 등 진출 후 급성장
"브랜드 홍보·소비자 접근성 확대 거점"

"프랜차이즈를 할려면 명동으로 가라" 하루 유동인구 15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상권 명동을 잡아야 프랜차이즈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미 네이처 리퍼블릭은 이미 국내 최대 지가로 유명한 명동월드점에 진출해 성공을 거둬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식품전문기업 SPC는 명동의 최대 수혜주다. 현재 SPC는 명동에 파리바게뜨 4개, 던킨도너츠 3개, 배스킨라빈스 1개, 파스쿠찌 1개, 빚은 1개를 운영하고 있다. 명동 진출 후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해 SPC의 성공은 '명동'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던킨도너츠가 명동에 입성한 때는 1998년 12월. 이전까지 콤보매장(다른 브랜드와 함께 운영되는 매장) 형태였던 던킨도너츠는 명동에 처음으로 독립매장을 열었다.

명동점 오픈 이전 5년간 매장을 40개 정도밖에 확장하지 못했는데 이후 매년 70~80개 매장을 열었다. 2001년말 200개를 돌파했고 현재 850개까지 늘어 도너츠 프랜차이즈 1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커피전문점인 파스쿠찌도 명동 덕을 톡톡히 봤다. 파스쿠찌의 명동 1호점 매장은 현재 국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다.

파스쿠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명동1호점을 플래그 숍(Flag shop)으로 운영하면서 명동에서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의 맛과 향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2007년에는 명동2호점을 개점하며 지속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파스쿠찌는 명동1호점은 비싼만큼 부담되기도 하지만 브랜드 홍보에는 더 없이 좋은 위치로 평가받는다. 파스쿠찌는 명동의 랜드마크로서 자리잡았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출을 크게 끌어올렸고 2009년 9월 전국단위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

이밖에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은 2007년 6월 'CAFE31명동'매장을 오픈했고 SPC가 야심차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떡 프랜차이즈 빚은은 2009년 2월 명동예술극장 맞은편에 오픈한 상태다.

SPC 관계자는 "명동은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소비자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출점전략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플래그 숍(Flag shop)

본래 '본점'이란 뜻인데 유통업계에서는 다점포 사업을 전개하기 전에 미리 매장을 열어 홍보하거나 소비자의 반응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 점포를 뜻한다.

사무실 짬짬이 운동용품 불티

"연휴 군살 빼자" 줄넘기 등 매출 25% 껑충

추석 연휴 동안 찐 살 때문에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면서 온라인몰에서는 사무실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 틈새운동 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무실 운동용품들은 의자에 앉아서 짬짬이 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즈도 작아 보관이 용이하다. 특히 가격도 저렴해 추석 이후 또 다른 출혈을 막고 목돈을 아낄 수도 있어 인기다.

19일 옥션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간 스포츠용품 카테고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줄넘기, 근력기 등 2~3만원 대의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김용규 옥션 스포츠 카테고리 팀장은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동 용품은 시간, 공간적인 제약이 적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활용하기 제격"이라며 "옥션에서는 점심시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기구부터 디지털 기능을 결합한 컨버전스 제품들이 인기"라고 말했다.

옥션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제품은 '디지털 줄넘기'(1만원)로 제품에 채용된 LCD 창에 줄넘기 횟수, 운동시간,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해 줘 몸에 맞는 운동 스케줄을 짤 수 있다. 그 외에도 가로, 세로 1M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에어로빅, 점프를 통해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는 '이큐빅 에어보드(8만원 대), 'AB스윙프로'(2만 9900원) 등도 인기다.

업무 시간 중에도 책상에 앉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많이 팔렸다. 이들 제품은 손목, 팔 등의 근력 강화나 스



트레칭 기능을 채용한 것이 특징으로 손목강화 근력기(4,800원), 손목근력기(2만 5000원), 악력기(7만 8000원) 등이 인기다.

이선애 기자 lsa@

CJ도너스캠프 사회공헌 앱 출시

CJ그룹은 자사의 소외아동 교육지원 온라인 프로그램 'CJ도너스캠프'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모바일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 어플리케이션에는 댓글만 남겨도 공부방 아동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가는 'SNS 소셜기부'를 비롯, 관심지역·관심 교육 제안서를 설정할 수 있는 '맞춤 제안서', 회원가입·기부 내역 보기 등 기존의 CJ도너스캠프 온라인 사이트 내 기부자 서비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전어가 제철이예요 롯데마트는 여수, 삼천포, 사천 등 남해안 일대에서 어획한 자연산 전어를 판매하는 행사를 전국 전점에서 25일까지 진행한다. 가격은 5마리에 3000원. 18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여수, 삼천포 등 남해안 일대에서 어획한 자연산 전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통가 핫핫핫

유기농우유가격 논란 놓고 이번엔 시민단체끼리 설전

최근 논란이 됐던 유기농우유를 놓고 이번에는 시민단체들끼리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유기농우유가 일반 우유와 성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손해보지 말라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즉각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소시모의 이번 조사결과에 딴지를 건 겁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성명을 내고 "프리미엄제품과 유기농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단순비교하기 힘들다"며 소시모의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소비자들이 유기농우유를 선택하는 건 유기농우유가 기능성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생태계와 동물들의 권리를 생각해 '지속가능한 소비', '착한 소비'의 일환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우유업체들도 우유 뿐 아니라 다른 유기농제품들도 생산과 유통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배 이상의 가격은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먹거리 제품의 경우 소비자와 기업이 충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전한지, 성분은 제대로 표시했는지, 유통은 적절히 이뤄졌는지 정부가 감시 못하는 부분을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맡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에 업체와 정부는 뒷쪽으로 물러나고 소비자단체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시모는 유기농 사료를 썼는지, 권위있는 기관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는지 등의 부분을 내버려두고 애초부터 성분과 가격에 집중했기 때문에 유기농 제품을 만들고 이를 소비하는 사회적 의미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시모가 그럴리는 없었겠지만, 최근 원유값 인상에 따른 업체의 우윳값 인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결론적으로 맞장구를 치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지났습니다. 명절 이후 우윳값을 올리겠다던 업체들도 슬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기농우유가 일반 우유보다 더 나은 성분도 없이 가격만 비싸다는 여론의 뭇매를 이겨내고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참고로 프리미엄제품 논란의 대명사 신라면 블랙은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소시모 "성분차이 미미한데 가격은 2배 비싸"
녹색소비연 "단순비교 안돼…착한소비로 봐야"

패션·뷰티 최대 50% 할인 옥션 '패밀리 세일' 론칭

옥션이 패션·뷰티 브랜드 인기 상품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패밀리세일'코너를 론칭하고 이를 기념 입소문 최다 고객에게 '샤넬백(빈티지 2.55)'을 3년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옥션은 오는 26일부터 '옥션 패밀리세일' 코너를 정식 오픈하고 매주 2가지씩의 패션·뷰티 브랜드 히트상품을 15~50%까지 할인된 가격에 한정수량으로 옥션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패밀리세일 코너를 통한 판매 일정은 다음과 같다. 26일부터 28일까지 '토리버치 플랫슈즈'를 시중가 대비 29%할인된 24만 8000원에 32개 한정수량으로, 29일부터 10월3일까지는 '빅토리아시크릿'트레이닝 팬츠가 판매된다.

10월7일부터 9일까지 '벤시몽'슈즈가 남·녀·아동용으로 각각 시중가 대비 최고 29%할인된 4~7만원대에 1000족 한정수량으로 판매된다. 또한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SK-II 페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75ml)'가 17%할인된 4만9900원에, 20일부터 30일까지는 '키엘 울트라 훼이셜 수분크림(50ml)'가 49% 할인된 1만5900원에 200개 한정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선애 기자 lsa@



아이타올(주)


HARDY AMIES 실비아 세면타올


BALENCIAGA 캐슬 세면타올


HARDY AMIES 로드 세면타올


신제품
SERGIO VALENTE 메이플 세면타올


신제품
SERGIO VALENTE 클리오 세면타올


HARDY AMIES 솔로 세면타올

www.itawe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경영진단 끝난 저축銀 부실 살펴보니… 모럴해저드 심각

SPC 동원 불법영업 등 대주주 사금고 전락

〈특수목적법인〉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이 속속 발각됐다.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차명계좌와 SPC(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의 경우 불법영업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산저축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SPC를 운영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교묘하게 초과해 거액의 대출을 해준 케이스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나 불법 SPC를 만들어 대출을 은폐 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대출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출 한도 2~3배 초과 대출은 예사
차명계좌 이용 은폐… 경비 유용도
불법 드러난 20여곳 형사처벌 될 듯

특히,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경우 이같은 위반이 상당수 된 것으로 나타나 가차없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한 것도 이같은 원인이 작용한 사례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밖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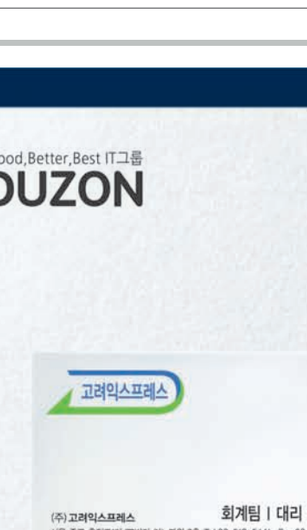
불법영업행위로 고발될 저축은행은 많게는 2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발 대상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재인 기자 kji@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BIS비율

단위: %,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압박 '약발' 먹혔나

시중銀 9월 대출잔액 8월 보다 4073억 줄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자제 압박에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급감은 실수요도 외면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5일 현재 276조6084억원으로 전월말보다 4073억원 줄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월 4740억원 줄은 뒤 지난달 말까지 매달 1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달 하순 금융당국이 은행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로 자제토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58조6855억원으로 전월말보다 4617억원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주택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이 이달들어 1900억원 급감하는 등 실수요 대출도 감소세를 보였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집단대출은 국민은행이 44억원, 하나은행이 80억원 줄었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93조9682억원으로 39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은행들이 가계 대신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위주로 대출 영업을 하면서 대기업대출은 큰 폭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8조9639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4억원(1.7%) 늘었다.

6월말 이후 이달 중순까지 대기업 대출 증가액은 4조2609억원에 달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은 209조317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58796억원(0.3%) 늘어나 증가율이 대기업 대출에 비해 5분의1에 불과했다.

자금이 남아도는 대기업에 돈이 몰리는 반면 서민 가계는 실수요 대출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신한카드, '스무살' 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20대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생활패턴에 맞게 알찬 혜택도 제공하는 '신한 S20 체크카드'와 같은 연령대 여성고객을 위한 '신한 S20 Pink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신한 S20 체크카드'는 20대의 지출비중이 높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비 이용 금액의 최고 10%를 월 최대 7000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 속지 마세요"

유사 명칭 대부업체 불법 마케팅 기승
카드사, 고객 피해 예방 대책마련 비상

최근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개인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사기수법인 보이스피싱이 많아지고 있어 카드사들의 고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한 카드사 이름을 사칭한 유사한 이름의 대부 회사들의 전화와 문자를 활용한 불법 대출 마케팅 행위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긴급 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또는 캐피탈 사칭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띄워 고객이 현혹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일부 대부업체가 2004년 삼성카드로 합병된 삼성캐피탈이란 이름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로 위장해, 대출안내 전화와 문자 등 불법 마케팅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대부업체는 홈페이지에 '삼.성.캐.피.탈''e삼성캐피탈''삼성-캐피탈' 등 삼성이 들어가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캐피탈 대출을 안내해드립니다'와 '삼성카드와 동일계열입니다' 등으로 전화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캐피탈은 홈페이지 공지에서 "휴대전화로 '신한금융' 또는 '신한캐피탈' 상호를 사칭하는 대부업자는 신한금융그룹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고객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고득관 기자 dk@

금융사 "IT 보안인력 어디 없소"

당국 기준강화에 구인난 심각

금융당국이 정보기술(IT) 보안 강화에 나서면서 금융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 들어 현대캐피탈 해킹, 농협 전산장애,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전산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업체들의 보안강화에 부심해 왔다.

특히 최근엔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인원 확충, 전담 관리자 선임 등 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인력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은 올 들어 추진돼 온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금융당국의 감독기능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무엇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금융회사는 IT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대표자(CEO)의 확인·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사실상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IT 전략을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IT계획의 보고 범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회사별 IT전략에 대한 노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경주 기자 ahnkj@

"産銀 개발금융 노하우 개도국 전수"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 한대우 산업은행 부행장



한대우 KDB산업은행 부행장은 몽골개발은행 위탁경영에 대해 한국의 개발금융 노하우를 몽골과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산업은행은 최근 아주 뜻깊은 일을 겪었다. 몽골의 국책은행인 몽골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Mongolia)과 위탁경영계약(Management Contract)을 체결, 몽골개발은행장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된 위탁경영팀을 4년간 파견하게 된 것이다.

6개월의 협상 끝에 성사된 이번 계약은 반세기 이상 축적한 산은의 개발금융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그리고 뒤에는 산은 한대우 부행장(자본시장본부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몽골개발은행과 4년간 위탁경영계약 체결
자금조달·운용·리스크 관리 등 경험 풍부
은행장 포함 5명 파견 전문 인력도 양성

한 부행장은 "한국의 개발금융 노하우를 몽골과 공유해 몽골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산은의 위탁경영 참여는 지난해 10월초 몽골정부 관계자들이 방한, 몽골개발은행의 위탁경영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는 "산은은 한국에서 중요산업의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경험을 갖고 있어 몽골개발은행에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특히 산은금융그룹 내에는 증권, 캐피탈, 자산운용 등의 자회사가 있어 전 금융업무를 망라한 노하우 전수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산은은 우선 몽골개발은행 이사회 및 몽골측 경영진과 협력해 초기에는 몽골개발은행의 경영관리체제를 셋업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규제정, 인사 및 조직관리, 여신심사, 리스크 관리 등에 대한 조직정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외근무경험 및 해외 자회사 경영 경험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로 위탁경영팀을 구성했다. 그는 "구성원별로 각각 자금조달, 자금운용, 리스크관리, IT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으로 구분해 각 영역별로 산은의 경험과 지식을 몽골개발은행에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부행장은 또 "어느 정도 몽골개발은행의 셋팅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며 "몽골의 경제규모 및 금융시장의 발전단계를 감안할 경우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산은은 위탁경영 외에도 높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몽골개발은행의 인력양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 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KOICA의 교육훈련지원,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등도 몽골개발은행을 위해 적극 주선할 예정이다.

사실 위탁경영계약 체결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난해 12월 위탁경영 입찰제안서를 제출했을 당시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와 경쟁이 붙었던 것. 한 부행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일본의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지일파가 상당규모 있어 유리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일본을 제치고 경쟁입찰에 성공한 것은 한국의 발전경험이었다. 그는 "몽골정부는 한국의 발전경험이 자신들과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했다"며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산은은 앞으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기업의 몽골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금융 노하우 전수를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까지 넓힌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안경주 기자 ahnkj@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23일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

금융 수장들 대거 워싱턴行

국내 주요 금융회사CEO들이 잇따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금융회사 수장들을 살펴보면 어윤대 KB금융지주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윤용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조준희 기업은행장, 신동규 은행연합회장 등이다.

경제위기 속 세계 금융 트렌드 파악
미국내 지점 방문 현지 직원 독려도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 임하는 금융회사CEO들의 행보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세계경제의 트랜드를 파악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자들도 자리를 함께하는 만큼 기업 홍보와 더불어 제휴를 맺을 수 있는 기회도 엿볼 수 있어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 김 회장이 가장 먼저 미국을 향했다. 김 회장은 지난 16일에 출국해 오는 25일에 귀국할 예정이다.

김 회장의 경우 외환은행장으로 내정된 윤 부회장과 동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부회장이 현재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회 참석이 어색하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도 입지 굳히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 이 회장은 19일에 한국을 떠나 총회 일정에 앞서 IBM에서 개최하는 100주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의 경우 미국 내 지점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사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 독려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회장에 뒤이어 가장 빨리 미국행 길에 오르는 신한은행의 서 행장은 18일 출국했다. 서 행장은 총회 참석에 앞서 미국 내 신한은행 뉴욕지점을 방문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조 행장 역시 뉴욕지점을 방문한 후 워싱턴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미국 재정문제,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한 글로벌 국제공조를 어떻게 취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내 금융회사 CEO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BC카드, VISA 끊는다 끊어

비자, 해외결제 독자 네트워크 이용 잇단 벌금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결정까지 1년 이상 소요

비자카드가 BC카드에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비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비등해지고 있다.

고객에게 더 유리한 결제망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비자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다.

카드업계는 비자가 해외 지급결제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 BC카드를 무리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는 지난 16일 오전 비씨카드의 독자 결제 네트워크 사용을 이유로 BC카드 정산 계좌에서 벌금 5만 달러를 인출해갔다.

비자카드는 6월 중순 처음으로 10만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7월부터는 매달 5만달러의 벌금을 계좌에서 인출해가고 있다.

비자 카드를 해외에서 결제하면 무조건 비자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BC카드가 독자적인 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비자 규정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탓에 벌금 부과에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없다.

공정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 소요됨을 감안하면 벌금 부과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달부터는 벌금이 인상되거나 다른 제재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비자카드 규정에 보면 벌금 부과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벌금을 더 올리거나 더 무거운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여론은 BC카드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BC카드의 독자 결제망은 비자네트워크와 달리 회원에게 1%의 국제카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네트워크의 이용료가 더 비싼 데도 비자에서 자사 네트워크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다.

마스터카드 등 다른 글로벌 지급결제 브랜드는 자사 네트워크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카드업계는 비자가 BC카드에 이처럼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BC카드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BC카드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가맹점망 구축에 나서고 해외 카드 브랜드와 제휴 관계를 넓히는 등 글로벌 지급결제 브랜드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비자와 BC카드가 '갑·을' 관계에서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자코리아는 사실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사안에 관련한 의사결정을 아시아지역본부에서 하다보니 국내 여론과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며 "BC카드가 비자 테두리를 벗어나 해외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데 대해 비자가 제동을 걸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득관 기자 dk@



기관, 업종대표주 다시 산다

내수 위주의 방어전략서 투자 전환
삼성전자·포스코·호남석유 등 주목

최근 삼성전자, 호남석유 등 업종대표주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내수주 위주의 방어전략을 펴던 기관들의 입맛이 낙폭 과대로 투자 매력이 높아진 업종대표주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업종대표주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종목에 대한 비중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피가 지난 한주간 1.62% 상승하며 한 주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6일에는 하루만에 6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코스피는 1840선을 단숨에 회복했다.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7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선 기관이었다. 기관은 이날 전기전자(1624억원)와 운수장비(1272억원) 업종 등을 집중 매수하며 장을 주도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업종대표주들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그동안 내수주 위주의 방어전략을 펴왔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내수주 위주의 대응에 나섰던 기관들이 포지션에 변화를 주고 있다"며 "IT·철강·통신·운수창고 업종 대표주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NHN, KT, LG생활건강, KT&G 등을 집중매수했던 기관들은 이달들어 삼성전자, 현대위아, 호남석유 등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기관이 이달들어 3500억원 넘게 매수에 나서면서 지난달 60만원선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80만원을 회복하기도 했다. 호남석유도 지난달 22일 30만원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20% 가까이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기관들의 업종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업종대표주들의 낙폭이 과도했던 만큼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배성영 현대증권 연구원은 "PER과 PBR 두 가지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IT), SK이노베이션(정유), 현대중공업(조선) 등 업종 대표주들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저평가된 상황"이라며 "이들 종목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주가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호 한화증권 연구원은 "8월말 이후 기관들이 업종대표주들에 대한 비중확대에 나서왔다"며 "당분간 긍정적 뉴스플로어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방어주와 내수주보다는 업종대표주(화학, 에너지, IT)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기관 순매수 종목

종목명	수량(백주)	금액(백만원)
삼성전자	4,500	352,182
POSCO	4,681	196,523
NHN	8,882	190,263
하이닉스	89,290	189,949
현대위아	8,075	120,989
SK텔레콤	6,510	100,360
호남석유	2,583	96,765
GS건설	9,334	94,524
SK이노베이션	5,223	88,439
삼성생명	6,294	57,137
만도	2,556	46,315
GKL	19,853	45,842
락앤락	13,161	44,613
신세계	1,364	41,962
고려아연	930	39,064
CJ제일제당	1,163	38,261
한국타이어	9,722	37,125
LS	3,703	35,967
호텔신라	10,971	33,899
두산	2,337	31,090

월지급式펀드 '투자주의보'

수익률 급락에 원금서 분배금 지급
만기때 원금보존 따져보고 투자를

'베이비부머'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상반기 시중자금을 대거 끌어모았던 월지급식펀드에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주식시장 조정에 따른 수익률 급락으로 인해 원금에서 분배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에프앤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29개의 월지급식펀드의 16일 기준 1개월 수익률은 -0.41%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기간 국내주식형펀드(-2.13%) 보다는 선방한 성적이지만 문제는 분배금이다.

월지급식펀드는 매월 펀드 운용 성과가'마이너스(-)'든 '플러스(+)'든 투자자에게 반드시 분배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펀드는 최초 투자한 원금의 연6~8.4%(월 0.5~0.7%) 지급비율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운용 수수료(연 2%)와 세금을 합치면 연 10% 이상의 돈이 고정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즉 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11% 이상의 수익이 나야한다.

월지급식펀드 1개월 수익률 하위 (단위:%)

펀드명	1개월	1년	설정후
피델리티월지급식아시아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C	-3.18		-3.81
칸서스뫼비우스블루칩증권투자신탁 1(주식)Class C 2	-2.95	-5.40	46.23
하나UBS실버오토시스템월분배식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ClassC	-1.41	-1.91	0.36
하나UBS실버오토시스템월분배식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ClassA	-1.38	-1.62	-1.46
동양월지급식롱숏매직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lassC	-1.32		-1.10
동양월지급식롱숏매직증권투자신탁 1[채권혼합]ClassA	-1.28		-1.04
한국투자라이프플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 1[주식혼합](C)	-1.22	-1.87	-1.05
프랭클린템플턴월지급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Class C	-1.09		-2.60
프랭클린템플턴월지급글로벌증권자투자신탁[채권]Class A	-1.06		-2.56
한국투자노블월지급식연속분할매매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	-0.97	-1.44	18.58

(16일 기준, 자료: 에프엔가이드)

하지만 최근 월지급식펀드 수익률은 매달 지급된 분배금을 제외한 좌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기적으로 '플러스' 성적을 거두고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운용기간 중 자주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다면 원금회복이 일반주식형 펀드보다 더 어렵다.

수익률 착시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투자원금이 줄어들면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원금을 까먹은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플러스'가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익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월지급식펀드 설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 올초 7691억원에 머물던 설정액은 16일 현재 6013억5400만원으로 무려 358.44%나 급증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월지급상품이 제시하는 표면적인 월분배금의 수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만기시 원금의 안전성과 수익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내 상장 中기업들 '차이나리스크' 해소

실적 기대감에 주가 상승

중국 고섬사태로 야기된 국내 상장된 중국기업들에 대한 '차이나리스크'가 최근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벽타일전문업체 완리인터내셔널은 이달 들어 지난 17일 현재 주가가 27.5%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가 5.3% 하락한 것을 감안하면 무척이나 견조한 모습이다.

완리는 중국 고섬과 거래정지 사태와 중국원양자원 선박사진의 진위 논란 등 중국기업들에 대한 불신으로 그동안 주가가 공모가(4100)를 한참 하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탄탄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차이나그레이트, 중국원양자원, 차이나킹 등 국내 상장된 16개 중국기업들은 최근 변동성이 높아진 장세에서도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국고섬 사태이후 중국대제, 썬마트홀딩스, 컴바인윌홀딩스, UMS홀딩스 등이 상장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등 아직 시장 투심이 살아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기업 상장을 추진중인 증권사 IB 담당자는 "최근 투심이 조금 살아나기는 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차이나디스카운트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중국고섬, 코웰이홀딩스 등의 기업이 빨리 정리돼야 시장 시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덕 기자 kiduk@



우리투자證, ELS 투자 이벤트

우리투자증권은 19일 변동성 장세에 적합한 투자 상품으로 ELS를 제안하고 가입고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옥토의 선택, ELS 투자' 이벤트를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총액 비중
전기전자↓ 운수장비↑

올해 들어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동차 종목이 포함된 운수장비 업종의 비중은 올라갔다.

19일 한국거래소가 2009년 이후 9월15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업종별 지수등락률 및 시가총액 비중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기전자 업종의 감소 폭이 16개 업종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은 지난 15일 현재 176조7870억원으로, 전체의 17.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말 20.81%에 비해 3.2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어 금융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13.69%(137조4220억원)로, 지난해 말보다 2.55%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운수장비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말보다 2.21%포인트 상승한 15.89%(159조4980억원)로 서비스업(2.45%포인트) 다음으로 비중 증가 규모가 컸다.

이에 운수장비 업종은 금융업을 제치고 시가총액 순위 2위로 올라섰다. 전기전자 업종은 시가총액 감소폭이 크긴 했지만 1위를 지켰다.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전자(17.61%), 운수장비업(15.89%), 금융업(13.69%), 화학(11.95%), 서비스업(11.20%) 등 순이다.

이들 업종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 것은 주가 흐름에서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지난 15일까지 13.5% 하락한 가운데 전기전자업 지수는 코스피 하락률보다 더 큰 26.44%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금융업 지수도 26.85% 떨어졌다. 운수장비 업종 지수는 하락률이 1.7%에 그쳤다.

문선영 기자 moon@

"때 잘못 만나"… 하반기 신규 상장사 '울상'

상장기업 11곳 중 5곳 공모가 밑돌아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발 신용등급과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악재로 출렁거리자 하반기 주식시장에 신규로 상장한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11개(투자전문 광희리츠와 코스피로 이전상장한 코오롱아이넷, 에이블씨앤씨 제외)다.

이들 중 지난 16일 종가대비 공모가 아래로 밀려난 기업은 옵티시스, 상아프론테크, 경봉, 제이씨케미칼, 화진 등 5개 기업이다. 특히 가장 많이 주가 하락한 곳은 경봉(-24.50%)이며 뒤를 이어 옵티시스(-22.63%), 제이씨케미칼(-20.8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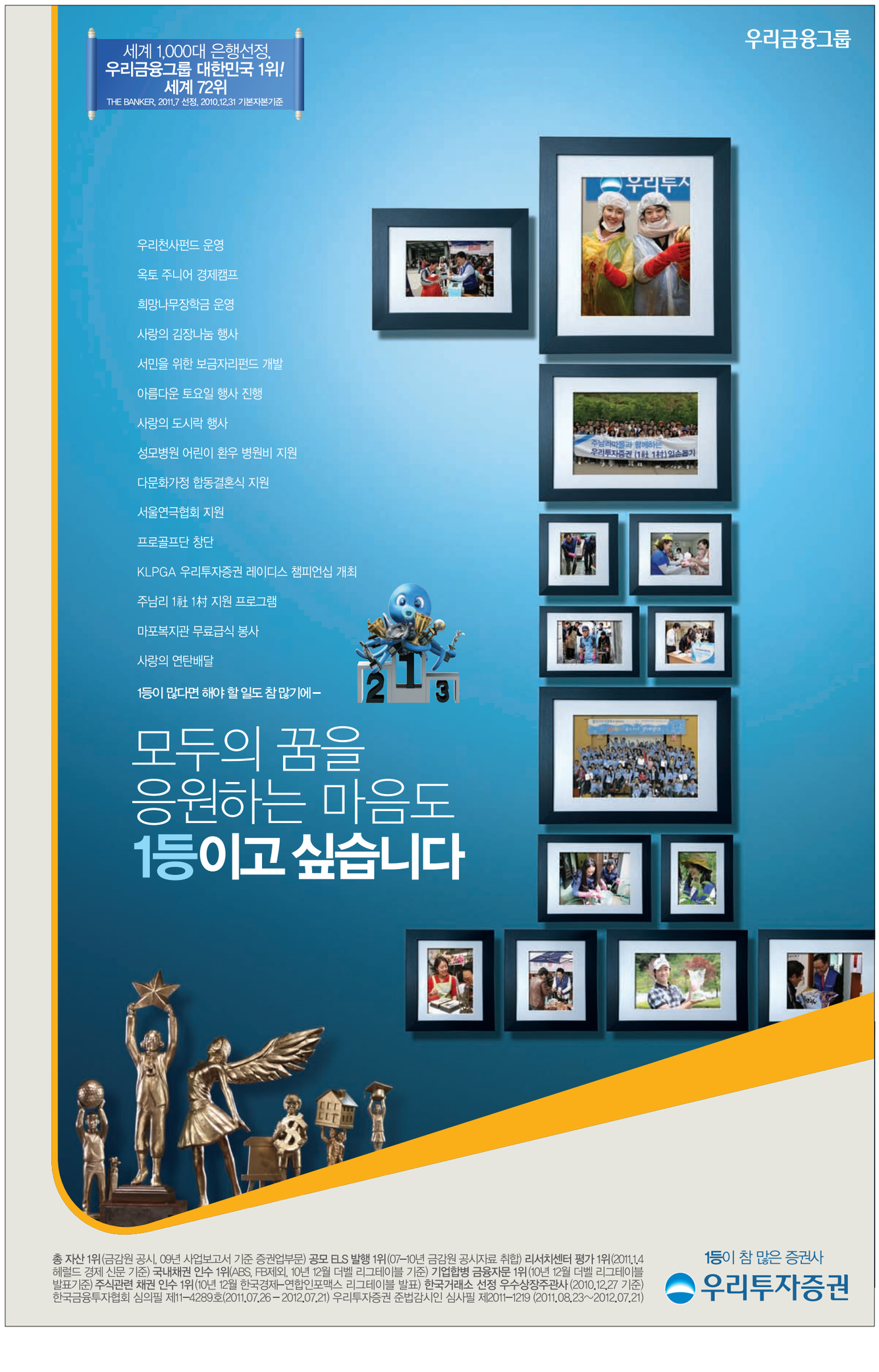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시초가를 형성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기업들도 투자자들의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시초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대양전기공업, 옵티시스, 나이벡, 상아프론테크, 삼원강재, 경봉, 제이씨케미칼, 화진 등 7개다.

이 가운데 시초가 대비 가장 높은 주가 하락률을 기록한 곳은 경봉(-50.82%) 이며 상아프론테크(-29.03%), 나이벡(-27.33%), 대양전기공업(-18.58%)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주가가 40% 이상 하락했다.

공모가나 시초가보다 주가가 오른 기업은 신세계인터와 제닉, 아이씨디만이 유일하다.

7월 국내 증시가 중소형주의 장세가 연출되면서 새내기주들이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이전에 공모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다.

A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불안한 장세를 연출하면서 새내기주들도 이 영향을 받았다"며 "9월 이후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상장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 공모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석화' 라이벌… 같으면서도 다른 '몸집 불리기'

라이벌기업 재무 리포트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은 국내 화학업계를 대표하는 선도기업이다. 두 회사는 서로 차별화된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LG화학이 그룹내 동종 계열사를 흡수합병해 수직계열화에 나섰다면, 호남석화는 동종의 경쟁업체를 인수·합병(M&A)해 몸집을 불리고 있다. 또한 양사는 본업인 화학부문외에 2차전지와 폴리실리콘, 천연자원, 바이오 등 사업구조 다각화에도 회사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두 회사는 수천억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설비투자와 인수·합병 비용으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다소 훼손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간 1조~3조원을 웃도는 영업현금창출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성의 회복은 물론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화학

LG화학은 석유화학제품과 정보전자소재 등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의 종합화학업체로 LG그룹 화학부문의 핵심 계열사다. 2006년 1월에는 LG대산유화, 2007년 11월에는 LG석유화학을 잇따라 흡수합병해 NCC(나프타분해설비)부문을 강화시켰다. 이에 기초유분에서 중간원료, 합성수지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는 관련 업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수직계열화로 평가되고 있다.

LG화학은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LCD 글라스, 폴리실리콘 등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매년 수조원대의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충북 오창에 2013년까지 세계 최초의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도 약 3억달러를 투자해 2012년을 목표로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폴리실리콘 사업진출을 발표하기도 했다.

LG화학은 2007년 이후 계열사 흡수합병에 따른 생산효율성 제고와 PVC·ABS·옥소알콜 등 주력제품의 호조로 석유화학부문 수익성이 대폭 개선됐다.

정보전자소재부문도 주력제품(2차전지, 편광판)의 수요 증가와 지속적인 증설투자, 가동률 상승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LG대산유화 등 합병 수직계열화
전기차용 배터리 성장동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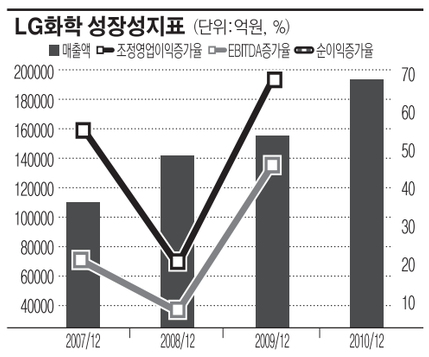
있다. 2010년말 연결기준 매출액은 19조원으로 20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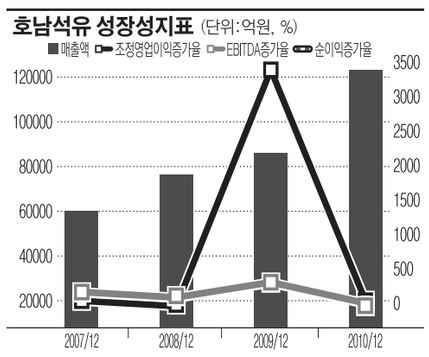
2010년말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조1000억원으로 단기성차입금 1조6000억원과 장기성차입금 약 48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금성자산을 감안한 순차입금은 약 7300억원으로 연간 3조원을 웃도는 현금창출력을 감안하면 크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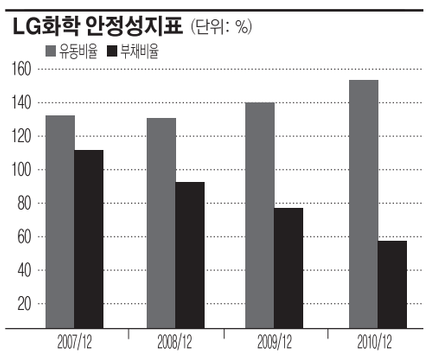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 LCD용 유리기판, 폴리실리콘 등 중장기 성장을 위해 연간 1조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무안정성은 탄탄하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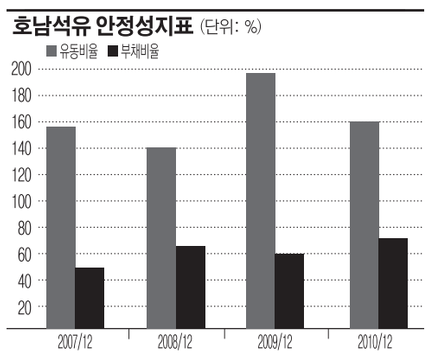
LG화학의 차입금의존도는 2007~2009년 20%에 머물렀으나 2010년부터 10%대 중반으로 낮아졌다. 2007년 100%를 넘었던 부채비율도 뛰어난 영업현금 창출 능력에 감소해 올해 반기말 기준 62%까지 떨어졌다.

송수범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LG화학의 우수한 영업현금창출력과 재무안정성을 감안하면 투자부담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도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영업현금창출력과 1조4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자산, 풍부한 신용한도, 소속그룹의 우수한 신인도 등을 감안하면 재무융통성도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LG화학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반기
매출액	145,549	155,208	194,715	111,908
순이익	9,860	15,392	21,998	12,811
자산총계	97,356	105,306	126,735	142,071
자기자본	50,527	59,267	78,438	87,655
부채총계	46,829	46,039	48,296	54,416
유동자산	42,772	52,771	62,917	70,898
유동부채	32,713	39,068	42,774	51,634
차입금	27,425	24,106	21,011	24,501
매출액증가율	27.5	6.6	25.5	–
순이익증가율	18.0	56.1	42.9	–
총자산증가율	13.9	8.2	20.3	12.1
당기순이익률	6.8	9.9	11.3	11.4
ROA*	10.1	14.6	17.4	9.0
ROE**	19.5	26.0	28.0	14.6
부채비율	92.7	77.7	61.6	62.1
유동비율	130.7	135.1	147.1	137.3
자기자본비율	51.9	56.3	61.9	61.7
차입금의존도	28.2	22.9	16.6	17.2

호남석유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반기
매출액	75,654	85,956	124,032	78,894
순이익	−401	8,904	8,948	7,644
자산총계	51,249	65,926	86,129	100,380
자기자본	31,124	41,553	49,866	56,883
부채총계	20,125	24,373	36,263	43,497
유동자산	17,730	30,598	35,316	47,880
유동부채	13,036	15,586	21,668	30,703
차입금	10,664	8,197	16,201	17,372
매출액증가율	22.9	13.6	44.3	–
순이익증가율	적자전환	흑자전환	0.5	–
총자산증가율	6.4	28.6	30.6	16.5
당기순이익률	−0.5	10.4	7.2	9.7
ROA*	−0.8	13.5	10.4	7.6
ROE**	−1.3	21.4	17.9	13.4
부채비율	64.7	58.7	72.7	76.5
유동비율	136.0	196.3	163.0	155.9
자기자본비율	60.7	63.0	57.9	56.7
차입금의존도	20.8	12.4	18.8	17.3

※자료:금감원(연결기준, 억원, %)

호남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은 1976년 설립된 종합 석유화학사로 롯데그룹 석유화학 부문의 주력사다. 현재 전남 여수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내 NCC와 각종 계열제품 생산설비 등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나프타를 주원료로 기초유분(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BTX 등), 합섬원료(EG·SM 등), 합성수지(PE·PP·MMA 등)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호남석화는 롯데대산유화를 2003년 중 인수하고 2009년 초 합병했으며 2004년 11월 케이피케미칼을 인수하면서 사업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어 2009년에는 케이피케미칼을 통해 파키스탄, 영국 소재 PTA(고순도 테레프탈산)업체를 인수해 PTA 부문을 키웠다.

또한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 소재 NCC업체인 Titan Chemical Corp.(이하 타이탄)를 인수했다. 호남석화는 타이탄을 포함할 경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 대만 포모사에 이어 에틸렌 기준 연간 약 250만톤으로 2위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호남석화는 그밖에 2008년 친환경 발포 폴리프로필렌(PP) 생산업체 하오기술과 2009년 장섬유복합재 생산업체 삼박엘에프티, 2010년 8월에는 탄소복합재 전문기업인 데크항공을 잇달아 인수했다.

동종의 경쟁업체들 잇따른 M&A
인수 자금부담에도 재무 안정적

호남석화는 2008년 금융위기 영향을 받아 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듬해 글로벌 수요 회복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영향을 받아 흑자로 돌아섰다. 매출은 2010년 타이탄 인수로 2009년 8조원대에서 12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잇따른 M&A에 호남석화의 차입금의존도는 2007년 3.3%에서 2008년 20.8%로 급증했다. 2009년 12.4%로 낮아진 차입금의존도는 2010년 타이탄 인수대금 1조5000억원 마련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18.8%로 다시 올랐다. 부채비율도 50~60%대에서 70%를 넘어섰다. 이에 2009년말 연결기준 -6860억원이던 순차입금도 2010년 4891억원으로 돌아섰다.

다만 자체창출 자금으로 일부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고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안정성은 여전히 우수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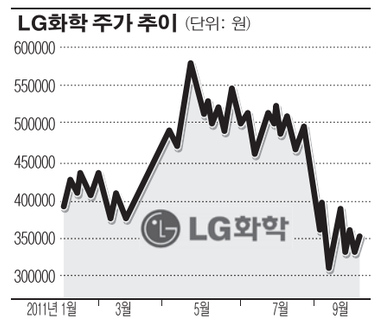
이길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 개발과 가스화학단지 건설, 여수 NCC공장 2차 증설투자 등 연간 5000억원 내외의 투자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M&A 가능성 등 투자부담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수한 현금창출능력과 풍부한 현금성자산, 롯데그룹의 상장대기업이란 대외신인도를 감안하면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이 지속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 전망

전문가들이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등의 화학업종 대표주가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감에 급락했으나 대내외 여건이 안정되면 주가는 탄력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LG화학은 16일 현재 전일보다 1만3500원(4.10%) 오른 34만3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LG화학은 1분기 시장 회복과 호실적을 바탕으로 4월22일 사상최고치인 58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주가는 주춤하기 시작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 불안에 급락해 현재 30만~35만원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2분기 주춤… 회복 기대



MEG 호조 하반기 실적↑



박건태 유화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특수화학과 비석유화학제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글로벌 기업 수준이어서 실적 방어능력이 뛰어나다"면서 "광학소재 및 2차전지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 양호한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석화는 16일 현재 전일보다 1만4500원(3.97%) 오른 38원을 기록하고 있다. 호남석화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1분기 차·화·정 강세를 배경으로 40만원대 주가를 돌파한 뒤 2개월여 동안 횡보했다. 이후 외국인 매수세와 타이탄 인수 효과 기대감에 재차 상승해 8월초 47만원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글로벌 경기 우려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호남석화의 주력 제품인 MEG(폴리에스터 부재료) 시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402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7%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6년부터 실거래가를 발표하면서 거래량 통계치는 분석 발표하면서 거래가의 통계치는 분석하지 않고 있어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가격' 뺀 채 '거래량'만 분석

주택정책 제대로 펼칠까?

국토해양부가 지난 5년간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하면서 거래량만 분석하고 거래가격은 분석하지 않아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부실한 자료를 발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를 접수 받아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매달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량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분석한 자료에는 "강남3구 실거래가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라거나 "아파트 거래량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라는 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료만 보면 단순히 강남3구를 비롯해 아파트 거래시장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고가아파트 가격 거래가 늘었는지, 중·저가 아파트 거래가 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거래량 증가가 정상매물인지 급매물인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가격의 변동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에는 아파트별로 거래가격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몇 층에, 아파트 면적까지 볼 수 있다. 그냥 나열해 놓은 식이라서 추세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그동안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분석할 때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매매호가에 주로 의지해 왔다. 매매 호가는 팔겠다는 사람의 의사만 반영된 정보다. 반면 실거래가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이 반영된 시장가격으로서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현재 실거래가 원자료는 국토부가 독점하고 있다. 이를 분석할 때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한국감정원은 국토부가 의뢰한 자료만 뽑아서 국토부에 제공한다.

실거래가 총액 추이의 요청에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수학에서 평균값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전체 총량에서 총 개수를 나누면 된다. 즉 '평균 실거래가격'을 구하는 것도 이처럼 쉽다. 전체 실거래가를 합쳐 실거래건수로 나누면 되는 것.

하지만 국토부는 5년간 전체 실거래가를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량은 매달 구해왔다"면서도 "그동안 실거래가 총액을 구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총액을 구하지 않아서 실거래가 추이 파악도 못해 왔던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실거래가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 강남권은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돼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다"는 현실적 애로를 토로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실거래가격이 동일 지역을 분석해야 가치가 있는데, 가치 있는 만큼 거래가 이뤄지는지 알기 어렵다"며 "다만 (거래건수가 많아서) 유의미할 정도의 거래가 이뤄진다면 실거래가 평균가격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kwkim@

도안·세종시 분양 '큰 場' 선다

정부청사 이전·과학벨트 선정 호재로

내달까지 1만3300가구

정부청사 이전과 과학벨트 선정 등의 호재로 관심이 높은 충남권에 총 1만3300여 가구의 신규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

하반기 지방 공급 예정 물량인 3만5000여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매머드급 물량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9월과 10월 대전 도안신도시와 세종시에서 13개 사업장 1만 3300가구의 신규 분양이 쏟아진다. 이는 하반기 지방권 공급물량인 3만5000여 가구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최근 대전·충남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도 남다르다. 실제로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7월 대전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7% 올랐고 충남도 0.7% 상승했다.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서도 대전 도안신도시 매매가는 올 1월 3.3㎡당 740만원에서 8월 822만원으로 11%가량 상승했으며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군은 3.3㎡당 827만원에서 854만원으로 3% 상승했다.

특히, 대전 도안신도시와 세종시는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신도시와 미래가치 간의 대결 구도다.

대전 도안신도시는 2006년 12월 착공을 시작해 현재 1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전 도안신도시는 올해 하반기까지 1만 6900여가구가 입주하는 등 주거지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고 있어 입주 시점에는 신도시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질 전망이다.

올 가을 분양예정 물량은 7곳 총 8200여가구다. 이달 금성백조주택이 7블록에서 '백조의호수' 1102가구(전용 84㎡)를, 호반건설이 2블록에서 '호반베르디움 1차' 970가구(전용 84㎡)를 분양한다.

이어 10월에는 우미건설 '대전도안 우미린' 1691가구(전용 70~84㎡), 계룡건설 '계룡리슈빌' 1236가구(전용 73~85㎡), 대전도시공사 '트리풀시티 2차' 1248가구(전용 84㎡), 현대산업개발 '대전도안 아이파크' 1053가구(84㎡), 호반건설 '호반베르디움 2차' 964가구(84㎡)를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대전 도안시도시.충남 세종시 분양 예정 물량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	시기	건설사
대전 도안 신도시	18블록	대전도안 우미린	70~84	1691	10월	우미건설
	15블록	대전 대안 아이파크	84	1053	10월	현대산업개발
	17-1블록	계룡리슈빌	73~85	1236	10월	계룡건설
	2블록	호반베르디움 1차	84	970	9월	호반건설
	17-2블록	호반베르디움 2차	84	964	10월	호반건설
	5블록	트리풀시티 2차	84	1248	10월	대전도시공사
	7블록	백조의호수	84	1102	9월	금성백조주택
충남 세종시	1-2생활권 L3, M3	세종시 푸르지오	74, 84, 101	2592	10월	대우건설
	1-4생활권 M4,L2,L3	세종시 웅진 스타클래스	59~84	1342	9,11월	극동건설
	1-5생활권 M1,L1	세종 더샵	59,84,110,118	1137	10월	포스코건설

※자료:더피알스마트컴

분양 소식

인천 논현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대우건설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448번지 일대에 '논현 2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이달 분양한다. 분양가는 3.3㎡ 당 400만원 대부터다.

소형 오피스텔의 총 분양가는 9000만원 대로 책정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20층 1개 동 규모로, 지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부터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최근 인기가 많은 전용면적 20~63㎡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 총 771실로 구성된다. 이 중 53~63㎡ 145실은 국내 최초로 3인의 개별적인 독립 세입자가 동거할 수 있는 3실 개별 임대형 오피스텔로 지어진다.

분양문의 1566-4300.

춘천 사농동 뉴시티 코아루 아파트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20일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뉴시티 코아루'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열고, 21일부터 청약 1순위 접수에 들어간다.

이 아파트는 총 463가구로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 동 전용면적 79㎡ 73가구, 84㎡ 390가구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수납공간을 다수 설치해 남는 공간이 없도록 설계했으며 2006년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2m의 광폭발코니가 제공돼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최저 545만 원이며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33-263-8885.

부동산 캘린더

한가위 연휴 여파 분양시장 한가

포항 1곳서만 청약

추석연휴 여파와 건설업체의 분양 지연으로 9월 넷째 주 신규분양 시장은 한산할 전망이다.

경북지역의 국민임대 단지 1곳만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이달 9월에는 분양예정 사업장 수가 연내 가장 많았지만 금융 위기와 경기 불안에 따른 미분양 우려로 연기된 곳이 많았고 추석 연휴기간까지 겹치면서 계획 대비 실적이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가는 경북 포항 장성동 포항장량(5B) 국민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39~59㎡로 구성됐으며 총 1006가구가 공급된다. 월 임대료는 11만~26만원 수준이며 2012년 11월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소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경기 광주 오포읍 극동스타클래스는 19일 3순위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총 2개동 120가구로 지하2층~지상15층 규모다. 전용면적 134~162㎡형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며 단지 주변에는 율동공원과 분당AK플라자가 있어서 편리하고 불곡산을 조망할 수 있다.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이다.

23일에는 부산 금곡제2구역의 재개발 단지인 율리역 벽산블루밍 1·2단지의 모델하우스가 오픈한다. 부산 지하철 1호선 교대역 8번출구 하이마트 옆에 모델하우스를 연다.

분양일정

날짜		분양내용	문의처
19일	접수	경기 광주시 오포읍 극동스타클래스 3순위 접수	02)2280-6215
	계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A4B국민임대 계약(~9/21)	1600-7100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그린코아 계약(~9/21)	051)555-3030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세곡리엔파크5단지 계약 (~9/23) 장기전세주택 201가구	1600-3456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이펜하우스3단지 계약(~9/23)장기전세주택558가구	
		서울 구로구 오류동 천왕이펜하우스1단지 계약(~9/23)장기전세주택58가구	
	발표	경기 용인시 중동 서해그랑블2차 당첨자발표	1599-5900
		경북 안동시 옥동 스타클래스 당첨자발표	054)843-1000
20일	접수	경북 포항시 장성동 포항장량5B(국민임대) 접수 (~9/22)	1600-1004
	계약	경남 김해시 장유면 율하2차e편한세상 계약 (~9/22)	1600-1004
		충남 보령시 동대동 한성필하우스 계약 (~9/22)	041)556-4612
	발표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세곡보금자리(A1) 당첨자발표	1600-1004
21일	계약	경기 수원시 이의동 호반베르디움(A18) 계약 (~9/23)	031)713-0088
		부산 사하구 다대동 롯데캐슬블루 계약 (~9/23)	051)204-5551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웰 계약 (~9/23)	02)867-8111
23일	오픈	부산 북구 금곡동 율리역벽산블루밍1단지 모델하우스오픈예정	051)504-0880
		부산 북구 금곡동 율리역벽산블루밍2단지 모델하우스오픈예정	
	발표	경기 광주시 오포읍 극동스타클래스 당첨자발표	02)2280-6215
24일	오픈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2차푸르지오시티 모델하우스오픈예정	1566-4300

※자료 : 부동산114

"세계 최고의 CD/DVD/BD 복제방지 전문 솔루션"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영상 DVD"

2011년 완전개정판, 합격율 99%!!

2011년 10월 23일은 '22회 공인중개사 시험 예정일'입니다.
2011년 완전개정판 강의를 수록한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그동안 신바람 공인중개사 시리즈로 공부하여 합격한 여러 선배 중개사님이 보증한 동영상 DVD입니다!
믿고 선택하여 공부하면 나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308,000원~~
198,000원
Full Set 가격
(교재별도)





Set 구성

점찬 판매중!

피부미용사 동영상 강의
198,000원 (교재별도)

▣ 부동산학 개론 (DVD 3장/42강좌)
▣ 민법 및 민사특별법 (DVD 3장/42강좌)
▣ 중개법 및 중개실무 (DVD 3장/42강좌)
▣ 부동산 공법 (DVD 3장/42강좌)
▣ 부동산 세법 (DVD 3장/42강좌)
▣ 부동산 공시법 (DVD 3장/42강좌)

1 기본강좌를 3번 이상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필요에 따라 출제비율을 보고 강약을 조절한다.
3 기본 강좌를 한번 더 반복 청취한다.
4 기출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출제 경향 및 시험에 여러문제들이 나오는지 미리 공부한다.
5 요점정리 강의, 문제풀이 강의 등으로 마지막 점검한다.

※ 검색창에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를 치세요!

※신바람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2차 Set 198,000원(교재별도)을 구매하신 분에 한하여 공인중개사 동영상 강의 DVD 1차 Set(110,000원)+21회 기출문제 동영상 강의 DVD(45,000원)을 무료로 드립니다.(선착순 500명 한)

39,600원x5개월 (카드 5개월 무이자 할부)

상담문의
24시간 365일 콜 080-588-0011

|주| 나래블루미디어 인터넷 동영상(공무원, 자격증, 검정고시 강의)
www.predu.co.kr/통신 판매업 2011-서울 양천-00134

인터넷 판매처
인터파크 YES24.COM AUCTION GMARKET 알라딘 KYOBO TECHNODVD movie4989 ozdvd.co.kr BANDI & LUNI'S E-MART mall.com



복제방지 CD-R, DVD-R
Safe-Rom™

Safe-Rom은 복제방지 솔루션입니다
Safe-Rom은 귀사의 소중한 컨텐츠를 무단복제로 부터 보호하고 탁월한 호환성과 안전성으로 귀사의 자산을 안심하고 지킵니다

Safe-Rom의 개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면의 독특한 불량트랙과 이를 확인하는 PC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제방지가 적용된 CD-R/DVD-R

사용자가 직접 손쉽게 복제방지 CD/DVD/BD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Safe-Rom"을 만나 보세요!!

www.safe-rom.com (주)나래블루미디어

주간 매매·전세 동향

연휴로 거래 한산…전세 오름세 일시 둔화

지난주 서울 수도권 매매·전세 거래시장은 추석 연휴가 끼어있던 탓에 한산했다. 매매시장은 매수 문의 없이 약보합세를 유지했고 가격변동을 보인 단지도 많지 않았다. 전세는 연휴 직후부터 다시 문의가 있었지만 출시된 물건이 없어 거래 성사가 어려웠고 오름세가 지속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아파트 매매시장은 서울(-0.01%)이 중대형 중심으로 조정되면서 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0.01%)는 미미하지만 소폭 상승했고 수도권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서울 재건축 시장도 큰 변동 없이 주간 -0.01%의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노원(-0.05%) 영등포(-0.03%) 강동(-0.01%)만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신도시는 산본(0.07%)만 유일하게 올랐다.반면 일산(-0.01%) 평촌(-0.01%)은 시세가 하락했다. 수도권은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소형 급매물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가 이어지면서 보합세를 유지했으나 연휴 등의 영향으로 거래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가격 변동 또한 거의 없었다. 고양(-0.01%) 수원(-0.01%) 지역이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한 주간 보합세를 보였다.

전세시장은 서울(0.03%) 신도시(0.03%) 수도권(0.02%) 모두 연휴 영향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고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서울은 연휴 영향으로 전세물건을 찾는 수요가 많진 않았지만 전세 수요보다 출시된 전세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전세수요는 대기 상태다. 상승세는 지난 주보다 둔화됐지만 물건이 나오면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며 전세 물건 없이 호가가 형성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강동(0.14%) 도봉(0.08%) 노원(0.06%) 관악(0.06%) 구로(0.04%) 양천(0.04%) 중랑(0.04%) 강남(0.03%) 등이 소폭 상승했다.

신혼부부 등의 소형 수요가 꾸준한 신도시는 산본(0.13%)을 필두로 오름세가 지속됐다. 중동(0.09%) 일산(0.01%)도 상승했다.

수도권도 연휴기간 동안 가격 변동을 보인 사례는 다소 줄었다. 하지만 전세물건 부족 현상은 지속됐고 연휴 이후 수요 움직임이 다시 포착되면서 서울 인접지역의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시흥(0.07%) 성남(0.06%) 의왕(0.05%) 광명(0.04%) 남양주(0.04%) 의정부(0.04%) 오산(0.04%) 등이 올랐다.

부동산114 이호연 팀장은 "지난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서울 수도권 아파트 거래시장은 한산했고 전세시장도 수요 움직임이 다소 줄었다"며 하지만 당분간 전세물건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일부 지역의 매매전환, 소형주택 실수요 거래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혁 기자 daniel@

1㎡=0.3025, 79㎡=24평형, 105㎡=32평형, 148㎡=45평형 단위:백만원

지역 / 아파트명(입주년도)	면적(㎡)	매매가(만원) 하한	매매가(만원) 상한	전세가(만원) 하한	전세가(만원) 상한	문의
서울(02)						
◇강남						
개포						
대치 (1992)	56	400	440	160	190	부광부동산
	69	490	550	220	250	445-0026
우성3차 (1984)	112	840	920	400	450	엘리트공인
	156	1250	1400	550	600	579-9900
주공3단지 (1982)	42	800	820	80	85	양지부동산
	50	1020	1030	100	120	572-9954
현대2차 (1985)	107	1000	1050	400	430	굿모닝공인
	197	1800	2000	600	700	573-6633
논현						
신동아 (1997)	102	620	700	350	380	신동아공인
	138	800	1050	420	480	545-6500
대치						
대우아이빌 명문가 (2004)	42A	230	240	150	160	한터부동산
	46E	235	240	150	160	563-2211
선경1차 (1983)	159	1800	2200	750	900	우방공인
	188	2200	2600	900	1050	5695-114
은마 (1979)	101	900	950	350	420	금탑공인
	113	1070	1130	450	500	508-2255
청실1차 (1979)	102	900	1030	0	0	우방공인
	115	1000	1130	0	0	5695-114
도곡						
도곡렉슬 (2006)	86B	800	855	450	520	황금공인
	111A	1250	1350	650	700	3463-7474
삼성래미안 (2001)	81	680	730	410	430	우리부동산
	112	950	1030	560	580	576-7200
역삼력키 (1993)	113	730	800	370	400	더보공인
	148N	1100	1230	480	530	574-7588
역삼우성 (1986)	92	600	650	280	300	금성공인
	102	640	710	300	320	3462-5858
타워팰리스2차 (2003)	223A	1900	2250	800	930	굿모닝공인
	226B	2100	2500	850	950	555-7755
삼성						
서광 (1998)	80	590	610	290	320	영동공인
	109A	720	770	400	430	548-8945
중앙하이츠 빌리지 (2005)	108A	1000	1080	470	550	해청공인
	192	1780	2000	720	780	3446-8989
수서						
삼익 (1992)	85	460	510	220	260	한아름공인
	112	640	700	300	350	3412-5566
수서삼성 (1997)	76	550	620	290	350	써브삼우공인
	102	690	800	390	450	3412-6688
압구정						
구현대7차 (1979)	158	2000	2250	560	620	한라공인
	171	2200	2550	580	690	544-5700
미성1차 (1982)	113	1300	1350	350	380	미성공인
	165	1750	1900	550	650	511-4050
한양4차 (1978)	109	1300	1400	280	310	LBA압구정
	228	2600	2800	650	700	3446-2442
역삼						
동부센트레빌 (1998)	79B	500	590	320	350	개나리공인
	112	740	820	410	450	558-5001
래미안팬타빌 (2007)	158A	1500	1600	730	770	개나리공인
	184A	1600	1750	750	820	558-5001
역삼e편한세상 (2005)	79A	650	750	400	460	진선미공인
	106B	970	1060	570	630	566-4011
일원						
상록수 (1993)	91	720	780	330	380	고려공인
	102	870	960	370	450	459-4455
◇강동						
고덕						
배재현대 (1995)	99	330	380	200	220	동인공인
	132	500	530	280	300	3427-8855
길						
신동아1차 (1983)	62	300	315	100	110	강동공인
	79	380	395	140	160	477-8959
신동아3차 (1983)	82	330	350	140	160	강동공인
	95	410	430	160	170	477-8959
둔촌						
신성둔촌미소지움2차 (2000)	84	310	350	185	200	반석공인
	109	450	520	230	250	482-9900
명일						
명일LG (1996)	82	290	330	190	220	신용공인
	115	410	450	230	260	481-7122
우성 (1986)	102	500	600	250	280	드림공인
	155	700	800	330	370	4411-800
상일						
고덕주공5단지 (1983)	69	580	600	125	150	나라공인
	89	740	760	175	210	442-4425
성내						
현대 (1987)	85	330	360	190	200	코오롱공인
	112	390	430	210	220	482-0114
암사						
선사현대 (2000)	81A	300	375	210	230	칠성공인
	113E	470	620	280	320	481-7000
프라이어팰리스 (2007)	112	580	650	330	350	114월드공인
	142	730	830	350	400	429-6060
천호						
천호동삼성 (1997)	84	320	340	190	200	씨티공인
	110	430	460	240	250	477-1493
◇강북						
미아						
성우 (1998)	85	230	250	120	140	한길공인
	105	310	340	150	170	984-3114
번						
기산 (1998)	82	220	240	130	140	은성공인
	109	280	320	160	170	980-8500
해모로 (2000)	79A	270	290	140	150	하나공인
	79B	270	290	140	150	945-0999
우이						
대우 (2000)	80	240	250	120	130	우리부동산
	111	400	430	200	220	999-2249
◇강서						
가양						
가양6단지 (1992)	59	190	235	120	130	조은공인
	85	315	355	170	180	2668-0988
내발산						
우장산힐스테이트 (2005)	128	700	800	320	350	동네공인
	155	900	980	360	400	3665-1600
등촌						
등촌동 l`PARK1단지 (2003)	105	500	580	270	320	114공인 2646-5600
	150	800	900	330	370	
우성 (1992)	92B	260	300	170	180	명성공인
	119	345	400	205	220	3664-8989
방화						
마곡푸르지오 (2008)	106A	520	590	185	230	상승공인
	138	690	740	220	250	2666-6656
삼성꽃마을 (1997)	76	240	270	140	160	114비전공인
	107	300	385	170	190	2662-0040
삼익삼환 (1994)	123	460	540	220	230	삼환공인
	159	570	650	240	270	2661-5800

지역 / 아파트명(입주년도)	면적(㎡)	매매가(만원) 하한	매매가(만원) 상한	전세가(만원) 하한	전세가(만원) 상한	문의
우림루미아트2차 (2003)	91	330	370	170	180	삼성공인
	102A	400	450	200	210	2666-6345
염창						
삼성관음 (1997)	79	320	350	200	220	교하공인
	105	440	500	230	250	3661-7500
삼정그린코아 (2001)	113	460	560	230	250	태인공인
	145	650	730	280	300	2668-0462
염창벽산늘푸른 (1996)	79	250	275	150	180	남산공인
	105	350	400	190	210	2659-6000
화곡						
우신 (1978)	56	330	370	0	0	강서부동산
	66	370	420	0	0	2697-0088
초록 (1998)	82A	290	320	180	200	광장공인
	105A	420	460	200	230	2602-3200
◇관악						
봉천						
봉천우성 (1999)	105	390	470	240	260	e타임공인
	142	480	560	270	280	877-1133
서울대입구아이원 (2006)	75B	350	390	210	240	서울공인
	102	530	600	260	280	886-7111
신림						
건영2차 (1987)	62	170	190	80	90	써브력키공인
	82	220	230	100	110	851-7777
동부 (1993)	85	300	330	180	180	세계로부동산 875-7100
	105	450	480	240	250	
◇광진						
광장						
금호베스트빌 (2001)	81	380	450	270	280	금호부동산
	108	530	630	340	350	456-9494
워커힐 (1978)	185	1300	1650	400	480	육사공인
	188	1300	1650	400	480	452-6666
자양						
우성1차 (1988)	79	345	385	210	230	우성공인
	99	450	515	260	280	457-7400
우성3차 (1989)	89	445	505	260	275	우성공인
	102	525	610	300	320	457-7400
이튼타워리버3차 (2007)	111C	590	750	350	400	한강우성공인
	161	950	1150	400	470	466-8484
the#스타시티 (2007)	133J	900	1000	450	470	서울랜드공인
	159H	1100	1300	500	530	4444-002
◇구로						
개봉						
한마을 (1999)	148	580	630	230	250	역전공인
	178	670	700	240	260	2617-2444
고척						
청구 (1998)	82	260	280	150	160	고산공인
	105	350	380	190	200	2625-0666
구로						
극동 (1985)	79	250	260	140	160	극동공인
	112	340	350	180	190	861-1177
신성미소지움 (2003)	85	290	330	180	200	미소지음공인
	102	360	400	200	220	866-6100
한신 (1988)	59	190	200	120	130	월가의부동
	82	220	240	130	140	855-8972
신도림						
동아1차 (1999)	175	630	730	260	290	굿모닝공인
	198	650	770	280	330	2636-1700
신도림4차e편한세상 (2003)	114	680	730	360	370	114공인
	152	900	1000	430	450	2679-7799
오류						
동부골든 (1997)	102	305	315	170	180	한신공인
	138	370	410	190	200	2682-9600
◇금천						
독산						
주공14단지 (1990)	49	130	150	80	80	삼전공인
	76	230	260	130	135	893-8833
◇노원						
공릉						
공릉우성 (1995)	112	320	380	180	200	공릉라이프
	145	405	470	200	220	949-7575
삼익4단지 (1994)	56	175	190	100	110	공릉라이프
	82	265	295	150	165	949-7575
월계						
그랑빌 (2001)	145	490	520	240	270	114테크공인
	168	530	550	240	300	977-1100
삼호4차 (1986)	72	220	230	110	130	꿀벌공인
	82	270	290	120	130	948-4989
풍림아이원 (2005)	76	330	350	210	220	양지공인
	102A	420	450	240	250	974-7373
중계						
롯데우성 (1993)	125	600	720	340	360	좋은집공인
	140	700	825	380	420	938-9944
염광 (1995)	87	260	290	170	180	노원사랑공인
	108A	410	460	220	250	930-4959
하계						
청구 (1988)	86	320	380	200	220	114삼성공인
	102	400	480	240	260	972-3001
청솔 (1989)	59B	155	180	100	105	청솔공인
	72A	220	230	130	135	974-9977
한신동성 (1993)	135	550	700	280	310	114삼성공인
	164	630	800	300	350	972-3001
◇도봉						
도봉						
래미안도봉 (2005)	79A	290	330	180	190	에코빌공인
	104	400	440	190	210	3491-6900
방학						
삼익세라믹 (1988)	79	180	210	120	130	BESTRO제일
	104	300	320	160	170	956-6677
우성1차 (1991)	122	260	300	160	180	우성공인
	123	250	290	150	170	3491-4949

지역 / 아파트명(입주년도)	면적(㎡)	매매가(만원) 하한	매매가(만원) 상한	전세가(만원) 하한	전세가(만원) 상한	문의
쌍문						
한양1차 (1986)	72	220	230	100	120	한양공인
	99	340	360	170	180	992-6112
창						
동아그린 (1996)	88	260	320	170	180	고구려공인
	118	360	420	190	200	993-3311
동아청솔1,2차 (1997)	82	290	330	160	180	동아청솔공인
	110	400	550	220	240	996-9800
현대2차 (2001)	88	290	350	180	200	삼성부동산
	116	370	450	200	230	993-2233
◇동대문						
답십리						
동아 (1999)	108	330	380	200	220	김은숙공인
	141	450	480	210	230	2243-3200
용두						
두산위브 (2009)	80	370	410	190	210	뉴타운공인
	109A	480	510	230	250	964-8989
이문						
대우1차 (2001)	116A	350	400	200	210	행복공인
	149	390	450	220	230	966-3600
장안						
장안1차현대홈타운 (2003)	142	530	670	300	320	홈타운114공인 2243-8500
	168	700	850	350	360	
전농						
동아 (1997)	79	270	290	170	180	명보공인
	105	360	380	200	210	2213-2442
제기						
브라운스톤 제기 (2005)	76	300	330	200	200	재테크공인
	106A	380	420	250	260	928-4489
청량리						
홍릉동부 (2001)	82A	260	300	180	200	명문부동산
	109N	350	400	220	230	968-8811
휘경						
롯데 (2000)	83	260	300	170	180	신성롯데공인
	109	360	400	210	220	2212-3000
신성 (1999)	82	240	280	160	180	롯데공인
	109	340	380	200	220	2248-9911
◇동작						
노량진						
우성 (1995)	82	300	330	200	220	현대공인
	109A	400	480	250	270	817-3003
대방						
대림 (1993)	165	850	930	390	420	믿음공인
	198	1000	1150	430	460	825-2244
본						
경동윈츠리버 (2004)	75	290	370	200	220	유니에셋동작
	100	400	500	230	250	813-9900
사당						
신동아5차 (1998)	82	380	400	210	250	롯데부동산
	109	500	530	270	290	599-5655
상도						
브라운스톤 상도 (2007)	76A	400	430	230	270	부동산월드
	105A	570	620	290	330	816-6300
현대l`PARK (2004)	107	500	530	300	320	포스코114
	140	670	700	330	350	813-8300
신대방						
우성1차 (1988)	105	430	470	210	240	대영공인
	148	600	650	250	300	832-5566
◇마포						
공덕						
래미안공덕2차 (2002)	80	430	460	260	260	천지공인
	144	650	730	360	360	702-0977
대흥						
마포태영 (1999)	82	350	380	220	240	SK부동산공인
	109	500	550	270	300	716-4989
도화						
현대1차 (1993)	99	360	400	190	210	대한민국공인
	161	620	680	270	300	704-4989
상암						
월드컵파크4단지 (2006)	109B1	660	750	320	330	부동산랜드
	134	920	1100	360	380	305-0088
성산						
월드타운대림 (2002)	116B	450	510	250	270	대림공인
	153	620	720	310	330	302-8114
신공덕						
펜트라우스 (2011)	110A	650	690	370	400	갤러리부동산
	149A	850	930	410	450	711-4455
현석						
강변현대홈타운 (2004)	106	540	570	280	300	LG공인
	133	630	780	360	380	719-0003
◇서대문						
남가좌						
래미안남가좌2차 (2005)	83	360	390	210	230	삼성참공인
	109	490	540	250	260	308-4900
북가좌						
가재울뉴타운l`PARK (2008)	86	390	430	210	230	참마음부동산
	109A	500	540	260	270	306-9400
홍은						
풍림아이원 (2002)	115	390	425	180	190	소망공인
	173	550	600	250	300	396-6777
홍제						
홍제원현대 (1998)	82	280	335	200	230	114비전공인
	105	400	490	230	280	3217-8945
홍제현대 (1992)	95	315	390	180	210	현대공인
	132	500	590	220	280	3216-0400
◇서초						
반포						
한양 (1982)	115	900	1000	300	350	서울합동공인
	171	1450	1500	450	500	592-2345
방배						
(구)삼호1차 (1976)	85	570	600	210	230	대림공인
	125	800	850	300	320	599-4040

지역 / 아파트명(입주년도)	면적(㎡)	매매가(만원) 하한	매매가(만원) 상한	전세가(만원) 하한	전세가(만원) 상한	문의
대림아크로리버 (2004)	158	1050	1100	580	600	대림공인
	191	1100	1250	630	650	599-4040
서초						
무지개 (1978)	109	850	900	270	300	골드로즈다올
	128	995	1090	290	330	585-3060
서초래미안 (1682) (2003)	112B	850	900	470	550	서초래미안
	146A	1050	1250	600	700	596-8888
서초트라팰리스 (2005)	102A	700	750	300	340	골드로즈다올
	167A	1250	1350	470	500	585-3060
신동아1차 (1978)	82	620	650	190	220	골드로즈다올
	95	720	740	220	250	585-3060
잠원						
한신2차 (1978)	85	880	950	260	300	씨티공인
	115	1200	1320	320	400	533-4114
한신5차 (1979)	110	950	1000	300	320	씨티공인
	116	980	1070	320	350	533-4114
한신7차 (1980)	114	930	1100	350	380	정공인
	155	1380	1500	500	550	3477-9999
◇성동						
금호동1						
금호삼성래미안 (2001)	78	340	410	200	240	하나공인
	105	430	580	240	280	2298-8944
금호동3						
한신休플러스 (2005)	80	380	430	250	270	OK공인
	106A	500	600	280	310	2252-8944
마장						
신성미소지움 (2004)	76	320	360	200	220	부동산랜드
	106A	410	450	210	250	2299-2727
성수동1						
쌍용 (1997)	79	400	430	240	250	월드공인
	105	500	560	280	290	465-5200
성수동2						
서울숲힐스테이트 (2009)	151A	1092	1300	430	470	서울숲공인
	184	1432	1600	530	570	466-3400
옥수						
극동 (1986)	165	700	830	250	300	서울공인
	171	750	880	290	320	2299-4880
응봉						
리버그린동아 (2003)	80	350	410	220	240	대림랜드공인
	106N	550	670	250	300	2295-2525
하왕십리						
금호베스트빌 (2000)	87	290	320	200	210	부동산뉴스
	109	410	470	240	250	2299-3588
◇성북						
길음						
길음뉴타운4단지 (2005)	109	400	500	260	270	단지상가OK
	143	600	740	300	320	917-8000
돈암						
한신 (1995)	145	470	540	270	300	114공인
	165	470	550	300	320	923-0303
정릉						
스카이쌍용 (1998)	85	220	260	140	160	테마공인
	112	310	360	170	200	941-2211
종암						
삼성래미안 (2003)	76	295	325	200	220	114삼광공인
	101	390	455	220	250	921-7600
하월곡						
월곡두산위브 (2003)	82	290	325	200	210	114두산위브
	109	390	435	220	240	917-7766
◇송파						
가락						
가락시영2차 (1982)	33	430	450	50	55	삼천공인
	42	560	580	75	80	407-3000
문정						
시영 (1989)	52	210	230	80	90	114삼성공인
	76	290	320	130	140	449-0002
방이						
한양3차 (1985)	102	560	650	260	280	금탑공인
	148	830	880	330	370	2202-4455
신천						
미성 (1981)	79	670	730	200	230	JS공인
	105	830	930	230	270	2202-7744
장미2차 (1978)	128	900	1000	330	410	제일공인
	152	1100	1200	400	460	422-9800
잠실						
레이크팰리스 (2006)	86	700	750	350	390	LG공인
	167B	1500	1700	650	700	2203-6800
리센츠 (2008)	42A	380	410	210	240	에덴공인
	109A	900	1100	450	520	420-8300
주공5단지 (1978)	112	1050	1090	250	310	종각부동산
	119	1200	1240	260	320	415-8686
풍납						
한강극동 (1995)	82	350	400	190	210	114한강공인
	112	500	550	220	250	471-6100
현대리버빌1지구 (1999)	56	230	270	150	160	114한강공인
	82	350	420	190	210	471-6100
현대리버빌2지구 (1999)	59	200	230	130	140	114한강공인
	85	350	400	190	210	471-6100
◇양천						
목						
목동신시가지4단지 (1986)	89B	620	700	250	290	한진공인 2644-9992
	148C	1200	1300	470	480	
신정						
경남아너스빌 (2004)	108A	500	550	270	320	대한민국공인
	133B	600	680	350	380	2647-2223
동일하이빌2단지 (2005)	109A	470	520	230	250	동일공인
	143	650	720	270	290	2060-1146
목동신시가지10단지 (1987)	66	400	470	170	200	이화공인
	181B	1400	1600	460	500	2652-7070
신트리단지(도시개발) (1999)	69A	225	270	140	150	소망공인
	82A	290	320	150	180	2696-3999

지역 / 아파트명(입주년도)	면적(㎡)	매매가(만원) 하한	매매가(만원) 상한	전세가(만원) 하한	전세가(만원) 상한	문의
◇영등포						
당산동5						
삼성래미안4차 (2004)	122	720	780	380	390	삼성정문공인
	142	800	880	430	450	2676-3300
상아 (1983)	82	410	450	170	200	상아공인
	105	540	580	220	240	2677-5557
도림						
동아에코빌 (2000)	82	290	320	180	185	쌍용베스트
	105	400	430	220	230	3289-7900
문래동3						
현대홈타운 (2003)	111	590	650	330	350	LBA현대공인
	149A	770	850	400	420	3667-6000
양평동3						
거성파스텔 (1999)	79	305	340	210	220	거성공인
	105	400	460	240	250	2679-4545
여의도						
롯데캐슬아이비 (2005)	152A	870	980	470	520	월드부동산
	202A	1150	1400	550	600	782-2900
수정 (1976)	76	650	700	180	200	딸기공인
	165	1100	1150	300	350	785-0043
시범 (1971)	79	730	800	180	200	포도공인
	119	970	1050	220	300	785-4477
◇용산						
문배						
이안용산1차 (2005)	105A	500	550	190	230	희망공인
	134	680	730	260	280	703-2020
서빙고						
신동아 (1984)	102	920	1000	280	320	153공인
	152	1300	1600	400	450	794-1616
이촌						
대우 (2000)	79A	600	660	300	340	대우부동산
	109A	800	900	370	420	792-1500
한강맨션 (1970)	89	1200	1300	250	280	로얄컨설팅
	105	1500	1550	300

"규제 할테면 해봐" SSM 1000개 돌파

〈기업형 슈퍼마켓〉

법·제도 허점 이용 대형마트들 출점 강행

지난해 말 유통법과 상생법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업형 슈퍼마켓(SSM) 수가 1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대형마트들의 출점 강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SSM 개수가 930곳에 달한다. 가맹점 형태의 SSM을 포함하게 되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의 가맹점 29곳, 47곳, 20곳을 모두 합쳐 1026곳으로 증가한다.

가맹점을 제외한 SSM 숫자를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73곳, 2009년 690곳, 2010년 864곳 등이었다.

브랜드별는 롯데슈퍼가 280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GS슈퍼가 각각 236개, 204개로 뒤를 이었다. 이어 탑마트 76개, 킴스마트 53개, 이마트에브리데이 19개, 기타 62개 등이다.

롯데슈퍼는 '완전 가맹' 모델 형태로 점포를 출점해 SSM업계 1위를 확고하게 굳혔다. 기존 개인 슈퍼를 대상으로 점주의 경영독립성을 보장하면서 상품을 공급하는데 점포 비용을 대부분 점주가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가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한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으로 규제하는 상생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홈플러스도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올해 1월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점포개점 비용의 49%를 가맹본부인 홈플러스 본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1%는 가맹점주가 내는'신가맹모델'을 통해 SSM 출점을 이어갔다. GS수퍼마켓도 점주 투자비용에 따라 총 4가지의 가맹방식을 두고 법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SM규제법이 발효되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가맹방식 전략 짜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

"병원내 감염 폐렴 인공호흡기 탓"

▌한림대 의대 보고서

병원내 감염병 중 가장 큰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병원성 폐렴의 주요 원인이 호흡기 질환자나 수술 시 마취를 하는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인공호흡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에 의뢰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을 위한 다기관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 제하의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병원이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에 보고한 병원내 감염은 총 3965건에 이르렀다.

보고된 병원내 감염 중 요로감염이 2156건으로 무려 54.4%나 차지했다. 혈류감염은 1110건(28.0%)이었다. 병원내 감염병 가운데 치사율이 가장 높은 폐렴도 699건(17.6%)에 달했다.

병원에서 감염된 폐렴의 58.7%에 해당하는 410건은 중환자실 등에서 사용하는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VAP;Ventilator-associated Pneumonia)으로 집계됐다. VAP는 환자가 기계 환기를 시작할 때는 폐렴이 발생하지 않거나 잠복기가 아니었으나 기관삽관 및 기계 환기를 시작하고 48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폐렴을 말한다.

보고서는 "병원내 폐렴은 병원감염과 관련된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통해 기계 환기를 받는 환자는 원내 폐렴의 고위험군이며 이 가운데 VAP는 특히 사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VAP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예후에 악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치료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 7월부터 1년간 동안 699건 발생
59%가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주요원인

의학전문 검색엔진을 통해 선별한 38개 연구 결과를 메타 분석(수십편의 논문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통계적 분석 대상의 관찰치로 전환해 실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분석결과)한 결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환자의 VAP 발생 빈도는 9.7%였다. 이 중 사망률 분석이 있었던 6개 연구를 중심으로 메타 분석을 한 결과 VAP가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 위험도를 2.0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6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예방 지침 실시하게 한 뒤 실시 전후의 VAP 발생률을 분석했다. 이 결과 최고 6.77에 달했던 발생률이 0.58까지 줄어들어 "VAP는 적절한 예방 지침을 구성해 수행하면 발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병원감염질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연구는 VAP 예방 지침 시행에 따른 발병률 감소 여부를 관찰한 국내 최초의 연구다.

황윤주 기자 hyj@

하나SK카드도 고객정보 유출

직원이 5만여건 팔아넘겨…경찰 수사 착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하나SK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내부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와 조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하나SK카드는 마케팅 부서 직원 박모씨가 고객 개인 정보200여 건을 유출한 사실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SK카드 측은 "고객 신상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해 온 박씨가 정보 일부를 유출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자체 조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모씨는 회원정보 취급 업체에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박씨 등을 상대로 유출 범위와유출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노트북 컴퓨터 등을 압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는 삼성카드 직원이 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앞의 두 자리, 직장명,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삼성카드는 유출된 고객 정보가 1만 8천여 건이라고 밝혔다가 지난 8일 경찰이 본사와 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80만여 건이 유출됐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삼성카드에 이어 하나SK카드 내부 직원의 개인 정보 유출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형 카드사들의 개인 정보 관리 및 보안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득관 기자 d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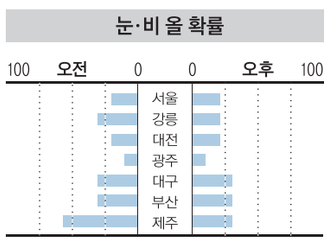
내일의 날씨 (최저/최고) ☀ 해뜸 06:18 해짐 18:34 ☽ 달뜸 23:11 달짐 13:19



전국 흐림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9도, 낮 최고기온은 20~25도가 되겠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상에서 2.0~6.0m, 서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눈·비 올 확률



※ 자료 : 기상청



천고마비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경주마를 보며 느긋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종마목장들이 주말 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다. 초가을 마지막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18일 고양시 원당종마목장에서 커플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고속道 하이패스 오작동 하루 3075건

작년 112만대서 발생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오작동 건수가 하루 평균 3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 장윤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차량 5억6500만여대 가운데 약 112만대에서 하이패스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오작동률 1%를 밑도는 0.12% 수준이다.

하지만 하이패스 이용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다 오작동시 울리는 사이렌이 운전자를 당황시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오작동률을 낮춰야 한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에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29건의 사고가 발생해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했다. 장윤석 의원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오작동률을 대폭 낮추고 오작동에 따른 2차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기술적으로 하이패스 오작동시 사이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

22일 車 갖고 나오지 마세요

'승용차 없는날' 캠페인

환경부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 없는 날' 행사를 오는 22일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년중 하루만이라도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취지로 실시되는 행사로 매년 9월 22일에 열린다.

환경부는 서울시 및 환경과 사랑, 녹색자전거봉사단, 녹색미래실천연합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청계광장에서 이날 오전 10시에 기념식과 대중교통 실천 서약식, 환경사진·저공해차 전시 등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또 '승용차 없는 날' 캠페인 홈페이지(www.carfreeday.kr)를 7~9월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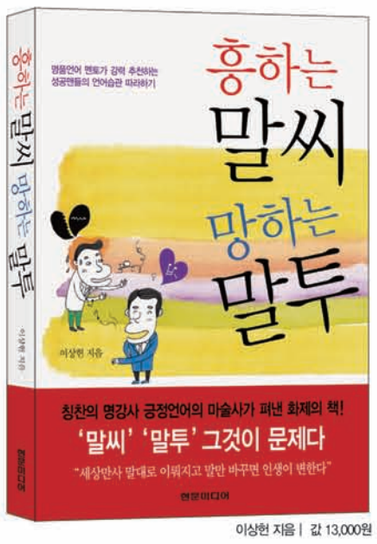
박태진 기자 tjpippo@

CEO·부모님·선생님·연인·성직자가 추천하는 이 시대 최고의 선물!

말씨 말투, 그것이 문제다

말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면 얼굴도 가난해 보이고 마음이 부자면 얼굴도 부자로 변한다.
운명을 바꾸려면 심상을 변화시키라는 얘기다.
그러나 심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다.
아무리 외부적인 변화가 생겨나도 사용하는 말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다. (본문 중에서)



이상헌 지음 | 값 13,000원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 표정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며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를 외쳐보자고 제안한다. – 조선일보

명품언어의 멘토이자 칭찬하는 말습관을 설파해온 저자가 소개한 성공한 사람들의 언어습관 – 국민일보

긍정적인 말과 적극적인 표정을 만들어 보자. 말과 표정이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다. – 포커스

능력만큼 중요한 말하는 기술을 전수한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결과가 뒤바뀐다. – 메트로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생 모두에게 선물했는데, 태도가 달라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책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 은평구 선정중 선생님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 책을 보며 '한 마디를 해도 듣기 좋게 하자' 고 생각했어요. – 신선설렁탕 CEO로부터 선물받은 최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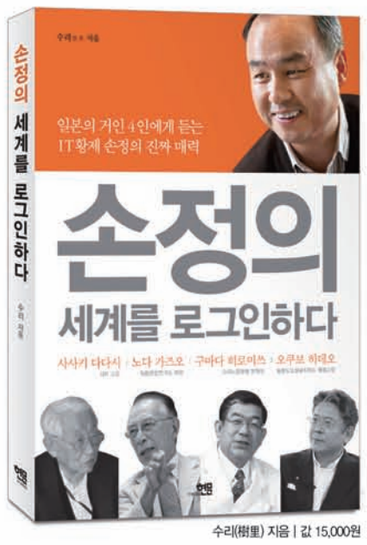
신부님께서 선생님 신간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를 읽으시고 하노이 한인성당 공동체 신자가정에 한부씩 선물하셔서 꼭 읽게 하고 싶으시답니다. – 밀양 예림성당 신자 메일

지금껏 34년을 살며 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는데… 이 책을 다른 수용자들에게 빌려주어 마음의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구치소의 재소자 편지

일본의 거인 4인에게 듣는 IT황제 손정의 진짜 매력

손정의 세계를 로그인하다

일본 대지진 복구에 1,300억 원 기부, 태양광 발전사업에 수천억 원 투자,
한국에 'KT·SB 데이터 서비시스' 공동 설립 결정…
세계와 미래를 밝혀나가는 재일 한국인 기업가 손정의의 열정과 집념,
그리고 꿈의 실현! 한국은 정말 미래의 IT 강국이 될것인가?



수리(樹里) 지음 | 값 15,000원

베일에 싸였던 그의 무명시절 이야기가 공개된다!

"따뜻한 된장국에 김치 한 쪽 밥숟갈에 얹어주던 할머니의 사랑이 고국을 잊지 않게 하고 용기와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스스로 택하고 결정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손정의 회장은 언제나 밝고 아이디어가 기발한 순정파입니다. 사사키 다다시 — 샤프 고문

내가 50대, 그가 20대인 첫 만남에서부터 나는 손정의 군의 의연하고 밝은 성품, 그리고 넘치는 재기 발랄함에 푹 빠졌습니다. 노다 가즈오 — 일본종합연구소 회장

사람을 매료시키는 마약과 같은 향기를 풍기면서 늘 어제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구마다 히로미쓰 — 도라노몬병원 분원장

사람들은 작은 성공에도 곧 교만해지고 우쭐거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손정의 씨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오쿠보 히데오 — 도쿄상공회의소 특별고문

www.hmbooks.co.kr 02)706-2367 현문미디어

남편이어 아내도 'KAIST 사랑'

김병호 서전농원 대표 부인 김삼열씨
300억 기부 남편 뒤따라 50억 부동산 쾌척

김삼열씨(61)가 1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서남표 총장에게 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쾌척한 김병호(70) 경기도 용인시 서전농원 대표의 부인이다.

이로써 이들 부부는 KAIST에 기부했던 거액 기부자나 그 가족의 재기부 금액 가운데 최대규모인 총 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했다.

김씨는 "남편의 기부로 지난 5월 KAIST에 '김병호·김삼열 IT융합센터'가 착공하는 것을 보고 나라 발전을 위해 정말 큰일을 했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원래 내년 12월 IT융합센터가 완공되는 날 추가 기부의사를 밝힐 생각이었는데 카이스트가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시라도 빨리 내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은 "이번 기부가 기부 바이러스 확산에 새 장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김씨의 뜻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겠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에 기부한 경기도 남양주시


김병호(70) 서전농원 대표(왼쪽)와 그의 아내 김삼열(61)씨가 KAIST에 총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해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의 부동산은 부부의 별장을 지으려던 곳이다.

김씨는 부부의 별장을 짓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기부를 결심했다.

앞서 김 씨의 남편인 김 대표는 경기도 용인의 임야·전답 등 9만 4744㎡(2만8660평)을 카이스트 발전기금에 기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7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건강이 악화됐던 김 대표는 한 TV 프로그램에서 서 총장의 모습을 보고 '기부를 하려면 저분에게 맡겨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는 고향인 전북 부안군의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10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정아름 기자 jar43@

프랑스로 돌아온 스트로스-칸
"아내에 미안… 대선출마 않겠다"

정계 복귀 가능성은 남겨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사진〉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프랑스 귀국 이후 처음으로 18일(현지시간)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미국 뉴욕 호텔 여종업원과의 성관계에 대해 "부적절한 관계를 넘어 도덕적으로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이날 프랑스 최대 민영 채널인 TF1 TV 생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피텔 여종업원과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 "도덕적인 실수로 정말 후회한다"면서 "아내와 자녀, 친구뿐 아니라 내 안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준 프랑스 국민에게도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분 동안 진행된 이날 대담 프로에서 "그러나 호텔 여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폭력을 행사하지도,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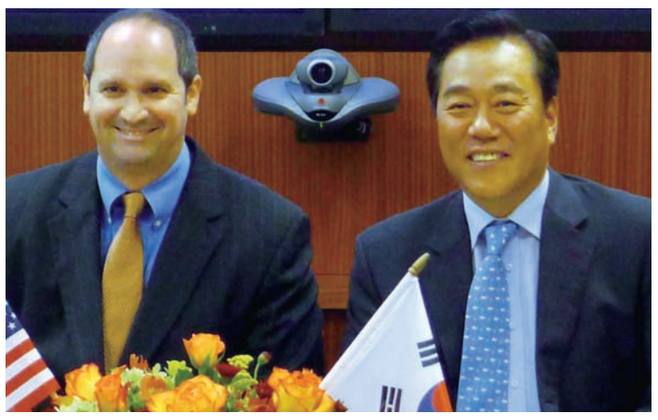
스트로스-칸은 특히 "뉴욕 검찰은 문제의 여종업원이 자신의 과거와 일어난 일들에 대해 모두 거짓말을 한다고 결론지었다"면서 "금전적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8년 전의 일로 성폭행 미수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프랑스 여성 작가 트리스탄 바농의 주장에 대해 대해서 "상상에서 나온 것으로 어떤 공격도 폭력도 없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트로스-칸은 내년 대선과 관련해 자신은 더 이상 후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사회당 경선에 관해서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서 그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것이며 지금은 먼저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내 모든 생애는 공공의 선에 바쳐왔다"고 말해 일말의 가능성은 남겨놨다.

배준호 기자 baejh94@



SK바이오팜·美 메이요 클리닉 업무협약

박상훈 SK바이오팜㈜ 사장(오른쪽)과 미국 메이요 클리닉의 레오날드 페트루첼리 박사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에 있는 SK바이오팜 현지법인에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우리銀,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협약

이순우 우리은행장(왼쪽)과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6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亞 승마협회장 김광원씨



대한승마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광원 한국마사회장〈사진〉이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아시아승마협회 총회에서 아시아승마협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마사회가 18일 밝혔다.

인사

◆환경부 ◇국장급 승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심무경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기획처장 김광진 △교학처장 황찬규 △연구처장 변상해 △사무처장 강일모 △평생교육원장 최민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부장 조건우 △방사선연구실장 한승재 △방사선안전총괄실장 정재학 △방사성폐기물평가실장 정찬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시교통연구실 윤혁렬 △환경안전연구실 유기영 △주택도시설계연구실 박현찬 ◇연구위원 △환경안전연구실 원종석 △환경안전연구실 최유진 △주택도시설계연구실 박은철

◆TV조선 △보도본부 취재에디터 최희준 △〃 경제부장 김진우 △〃 국제부장 정박문 △〃 뉴스센터 부장 권혁범

◆경기신문 △편집국장 안병현

부음

▲고영진(부영산업㈜ 대표이사) 계원(아주대 교수)씨 부친상, 홍성부(전 ㈜신한 회장) 백호정(메릴랜드주립대 교수) 박진선(샘표식품 대표이사) 권수종(국제영어대학원 사무국장) 김동수(미국 해양기상청 연구원)씨 빙부상 = 19일 오전 1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 발인 21일 오전 8시 02-3010-2295

▲김용현(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씨 부친상 = 17일 오전 5시, 삼성서울병원 17호, 발인 21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7

▲강일남(전 농민신문사 출판국장) 동훈(BBS 불교방송 경제산업부장) 미영(시인)씨 모친상 = 19일 오전 0시25분, 전남 여수 전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1일 오전 10시 061-642-4444

▲강태영(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씨 별세 = 근영(재미 사업가)·기영(ING 컨설턴트)씨 형님상, 유인촌(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씨 매형상 = 17일 오후 6시7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2-2227-7580

▲김흥민·흥남·흥규(성신여대 교수)·혜숙(유한킴벌리 상무)씨 모친상, 허민(문화일보 사회부장)씨 빙모상 = 18일 0시, 광주 금호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62-227-4381

▲박정훈(회사원)씨 부친상, 신철우(목사)·김영진(건축사)·김현진(교장)씨 빙부상 = 18일 0시,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111호, 발인 20일 오전 7시, 031-412-5444

▲하철민(경북일보 중부본부장)씨 부친상 = 18일 오전 2시30분,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20일 오전 5시, 053-958-9000

▲홍석준(대구시 의료산업팀장)씨 부친상 = 17일 오후 1시, 대구의료원 특실 302호, 발인 20일 오전 6시 010-5118-1549

기고

미래 먹거리 '전자인쇄' 육성을



정 안 정
인쇄전자협회 사무국장

차세대 한국의 산업을 주도할 신성장 동력은 어떤 산업일까? 그동안 한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해 온 분야의 특징은 정부주도의 산업육성과 지원정책에 기인한 대기업구조의 발전전략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시장은 빠르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은 D램 가격하락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시장의 다변화와 더불어 최근 세계 IT산업에서의 하드웨어(HW)에서 소프트웨어(SW)로 급격한 이동을 통하여 중요한 포인트를 잃은 체 정부는 차세대 핵심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하고 있다. 세계적 리딩산업인 철강과 해양조선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의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고해상·고정밀… '제4 산업혁명'

앞에서 언급한 세계적 리딩그룹에 속하는 산업의 특징은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해당 대기업의 몰락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한국시장에 끼치는 파장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진행중인 IT산업의 지각변동과 향후 발생할 가능성 있는 국내 선도산업의 하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적 육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태양광산업, LED산업 등에서 세계시장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해 해당산업의 주도권을 거대중국 시장에 넘겨줬고 지금은 후발주자로 해당 시장 선점을 위해 산업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의 정부 연구개발과 산업발전 전략은 성숙된 시장과 응용산업(Application Industry) 위주로 진행돼 왔다. 물론 성숙기로 접어들어 많은 캐시카우(Cash cow)를 창출하는 산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산업은 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추진력을 가지고 연구개발이 이뤄 질 수 있다. 보다 주요한 것은 산업적 진입기에 해당하고 정부주도의 발전전략이 필요한 산업적 육성이라고 생각한다.

나노산업에 지난 10년간 많은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고 그 성과가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산업전반에 걸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탄소산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의 산업적 지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기업적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성장가능성과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산업적 합의와 수년간 많은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산업적 육성을 위해 노력한 [인쇄전자산업]은 어떠할까?

인쇄전자산업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RFID, 조명, 메모리 등 다양한 응용산업에 적용가능한 2차 산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쇄전자산업은 제4의 산업혁명, 제조공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불리며 저가, 대면적 고속생산이라는 인쇄기술의 고유한 특징에 고해상, 고정밀, 친환경의 산업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쇄전자산업은 글로벌마켓을 가진 미래유망기술인 태양전지, 디스플레이, 조명, 메모리 등 광범위한 산업에 응용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인쇄전자산업은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어, 국내시장 조기형성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기이다.

産·學·硏 상생협력 이끌어야

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는 인쇄전자산업에서 중요시되는 부품·소재분야의 원천기술력 축적과 함께 친환경·융복합 산업의 특성을 활용한 産·學·硏·官 간 유기적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전반에 걸쳐 튼튼한 뿌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인쇄전자산업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를 부합하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인쇄전자산업을 리더하기 위해 2011년 7월 한국인쇄전자산업협회는 産·學·硏이 중심이 돼 2008년 태동된 한국인쇄전자협의회를 전신으로 해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앞으로 국가의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인쇄전자산업 활성화, 정책지원 및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당문학상 이영광
황순원문학상 윤성희

제11회 미당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이영광(46)씨, 황순원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윤성희(38) 씨가 각각 선정됐다고 이 상을 주관하는 중앙일보가 19일 밝혔다.

수상작은 이씨의 '저녁은 모든 희망을'과 윤씨의 단편소설 '부메랑'이며 상금은 미당문학상 3000만원, 황순원문학상 5000만원이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김종현 광고국장 김진택
정치경제부 (02)799-2655 증권부 (02)799-2658 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62 국제부 (02)799-2650
사회생활부 (02)799-2661 여론독자부 (02)799-2657 사진팀 (02)799-2633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스포츠문화부 (02)799-2669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600원
www.etoday.co.kr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0-77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6 센터빌딩 6F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문학과 종교, 역사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우리 시대 진정한 스승들의 통찰과 혜안!
피천득, 법정, 김재순, 최인호, 박완서, 이해인, 방혜자, 이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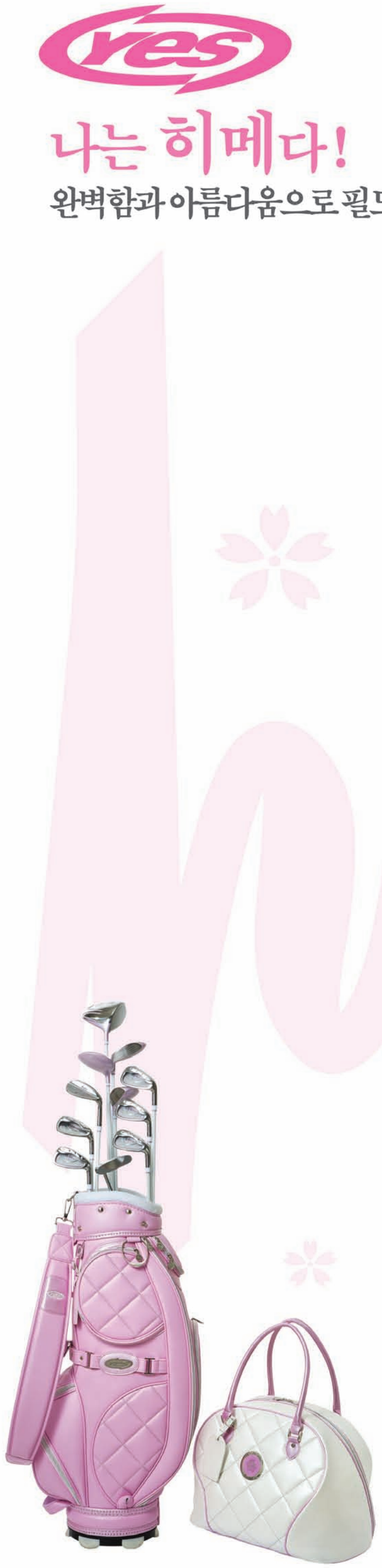
수필가 피천득 스님 법정 제13대 국회의장 김재순 소설가 최인호 소설가 박완서 수녀 이해인 화가 방혜자 역사학자 이인호
우리 시대 길 잃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행복·예술·신앙·가족·사랑·시대에 관한 품격 높은 삶의 경륜과
슬픔·문학·기도·역사·교육·여성 등 삶의 여백에 담긴 깊은 지혜의 울림!
마르고 거친 일상을 위로하며 일깨우는 대숲같은 목소리!
대화

대화 1 (피천득, 김재순, 법정, 최인호) | 양장 | 168쪽 | 9,000원
대화 2 (박완서, 이해인, 방혜자, 이인호) | 양장 | 284쪽 | 11,000원
故 법정 스님 저서 절판 유지 봉행에 따라 ㈜샘터는 해당 도서 판매를 종료하고, 무상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02)763-8961~6 www.isamtoh.com 샘터

yes

나는 히메다!

완벽함과 아름다움으로 필드의 주인공이 되다!





KJGOLF www.kjgolf.net KLPGA

KLPGA 공식 스폰서

YES 여성전용 클럽 hime 시리즈

조합세트구성 : 캐디백세트,헤드커버(아이언포함),항공커버,신발주머니,무료쿠폰북

(주) KJ 골프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191-4 TEL 02) 808-0707 www.kjgolf.net cafe.naver.com/kjgolf1


서울팔래스호텔 선보이는 송이소금구이.

자연을 담은 향, 가을을 담은 맛 송이

특급호텔서 더 특별하게 즐기기

가을의 진객(珍客)이 찾아왔다. 산 속 깊은 음지에서 특유의 향과 맛을 품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이맘 때쯤 사람들과 마주한다. 송이 얘기다. 항암효과와 더불어 각종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부터 가을만 되면 산으로 버섯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난다. 산이 깊은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는 지역별로 버섯채취 체험행사를 열고 손님맞이 준비에 바쁘다.

하지만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가을 버섯 보기가 그리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특히 올해는 자연송이가 더 귀해졌다. 인공재배가 안돼 9~10월 잠깐 시중에 나오는데, 원래 귀했던 이 버섯이 올해는 늦더위로 물량까지 부족하다. 농민들은 산속에 버섯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물건이 없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양양송이영농조합은 지난해 10월 1등급 1㎏에 18만원 하던 자연송이 가격이 올해(9월16일) 30만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두 배가량 오른 셈이다.

지난해 자연송이 풍작으로 평소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송이 맛을 봤다면 올해는 일찌감치 기대를 접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미식가들이 언제 비싸다고 등돌린 적 있던가? 올해 더 귀해진 송이 더 특별하게 먹어보자.

자연송이는 산(山)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았다. 깊은 산중 2년 이상된 오래된 소나무 뿌리 끝 부분에 붙어 공생하기 때문에향기로운 솔냄새가 일품이다. 인공재배가 어려워 채취하는 시기도 9~10월로 한정돼 있고, 채취 역시 쉽지 않아 버섯 중에 으뜸으로 여긴다. 송이 특유의 독특하고 진한 향이 쫄깃한 질감과 함께 어우러지면 늦더위에 지친 심신을 회복시키고 잃었던 입맛을 되찾을 수 있다.



솔향 가득… 칼륨·철분 풍부
호텔들 다양한 페스티벌 열어
구이·수프·찜·만두·볶음 준비

송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천하 일미다. 감칠맛을 내는 구아닐산나트륨과 버섯 특유의 방향 성분인 렌티오닌, 메틸시나메이트, 옥텐올이 다른 버섯에 비해 많이 들어있다. 영양분이 풍부하면서도 열량이 낮아 고혈압과 비만, 심장병 환자에게 좋다.

칼륨과 철분도 풍부하다. 항암효과가 뛰어나고 피부미용과 기관지, 폐 등 호흡기 질환에도 특히 좋다고 한다.

단백질이 많고 면역, 항균, 해독 등 다양한 약효가 있어 한방에서도 귀한 약재로 여겨졌다. 각종 연구를 통해 동맥경화와 심장병 등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이는 성질이 서늘하고 열량이 적어 보양식으로 제격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강과 장수, 스테미너를 중시했던 왕들은 송이 매니아들이 많았다.

서울 특급 호텔가에서는 제철을 맞아 자연송이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선보인다. 올해 더 귀해진 송이를 왕처럼 즐길 수 있다.

서울팔래스호텔에서는 '자연송이 페스티벌'을 10월 말까지 벌인다. 일식당 '다봉'에서는 영양만점인 송이 돌솥밥과 송이 소금구이가 포함된 송이 정식 외에 향긋한 송이향의 고유한 맛을 담백하게 느낄 수 있는 송이 소금구이, 버터구이, 스키야끼, 돌솥밥 등의 단품 요리가 준비돼 있다.

29년 전통의 중식당 '서궁'에서는 '추향자연송이 페스티벌'로 생송이를 포함한 두 가지 코스메뉴를 준비했다. 생송이 스프와 생송이 고급 야채 볶음 등이 포함된 코스와 상어지느러미찜, 해삼, 두부 등의 재료와 생송이를 조리해 맛과 향을 살린 송이 코스 두 가지가 마련된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수퍼 다이닝 일식당 '슌미'는 11월 30일 까지 다채로운 자연송이 메뉴를 내놓는다. 슌미의 수석 셰프 '백학만 조리장'이 선사하는 '자연송이 특선 요리'는 '진미' , '계절 젠사이' , '질그릇 주전자찜' , '제철 사시미' 와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서 즉석에서 제공하는 '자연송이 오리구이' 그리고 제철을 맞은 대하와 자연송이를 튀겨낸 '자연송이 새우튀김' , 은행과 버섯 그리고 옥돔으로 만두모양을 만든 '자연송이 만두' , '자연송이 은행밥' , '제철 과일'이 순서대로 제공된다.

롯데호텔도 10월까지 6만원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일식당 모모야가 송이 주전자 찜 등을 판매하며, 한식당 무궁화는 햅쌀 송이밥에 잣 소금을 곁들인 송이 마 구이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준비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또다른 버섯은

향도 맛도 '송이' 못지않은 '능이'

'1능이 2표고 3송이' 논쟁도
표고·영지·상황도 영양풍부
야생버섯 중 10%는 독버섯

버섯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다. '1능이 2표고 3송이'가 그것이다.

아마 한방에서 약용효과에 따라 분류해놓은 것을 일반인들이 가져다 쓴 모양인데, 송이를 으뜸으로 치는 이들은 송이 캐러다 능이만 채취해 돌아온 사람들이 자격지심에 그런 말을 한다고 비아냥거린다.

물론 시골 어른들이 농담조로 하는 말로 근거는 없다.

가을 버섯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능이버섯은 인공재배가 안돼 귀하기는 마찬가지다. '괜히 1능이, 2표고, 3송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능이는 맛과 향에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건조하면 강한 향을 뿜어내 향버섯이라고도 한다.

단백질 분해효소가 들어있어 고기와 같이 먹으면 아주 그만이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능이 달인 물을 소화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송이와 마찬가지로 암에도 효과가 있어 약으로 쓰였다. 능이는 주로 끓는 물에 살짝 데쳐먹거나 고기와 함께 구워먹는다.

평퍼짐한 생김새에 비해 맛은 송이 못지 않다고 미식가들은 입을 모은다.

표고버섯은 참나무나 밤나무, 서어나무 등 활엽수의 마른 나무에서 자란다. 이미 인공재배가 보편화돼 송이나 능이만큼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동의보감은 표가가 입맛을 좋게 하고 구토와 설사를 멎게 한다고 했다. 건표고는 또 좋은 천연조미료가 된다.

영지버섯은 중국 진나라 진시황이 불로초로 여겼던 일화가 유명한 버섯이다. 석이버섯의 일종으로 높은 산의 벼랑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 버섯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 고혈압과 심장병, 동맥경화, 고지혈증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밖에도 겨울엔 벌레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이 되는 동충하초와 항암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돼 환자들이 많이 찾았던 상황버섯이 있다. 상황은 여성의 자궁출혈이나 생리불순에 도움이 되고 위를 튼튼하게 하지만 약간의 독이 있어 먹을 때 주의해야 한다.

버섯은 신이 내린 선물이다. 하지만 먹을 수 있는 버섯은 우리나라의 경우 1100여종 20~30종이 채 안된다. 1000여개에 가까운 버섯이 독버섯이거나 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말이다. 올 가을에도 버섯 마니아들은 자연산 가을 버섯을 캐러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맘때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독버섯 중독사고다. 야생버섯 중 10%정도가 독버섯으로 식용버섯과 비슷한 것이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버섯을 채취했더라도 구별이 안된다면 절대 먹어서는 안된다.

yoon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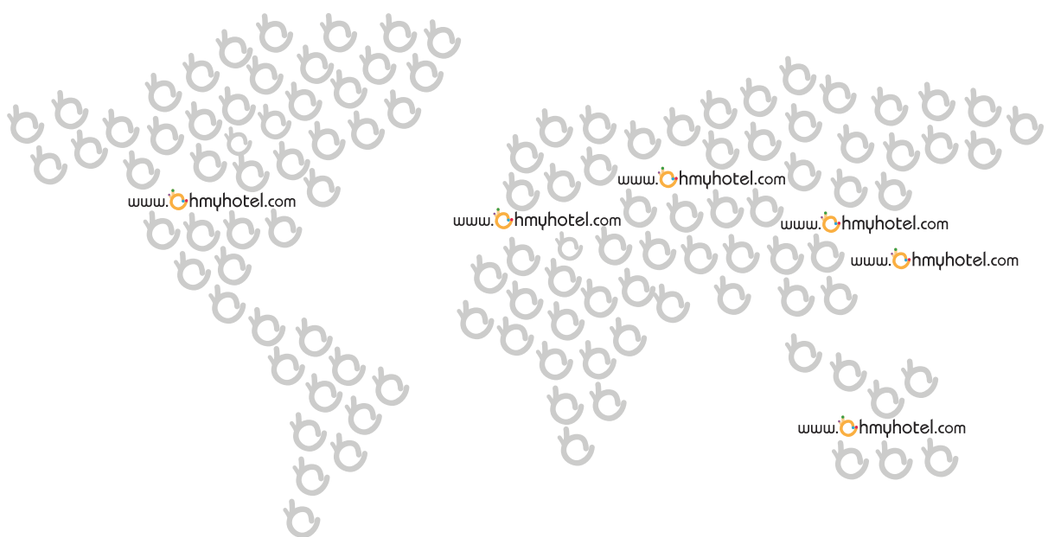

능이버섯

www.ohmyhotel.com

전세계 비즈니스 트립 솔루션의 새로운 이름

수많은 전세계의 주요 도시들, 해외 출장 때 마다 숙소 예약에 골머리를 썩히고 계십니까?
오마이호텔은 강력한 네트워크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세계 7만여개 호텔 정보를 제공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요금조회에서 실시간 예약확정으로 이어지는 차원이 다른 호텔 예약 서비스
오마이호텔, 전세계 비즈니스 트립 솔루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오마이호텔



오마이호텔 기업회원 서비스

- 전 세계 7만여개 호텔 실시간 예약 기업전용 회원 운영
- 일반개인고객 대비 마일리지적립 및 요금할인 적용율 2배
- 기간별 예약 실적에 따라 숙박권 및 할인권 증정
- 미국, 유럽, 인도, 일본 등 주요 출장지역 전문상담원 운영

☎ 02-725-8004 국내호텔 ☎ 02-725-6767 해외호텔

bico Happy Plus BICO Tourism
㈜비코티에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6-11 BICO N B/D (121-894) hotel@ohmyhotel.com

ohmyhotel.com | Hotel Japan.com | HOTEL INFO

와인 마시며 꿈길로… 카누 타고 신비의 섬으로





마가렛 리버와 인도양이 만나는 어귀에서 즐기는 '부시터커 카누' 투어

서호주 와이너리 투어
마가렛 리버

서호주의 다양한 관광지 중에서도 마가렛 리버 지역은 와인과 휴양, 그리고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퍼스에서 남쪽으로 약 3시간 반정도 거리에 위치한 마가렛 리버(Margaret River) 지역은 이 지역의 이름이자 이곳을 흐르는 강의 이름이기도 하다. 최고급 포도주가 생산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이곳은 와인과 함께 곁들여서 즐길 수 있는 올리브, 치즈, 잼, 초콜렛과 같은 음식문화도 함께 발달하여 전세계 와인 애호가들의 관심이 주목되는 곳이다.

포도재배 이상적 환경… 소규모 고급와인 생산
'르윈 와이너리' 세계적 팝·오페라 콘서트 인기
석회동굴 탐험·카누·돌고래 투어도 재미 쏠쏠

온화한 날씨와 주변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진단 결과 토양까지 모두 포도 재배에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된 1967년부터 바스 펠릭스(Vasse Felix) 와이너리를 시작으로 와인 농장들이 하나둘씩 선보이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60개 이상의 와이너리들이 있다. 마가렛 리버 지역의 와이너리들은 이른바 '부띠끄' 스타일로 소규모로 그러나 고급 와인만을 생산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와인이 호주 전체 와인의 5%에 불과하지만 최고급 와인 부문에서는 무려 2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각각의 와이너리는 또한 개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급 와인뿐만 아니라 저마다 독특한 조경이나 건축도 선보이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선사한다.

남아프리카 양식의 건축물을 지어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마치 고대 그리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원형 공연장을 갖춘 곳도 있다.

이곳의 와인이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이곳 와인이 갖고 있는 깊은 맛과 아름다운 빛깔도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리조트들 덕분이기도 하다.

와인 산업의 성공 덕분에 마가렛 리버에는 품격높은 레스토랑이 줄지어 들어서고, 이와 함께 양조장, 레스토랑, 올리브 재배 그리고 치즈 생산 등 '식품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했다. '마가렛 리버' 라는 상표는 사슴 고기, 초콜릿, 딸기, 커피, 캔디,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제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마가렛 리버 지역에 있는 고급 리조트들은 모두 친환경적인 자재들로 지어졌으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만들어 진 것이 특징이다. 각 리조트마다 스파와 요가는 물론 주변 와인너리와 연계한 낭만적인 식사, 피크닉, 골프 등을 즐길 수 있어 호주내 인기있는 허니문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마가렛 리버의 대표적인 르윈 에스테이트 와이너리(Leewin Estate Winery) 에서는 금방 수확한 듯한 말린 포도와 치즈와 비스킷, 과일이 와인의 맛을 한껏 돋구워 준다.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 화창한 햇살이 비추는 테라스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은 마가렛 리버에 위치한 와이너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특히 매년 2월 르윈 와이너리에서는 세계적인 팝,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을 초청해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그동안 런던 필하모닉, 다이아나 로스, 키리 테 카나와, 스팅 등이 공연을 펼쳤으며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최고급 와인과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인해 티켓은 항상 1년 전 매진사례를 기록한다.

이 밖에도 라몬트(Lamonts) 와이너리 및 보이저(Voyager Estate) 와이너리 에서도 이곳이 자랑하는 와인을 시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도 경험할 수 있다.

마가렛 리버에는 또한 약 100 여개의 석회암 동굴이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동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크기나 내부 모양이 제각각이라 동굴 탐험도 이 지역의 인기있는 활동이다.

이밖에 마가렛 리버와 인도양이 만나는 어귀에서는 매일 '부시터커 카누' 투어가 시작된다. 부시터커랑 호주 원주민들의 음식을 일컫는 말로 이 투어에 참여하면 노를 저어서 아름답고 신비한 작은 '쏘리(Sorry) 섬' 까지 갔다가 다시 노를 저어 건너편으로 온다.

점심은 야외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는 호주 원주민 음식들로 구성된 이른바 '부시터커' 투어를 경험한다. 각종 열매와 캥거루 고기 등 그야말로 웰빙 음식들이다. 점심 후에는 근처의 산에 올라가서 동굴속에서 원주민이 연주하는 전통 악기인 디저리두를 감상할 수 있다.

그외에도 로킹햄(Rockingham) 에서는 돌고래 투어를 반드시 해보길 추천한다.

눈앞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확률이 99%라는 이 투어는 초기에 상업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돌고래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에 영리한 돌고래들은 반가운 배가 오면 만나러 헤엄쳐 온다.

배위에서 돌고래들이 헤엄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워칭투어(watching tour) 도 흥미진진하지만, 직접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하는 스위밍 투어(swimming tour) 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황의신 기자 philla@


케이프 로지

부티크 호텔 '케이프 로지'
150가지 고급와인 준비
호숫가 고풍스런 호텔

2008년 호주 최고의 부티크 호텔로 선정됐으며 큰 호숫가에 자리잡고 있는 케이프 로지는 마지 유럽의 고풍스러운 리조트를 연상할만큼 분위기 있는 곳이다.

리조트가 갖고 있는 특성 외에도 이곳을 유명하게 만든 것은 이곳의 레스토랑이다.

리조트 내에서 운영되는 이곳 레스토랑은 콘데 나스트 트레블러의 골드 리스트에 의해 호주내 최고의 신세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서호주의 고급와인이 생산되는 마가렛리버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150개 이상의 프리미엄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 수백만달러를 들여 업그레이드를 마친 24개의 로맨틱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근사한 벽난로가 있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와 함께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한가로운 휴가를 즐기거나 조용한 호숫가 주변을 산책하는 여유로움도 즐길 수 있다.

고급 와인이 생산되는 마가렛 리버에 위치하고 있어 근교의 와이너리를 둘러보는 와인 투어뿐만 아니라 치즈와 초콜렛을 생산하는 공장또한 둘러보는 즐거움이 있다.

캐나다 BC 할로윈 테마투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 주는 10월 할로윈 축제기간을 맞아 선보이는 할로윈 이색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표적인 짚라인 업체인 아드레날린은 할로윈 기간 중 10월 28, 29, 30일 3일간 야간 개장을 하고 유령 짚라인 투어를 운영한다. 짚라인 투어는 50m 높이의 아찔한 나무 위에서 최장 300m에 이르는 8개의 코스를 케이블에 매달려 가로지르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에코투어 액티비티다. 요금은 성인 약 9만원(79캐나다달러), 청소년 8만원(69캐나다달러)으로 예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www.adrenalinezip.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스탠리 파크에 위치한 미니어처 기차길이 할로윈 기간 동안 고스트 트레인으로 변신,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성인 약 1만2000원(10캐나다달러), 유·소아 7,000원(5캐나다 달러)이다. 자세한 사항은 www.ghosttrain.ca 에서 확인 가능하다.



밴쿠버 트롤리 투어 버스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할로윈 테마로 장식된 등골이 오싹해지는 숨겨진 밴쿠버의 미스터리를 공개한다.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으로 13세 이상 이용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성인 약 4만3000원(38캐나다달러), 청소년 2만8000원(25캐나다달러)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vancouvertrolley.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나투어 '동남아 로맨틱 석양'

하나투어는 본격적인 가을 시즌을 맞아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 '로맨틱 가을로의 초대 From 동남아시아'를 선보였다. 필리핀 보라카이, 캄보디아 앙코르왓 등 동남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자랑하는 지역을 소개하며, 가을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설탕을 뿌려놓은 듯 윤이 나는 필리핀 보라카이 화이트 비치는 석양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으로 유명하다. 하나투어 '보라카이 직항 5일__디스커버리' 상품은 밤이 더 화려한 보라카이의 중심가 디몰 노천바에서 석양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원한 음료도 제공한다. 또 보라카이 선셋 상품만의 특징인 몽골리안 바베큐 철판 볶음밥 등 다양한 특식을 맛보고 황제마사지를 체험하는 일정으로 109만9000원부터 선보이고 있다.

세계 3대 석양을 자랑하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는



로맨틱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연출된다. 하나투어는 '샹그릴라 탄중아루 5일'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객실당 와인을 한 병 제공하며, 키나바루 윙 씨뷰 객실을 이용해 객실에서도 석양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툰구압둘라만 해양공원내 아일랜드 호핑투어, 전통 민속촌 공연관람 및 문화체험 등의 일정이 포함되어 104만9000원부터 예약 가능하다.



감미롭게… 강렬하게… 가을 밤 적시는 기타 선율

10cm·크라잉넛 등 홍대 인디밴드들 폐관위기 클럽 '바다비' 모금 공연

세시봉 멤버는 파주포크축제 출연 밴드 넬 등 내달 '그랜드민트' 무대


10cm


세시봉


넬

가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 페스티벌이 곳곳에서 개최된다.

폐관위기에 놓인 살롱 '바다비'와 뇌수술을 받은 '바다비' 주인장을 위해 인디밴드 130여 팀이 뜻을 모아 '바다비, 네버다이'란 주제로 열흘간 음악축제를 벌인다.

지난 15일부터 홍대 곳곳에 위치한 소규모 공연 클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비 네버다이' 는 인디밴드의 공연장인 바다비의 폐관을 막고 주인장인 우중독보행(시인)의 치료 및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바다비를 거쳐간 인디밴드들의 기획으로 마련됐다. 하이미스터메모리, 정민아, 갤럭시 익스프레스, 사이, 적적해서 그런지, 더문, 그리고 불나방스타 쏘세지 클럽의 조까를로스 등의 뮤지션들과 현재 바다비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더큅, 구텐버즈, 드린지오, 부나비, 백자, 빅터뷰 등의 뮤지션들이 참여한다.

지난 15일 첫 공연에는 크라잉 넛, 십센치 등이 공연의 시작을 함께 했고 이후 장재인, 장기하와 얼굴들 등 지상파 TV에서 봤던 뮤지션들도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바다비 네버다이'관계자는 "다수 뮤지션들의 참여에는 바다비와 주인장에 대한 인연과 애정뿐 아니라 클럽들이 사라지고 독립문화의 생태계가 위협받는 현 상황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사흘간 파주에서는 포크음악 축제 '제1회 파주포크페스티벌'이 열린다.

1·2일 공연은 파주 임진각 야외공연장에서, 3일은 파주 출판도시 야외무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첫째날에는 '세시봉' 활동으로 포크 열풍을 몰고 온 윤형주·김세환을 비롯해 한대수·임지훈·남궁옥분·강은철·해바라기·정태춘·박은옥·추가열 등이 출연한다.

다음 날에는 박학기·강인봉·이동은·박승화의 포커스와 한동준·장필순·동물원·여행스케치가 출연하고, 윤도현의 YB밴드가 무대 마지막에 등장해 포크록을 펼치며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3일에는 강산에·봄여름가을겨울·장기하와 얼굴들·장재인 등이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세대 간 정서를 통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료 행사"라면서 "사랑·평화·자유라는 포크음악의 정신을 모두가 만끽할 수 있게 무료 공연을 결정했다"고 했다.

또 10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그랜드민트페스티벌2011'이 개최된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윤종신, 자우림, JK 김동욱을 비롯 인디듀오 십센치, 보컬그룹 스윗소로우, '인디계의 대부'이한철, '홍대여신' 요조, 모던록의 상징 델리 스파이스와 언니네이발관, 김C가 주축인 뜨거운 감자, 정순용의 1인 프로젝트 토마스 쿡, 실력파 모던록밴드 칵스 등의 출연을 알렸다.

몽환적인 사운드와 호소력 짙은 사운드로 주목받는 모던록 밴드 '넬'역시 GMF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는다. 2008년 멤버들의 군 입대로 활동을 중단한 넬은 올해 전역 이후 첫 무대를 GMF에서 꾸민다.

이번 축전은 민트 브리즈 스테이지, 클럽 미드나이트 선셋, 러빙 포리스트 가든, 카페 블라섬 하우스 등 4개 무대에서 꾸며진다. 페스티벌 레이디로는 모델 겸 가수 장윤주가 선정됐다.

김현정 기자 khj@

'연애' 숨기지 않는 스포츠·연예 스타 커플


유병재·신지 커플


유하나·이용규 커플

농구선수 유병재·가수 신지 커플 이어 야구 이용규·배우 유하나도 열애 공개

스포츠스타와 연예인들의 공개적인 만남이 줄을 잇고 있다. 농구 선수 유병재와 가수 신지, 야구선수 이용규와 탤런트 유하나를 비롯해 야구선수 박병호와 전 아나운서 이지윤까지 열애를 인정하며 공개적인 만남에 거리낌 없는 모습이다.

지난 15일에는 야구선수 이용규(KIA 타이거즈·27) 선수와 탤런트 유하나가(25) 열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유하나의 소속사측은 지난 15일 열애설이 불거지자 "두 사람은 올해 7월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며 "이용규 선수가 운동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유하나가 힘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조심스럽게 만남을 인정했다.

유하나는 이용규의 경기장을 찾아 소리높여 응원하는가 하면 이용규와 공개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속속 목격되며 16일에는 결혼설이 나오기도 했다.

유하나-이용규 커플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코요태 멤버 신지(이지선·30)와 농구선수 유병재(KCC 이지스·27)가 열애설(지난 10일 본지 최초보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랑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다.

신지와 유병재는 이날 자신의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열애를 인정하며 "예전부터 알고지내다 지난 2010-2011 시즌이 끝난 5월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지와 유병재는 3살 차이나는 연상연하 커플이지만 신지가 힘들 때 유병재가 힘을 주며 사랑을 키워왔다.

야구선수 박병호(넥센 히어로즈·25)와 KBSN 전 아나운서 이지윤은 지난해부터 사랑을 키워왔다.

올해 4월 열애사실이 알려진 두 사람은 당시 "1년전부터 만나며 사랑을 키워왔다"며 담담하게 열애설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니홈피를 통해 데이트 사진을 공개하는가 하면 공개데이트도 즐기는 커플로 알려져 있다.

배우 박수진(26)과 축구선수 백지훈(수원 삼성·26), 배우 이연두(27)도 축수선수 김정우(상주 상무· 29)도 공개연인으로 유명하다.

이들도 미니홈피와 SNS등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등 전혀 숨기지 않는 모습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스포츠스타와 여자 연예인들의 만남은 팬들에게 어색한 일이 아니다. 이미 농구선수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 야구선수 김태균과 김석류 전 아나운서, 농구선수 임효성과 가수 슈등, 열애가 결혼까지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

이들의 활동 분야는 다르지만 바쁘게 활동하며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공통점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다.

스포츠스타들의 공개열애에 야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의 열애사실이 알려지면 성적부진이 연애 탓으로 돌아갈까 부담을 느꼈지만, 요즘에는 열애설을 기회로 삼아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오히려 공개연애가 남의 눈을 피할 필요가 없어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



16세 소녀 톰슨 LPGA 역사 새로 쓰다

나비스타클래식 우승…크리머 '18세' 기록 깨
이미나 공동 6위…태극낭자 100승 또 무산
최나연 16번홀서 행운의 홀인원 공동 18위

한국선수들이 또다시 '아홉수'의 고리를 끊지 못한 가운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사상 최연소 챔피언이 탄생했다.

미국의 차세대 기대주로 부상중인 알렉시스 톰슨(16)이 LPGA투어 나비스타클래식(총상금 180만달러)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우승을 달성했다.

톰슨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 RTJ 골프트레일(파72. 6,607야드)에서 끝난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2타를 줄여 합계 17언더파 271타를 쳐 챔피언조에서 한조를 이뤄 플레이한 재미교포 티파니 조(25)를 5타 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 2월 만 16세가 된 톰슨은 2005년 5월 사이베이스 클래식에서 당시 만 18세 9개월 17일 만에 정상에 오른 '바비 인형' 폴라 크리머(25.미국)의 역대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경신했다.

LPGA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은 1952년 사라소타 오픈에서 18세 14일 만에 우승한 마를린 바우어(77.미국)가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1라운드(18홀) 대회로 치러졌다.

전날 5타나 앞서 이변이 없는한 우승이 예약됐던 톰슨은 전반에 2타를 줄이며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후반 들어 11, 12번홀에서 줄 보기를 범하며 스코어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공동 3위로 시작했던 티파니 조가 12번홀부터 15번홀까지 4개홀 연속 버디행진을 벌이며 톰슨을 3타 차로 추격, 압박을 시작했다.

그러나 승부는 16번홀(파3)에서 갈렸다.

여신은 톰슨의 손을 들어줬다.

티파니 조의 티샷한 볼이 핀 3m에 낙하시키자 톰슨은 홀 50㎝에 붙였다. 티파니 조의 버디 퍼팅은 홀을 살짝 빗겨갔고 톰슨은 버디를 골라내며 스코어를 4타차로 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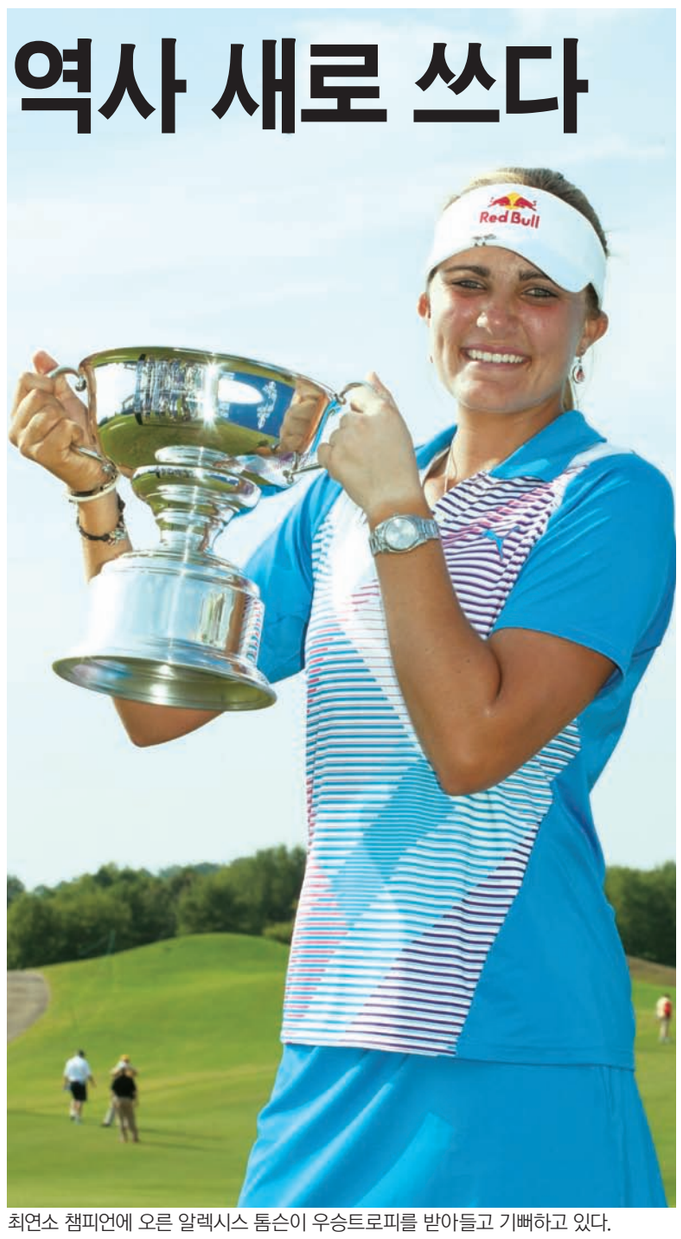
톰슨의 17번홀 버디는 갤러리들을 위한 서비스였다.

전날 선두와 5타차로 단독 2위였던 이미나(30.KT)는 1오버파 73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6위로 밀려났다. 한편 최나연(24.SK텔레콤)은 16번홀에서 행운의 홀인원을 기록한 데 힘입어 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18위를 마크했다.

안성찬 기자 golfahn@



톰슨이 10번홀에서 러프지역에서 세컨드 샷을 한 뒤 날아가는 볼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



최연소 챔피언에 오른 알렉시스 톰슨이 우승트로피를 받아들고 기뻐하고 있다.

블레이크 20년만에 정상

송도 IBD챔피언십…연장서 쿡 제쳐



'콧수염' 제이 돈 블레이크(사진·53·미국)가 챔피언스 투어에서 첫승을 차지하며 20년만에 정상에 올랐다.

승부는 연장 5번째 홀에서 갈렸다. 1991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유일하게 1승을 올린 블레이크는 챔피언스투어 8승의 존 쿡(54.미국)과 10번홀(파4.425야드)에서 벌어진 연장 5번째홀에서 버디를 잡아 파에 그친 쿡을 따돌리고 극적으로 우승했다.

블레이크는 18일 인천 송도 씨티의 잭 니클라우스GC코리아(파72.7,413야드)에서 끝난 '대한항공 프리젠티드 바이' 송도IBD 챔피언십(총상금 300만달러) 최종일 경기에서 4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쳐 쿡 등 3명과 타이를 이룬 뒤 연장전에서 우승했다.

블레이크는 올 시즌 PGA 챔피언스 투어중 가장 많은 우승 상금인 40만5000달러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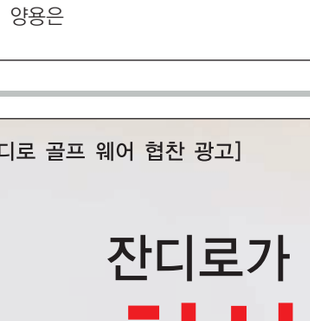
연장전에 나선 선수는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한 올 시즌 챔피언스 투어 3승의 쿡, PGA투어 메이저 2승 등 통산 16승을 올린 마크 오메라(54.미국), 이날 8언더파 64타를 쳐 코스레코드를 경신한 피터 시니어(52.호주), 블레이크 등 4명.

오메라와 시니어는 연장 3번째 홀인 10번홀(파4.425야드)에서 파온에 실패한 뒤 보기를 범해 먼저 탈락했다. 연장 4번째인 18번홀(파5.509야드)에서 쿡이 공격적으로 세컨드 샷을 3번우드로 쳤으나 온그린에 실패하며 3온2퍼팅으로 둘다 파로 비겼다.

한편 이 대회는 지난해 러스 코크란(53.미국)이 91년 우승이후 연장전에서 19년만에 정상에 오른데 이어 블레이크가 또 다시 우승, 시니어선수들의 '컴백'무대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최경주·양용은 페덱스컵 PO최종전 나간다

플레이오프 3차전 각각 공동 10·12위에 올라



최경주



양용은

최경주(41.SK텔레콤)와 양용은(39.KB금융그룹)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에 나간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 최경주는 19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레먼트의 코그힐G&CC(파71.7,386야드)에서 끝난 플레이오프 3차전 BMW 챔피언십(총상금 800만달러) 최종일 경기에서 버디 3개, 보기 2개로 1타를 줄여 합계 3언더파 281타로 공동 10위에 올랐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 '톱10' 진입으로 페덱스컵 랭킹을 13위로 상위 30위까지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게 됐다.

양용은도 합계 2언더파 282타를 쳐 전날보다 10계단을 상승한 공동 12위에 랭크, 페덱스컵 랭킹 28위로 투어 챔피언십에 진출했다.

5,6번홀 줄보기로 최종전 진출이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불투명했던 양용은은 후반들어 10, 12번홀 '징검다리' 버디에 이어 16번홀에서 버디를 추가했고 18번홀에서 파를 잡아내면서 최종전에 진출했다.

특히 양용은은 16번홀(파4)에서 파온에 실패했지만 26야드를 남기고 친 볼이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가 '천금의 버디'를 낚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또한 양용은은 17번홀(파4)에서도 그린 밖에서 친 네 번째 샷이 홀을 파고 들면서 파로 막아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는 합계 13언더파 271타를 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가 존 센든(호주)를 2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전반에 버디와 보기를 2개씩 주고받아 스코어를 줄이지 못한 로즈는 후반들어 15번홀에서 보기를 범해 이날 버디만 2개 골라낸 호주의 존 센든(호주)의 막판 추격을 받았지만 17번홀(파4)에서 어프로치 샷한 볼이 그대로 홀로 연결지으며 버디를 잡아내 우승쐐기를 박았다.

지난주까지 페덱스컵 랭킹 34위였던 로즈는 이번 우승으로 3위까지 뛰어 올랐다.

한편 2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막하는 투어 챔피언십은 우승상금외에 특별보너스 1,000만달러가 걸려 있다.

웹 심슨(미국)이 페덱스컵 포인트 5,261점을 따내 2위 저스틴 존슨(미국)을 1,420점차로 밀어내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하나銀 챔피언십 자원봉사단 발대식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하나은행 챔피언십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LPGA조직위)는 진난 18일 하나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 자원봉사단(이하 하나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교육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 임영호 상무를 비롯해 소속 선수이자 2011년S-OIL 우승자 이미림 등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대식은 자원봉사단 소개, 업무 교육, 이미림 의 골프 클리닉 등 순으로 이뤄졌다.

본점에서의 교육이 끝난 후에는 송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니어 투어 대회에 참관해 자원봉사자 실무를 참관했다.

하나 자원봉사단은 총 60명으로 구성되며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갤러리 통제를 담당하는 마샬 및 운영 본부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원봉사제도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및 LPGA투어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한국 대회에서도 간혹 자원봉사를 동원했지만, 소수에 그쳤고 체계적인 매뉴얼은 전무했다.

따라서 이날 발족한 하나 자원봉사단은 미국 투어 규정에 준하는 시스템을 갖춘 첫 자원봉사단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LPGA하나은행 챔피언십(총상금 180만달러)은 10월7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골프클럽 코리아에서 열린다.

[잔디로 골프 웨어 협찬 광고]

잔디로가 만든, 365일 편안한 슈즈!

최상의 발 컨디션 유지!

잔디로대리점 또는 잔디로닷컴에서

잔디로 골프화·워킹화 구매고객에게 골프모자 증정!

행사기간: 2011. 8/24 ~ 9/30(사은품 소진시 행사 조기 종료)

이벤트 참여점: 잔디로닷컴, 잔디로 의류대리점

EVENT 1 골프화(2114, 2115) 할인가 ₩315,000 → ₩220,000원

EVENT 2 워킹화(2116, 2118) 할인가 ₩252,000 → ₩176,000원

잔디로 골프웨어 가을상품 70%~30% SALE

증정품 ▶

골프모자 교환권

잔디로 골프화·워킹화 구입후 본 교환권을 제시하시면 골프모자를 드립니다

기간: 9월 30일까지

사은품 소진시 행사 조기 종료

JANDIRO GOLF

Thank you for your....

Pittards WORLD CLASS LEATHER

WR 100 COMFORTABLE WALKING JANDIRO

구입문의: 02)2690-9000 www.jandiro.com

세계 명품가죽 영국 피타드社 천연가죽 직수입, 우리 발에 맞는 워킹화를 잔디로 서울 공장에서 직접 생산합니다.

■서울 강남점 02)6909-8800 목동점 02)2608-7400 보문점 02)928-9900 김포공항점 02)2662-9966 강서점 02)412-6501 ■경기·인천 포천송우리 031)544-9772 죽전점 031)276-1135 일산덕이점 031)922-4682 산본점 031)393-3258 이천점 031)635-5235 화정세이브 031)973-8834 안산로데오 031)416-7214 인덕원 031)424-5554 수원영통 031)202-2535 부천상동점 032)321-5447 부평아이즈빌 032)270-2525 인천검단 032)567-1066 ■강원도 원주점 033)763-9820 춘천석사점 033)264-1560 ■대전·충청도 천안원랜드점 041)567-4691 대전세이브존 042)484-9696 대전패션월드 042)472-5967 청주점 043)232-7519 청주분평점 043)291-3322 음성점 043)872-7090 천안중앙점 070)8836-8983 ■부산·대구·경상도 남산점 051)908-5989 송정점 051)908-5559 대구지더샵 053)581-5357 김천점 054)973-0801 창원점 055)286-7887 ■광주·전라도·제주 순천SC점 061)746-1900 광주금호점 062)371-1150 광주용봉점 062)511-0014 전주서신점 063)276-5000 송천점 063)255-0988 전주세이브존 070)4403-5077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How to live SMART

0도와 180도 사이에서

사랑을 보다

Presented by 삼성카메라 MIRROR POP







로우앵글에서 하이앵글까지 180° 팝업 LCD

삼성카메라 미러팝 MV800

1620만 화소 / 광학 5배 줌 / 26mm 광각렌즈 / 스마트 터치 3.0

Waveye 앱으로 본 광고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www.mirrorpop.co.kr을 통해 '사랑을 보다' Full Story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AMSUNG